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종합발전계획

김포시

제 출 문

김포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2월

(주)이안전전략컨설팅 대표 김 준 호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3. 연구의 체계	4
II. 사회문화 환경변화 분석	5
1. 사회 환경변화와 문화예술 분야	7
1)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	7
2)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 소비 행태 변화	8
3) 지역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재조명	9
4)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유와 공존의 문화 확산	9
2. 문화예술 정책환경 변화	11
1) 정부 정책 기조 변화	11
2) 지역문화 정책의 흐름	14
3) 법·제도 및 계획 여건	16
3.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환경변화	25
1) 정치·국제관계 변화	25
2) 경제 환경변화	26
3) 사회 및 생활 환경 변화	26
4) 기술 환경변화	27
5) 생태 환경변화	27
6) 문화예술 분야 변화	28
4. 종합분석	35
III. 김포시 문화예술 여건 분석	39
1. 인문사회 환경	41
1) 입지 특성 및 접근성	41
2) 인구특성	42
3) 산업·경제 현황	45
4) 도시개발 현황	46
5) 시민 인식	47
2. 문화예술 자원 현황	50
1) 문화재 및 문화유산	50
2) 문화예술 시설 및 공간	52

3)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	54
4) 문화예술 인력 및 단체	55
3. 문화예술 관련 계획	59
1)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15)	59
2)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2020)	61
4. 종합진단	65

IV. 시민·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67

1. 조사개요	69
2. 시민 의견수렴 결과	70
1) 응답자 특성	70
2) 조사 결과	71
3. 창작자 의견수렴 결과	91
1) 응답자 특성	91
2) 조사 결과	92
4. 매개자 의견수렴 결과	95
1) 응답자 특성	95
2) 조사 결과	95
5.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98
1) 응답자 특성	98
2) 조사 결과	98
6. 시사점	100

V. 계획 기본구상 103

1. 지난 계획 검토	105
1) 계획 개요	105
2) 추진 성과	107
3) 한계	110
2. 기본방향	111
1) 접근 관점	111
2) 핵심 키워드	113
3) 문화예술 진흥단계	114
4) 비전체계	115

VI. 추진전략 및 과제 117

1.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119
1)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내실화	119
2) 지역 문화예술 관련 연구·조사 정기 수행	122

3) 문화예술 창작지원 체계 재정비 및 사업 확대	123
4) 권역별 문화 거버넌스 구축 및 공공-민간 연계 활성화	126
2. 문화예술 접근성 개선	128
1) 지역문화 거점 확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128
2) 문화소외지역 및 문화소외그룹 대상 맞춤형 문화 서비스 확대	130
3) 정책사업 정보화 추진 및 홍보 활성화	131
4) 위드 코로나 시대 김포형 문화예술 뉴노멀 마련	133
3. 문화예술 가치성 증진	136
1) 시민 문화예술 관심 증가 계기 확대	136
2)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확대 추진	138
3)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체계 개선	140
4) 문화다양성 구현 기반 마련	141
4. 문화예술 지속성 확보	144
1) 사업 추진체계 정비 및 인력 양성	144
2) 지역 대표 콘텐츠 발굴 및 육성	145
3) 지역 문화역량 강화 경험 축적	149
4) 단계별 평가·환류 체계 구축	150

VII. 세부 실행계획 153

1. 추진체계	155
2. 투자계획	156
3. 단계별 로드맵	157

■ 부록 159

1. 시민 설문지	161
2. 창작자 설문지	168
3. 매개자 설문지	171
4. 전문가 설문지	173

I.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체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6-2020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후속 계획 수립시점 도래

각종 도시개발 사업 추진,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 등 도시 성장 가속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변화 및 김포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증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문체부) 및 ‘제2차 경기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경기도)에 대한 대응 필요

문화적 접근 및 문화예술 활성화 필요성 증대

2021-2025 문화예술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

⇒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 도모

□ 전방위적 도시 성장이 진행 중인 김포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략 수립 필요

-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김포도시철도 등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급격한 인구 유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과의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등 지역 및 도시의 경쟁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 김포문화재단 설립, 김포아트홀 개관, 김포아트빌리지 건립 등 지역 문화예술 분야에서 많은 발전적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제는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 측면에서도 체계적이고 조화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함
-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지역 문화환경을 분석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높은 기대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김포시 맞춤형 계획수립을 통해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강화 도모

- 김포시의 문화유산, 문화시설, 문화산업 등 문화실태와 문화역량, 미래 문화 전망에 대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 전략 수립 등 문화예술 중장기 진흥계획을 수립해 시민 행복 및 김포의 문화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함
- 얼마 전 발표된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과 ‘제2차 경기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경기도)에 대한 기초지자체 차원의 대응으로, 김포시만의 문화적 접근 방법 및 문화예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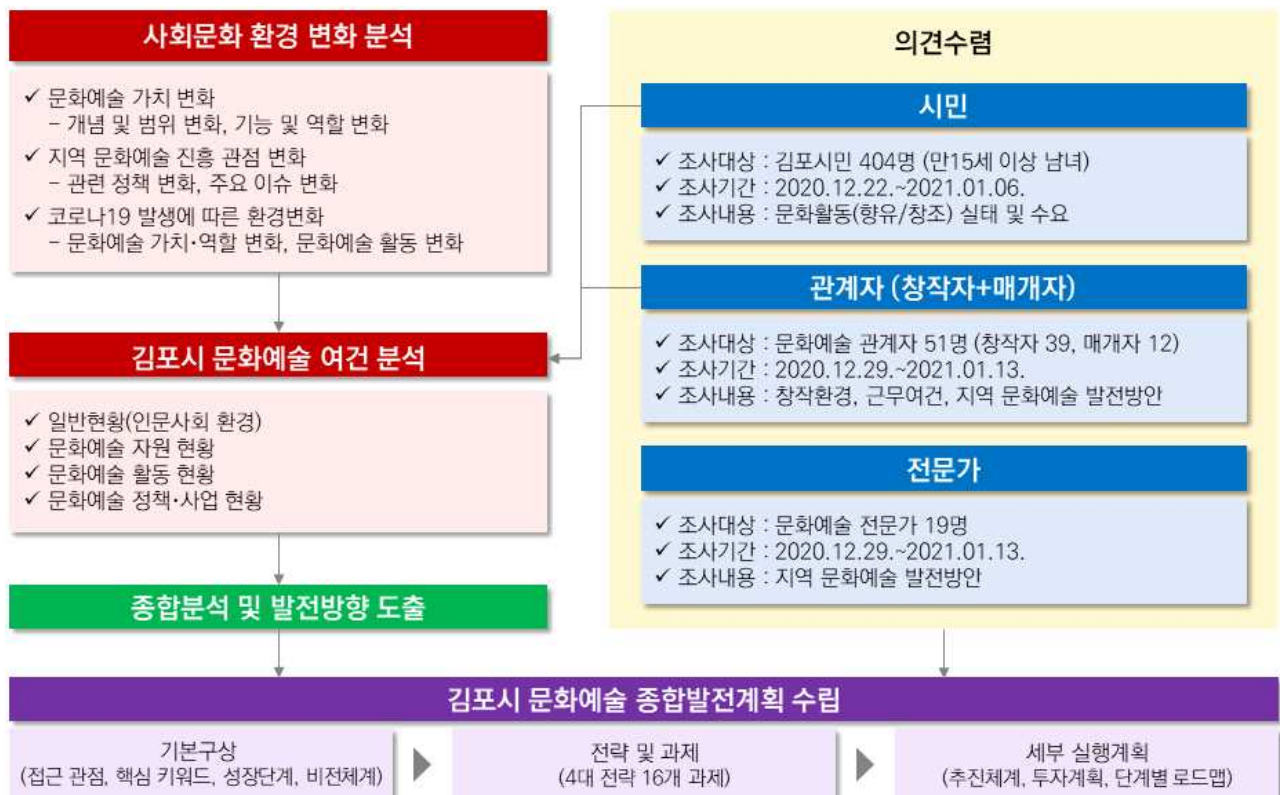
□ 시간적 범위 : 2021년~2025년

□ 공간적 범위 : 김포시 전역

□ 내용적 범위

- 2016-2020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평가 및 성과 분석
- 지역 문화예술 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문화적 환경변화 양상 분석
- 시민의 문화향유 실태, 지역 문화역량 등 지역 문화여건 및 환경 분석
- 수요자 중심의 정책수립을 위한 시민, 창작자, 매개자, 전문가 대상 의견수렴
- 김포시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의 기본방향, 비전, 목표 등 기본구상
- 김포시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의 부문별 세부 추진과제 및 사업 발굴
- 김포시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의 추진체계, 단계별 로드맵 등 실행계획 수립

3. 연구의 체계



II. 사회문화 환경변화 분석

1. 사회 환경변화와 문화예술 분야
2. 문화예술 정책환경 변화
3.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환경변화
4. 종합분석

1. 사회 환경변화와 문화예술 분야¹⁾

1)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

□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이 사회혁신을 이끄는 주요 영역으로 부각

- 다보스포럼은 2016년 ‘직업의 미래’ 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약 7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약 2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
- 새로운 창출직업군 중에서 예술 및 음악 관련 직종, 엔터테인먼트 직종 등 감성과 상상력을 가진 문화예술이나 콘텐츠산업의 일자리 비중이 매우 높음
 - 한국고용정보원은 향후 미래 변화 트렌드를 읽는 중요한 코드로 문화를 꼽았으며 이로 인해 문화나 예술에 대한 관심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
- 문화예술은 창의성, 감성의 영역이므로 4차 산업혁명 시 자동화로 인한 고용불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10년 만에 개정된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에 문화콘텐츠 분야 직업이 새롭게 신설²⁾

□ 기술과 문화예술 분야의 융복합 현상을 지원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역할 증대

- 첨단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감성, 경험적 자극이 더 요구됨에 따라 현대는 하이테크(기술)와 하이터치(감성)의 이상적인 조합을 요구하는 시대
-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첨단기술과 달리 문화는 국가마다 그 특성이 다르므로 미래기술과 문화의 융합을 통해 과학에 기반한 국가경쟁력 강화 가능
 - 2017년 가트너가 선정한 전략기술을 보면 ‘인공지능과 고급 머신러닝’, ‘지능형 앱’, ‘지능형 시물’,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디지털 쌍둥이’, ‘블록체인과 분신장부’, ‘대화형 시스템’, ‘그물망 앱과 서비스 아키텍처’, ‘디지털 기술 플랫폼’, ‘능동형 보안 아키텍처’ 등이 선정
- 기술과 산업 간 창조적 결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융합의 시대에서 미래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문화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가치와 실천 방향 모색 필요

□ 사람 간의 연결은 물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온·오프라인 연계, 인간과 기기의 연결 등이 중요한 화두가 됨

- 초연결사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사람 및 사물 간의 연결이 증대되는 사회로 사회와 산업의 구조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음
-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개선하는 가운데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술과의 융합이 더욱 활발할 전망

□ 문화 활동에서 참여적 활동이 두드러지며,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가 혼재되는 양상 진행

- 신중 마니아 등장, 오타쿠의 창조성으로 인한 새로운 문화 창출
- 언제 어디서든 연결되는 보편적 네트워크를 가진 스마트미디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문화 소비와 참여가 확산되고 있음
-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콘텐츠의 확장으로 콘텐츠 소비 방식이 단순 소비에서 진화,

1) 전주시(2019), 「2030 전주문화비전 수립 학술연구」, 김규찬·이성민·김현주·윤주(2017), 4차 산업혁명 과 문화관광 산업 정책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종은, 이상열(2017),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

2) 통계청(2017.07.03.),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고시”

사용자의 직간접적 명령이나 요구에 적응적으로 반응하는 체감형 또는 상호작용형 참여와 경험 공유로 변화

- 역사학자 요한 하위징아가 제시한 놀이하는 인간, 즉 호모 루덴스(Ludens)로서 인간본성이 주목받고 있으며 일과 휴식을 분리했던 삶의 형태에서 점차 일과 놀이를 동시에 추구하는 성향으로 바뀌고 있음

2)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문화예술 소비 행태 변화

□ 희생을 통한 조직과 사회 내에서의 성공 보다 개인의 삶 자체의 질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확산

- 성장을 위한 개인의 희생, 물질주의 가치관보다는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가치관 중시, ‘일’ 중심사회에서 벗어나 일의 질, 행복, 일과 삶의 균형을 지향하는 가족중심의 생활을 중시하는 시대로 변화
- 한국민의 행복지수는 OECD의 평균에 비하여 1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삶의 질에 대한 제고가 국가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

□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고령인구의 여가활동 중요성 확대

- 2017년 한국의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고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들어서면서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³⁾
- 노인층은 여가경험 및 비용 부족으로 여가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행복수준이 낮은 상황⁴⁾
 - 노인층과 장년층 행복지수(10점 척도) 5.95 (70대 이상) vs 6.59 (30~40대) 60대 이상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나 대부분 소극적 휴식활동 위주
- 2012년 문화관광부에서는 능동적인 은퇴생활을 영위하는 “창조적 고령층(Silver Cultizen)”을 양성하기 위하여 “문화로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목표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사회참여형 문화예술체육 방안 등을 제시⁵⁾

□ 다양한 문화소비 형태가 발전됨에 따라 4인 가구 중심이 아닌 1인 가구 중심의 소비 행태 확대

- 1인가구 문화소비 지출행태 분석을 보면 콘텐츠 소비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연령별로는 20대는 공연 및 문화중심, 30.40대는 콘텐츠 중심의 문화소비 지출패턴을 보여⁶⁾ 늘어나는 1인가구 및 문화향유 방식의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다양화 필요
- 이와 더불어 문화향유의 방식을 개인화하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홀로 취미와 여가시간을 보내는 나홀로 라운징(Lounging) 문화 출현⁷⁾
- 1인 가구 증가로 인하여 교육, 보건, 주거, 돌봄, 여가, 일자리 등 전반적 정책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복지과 문화와의 긴밀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3) 노컷뉴스(2018.08.27.) “한국 ‘고령사회’ 첫 진입, 생산인구도 사상 첫 감소”

4) 문화체육관광부(2012) 고령화시대 노인층 여가 활성화 방안, p.1.

5) 문화체육관광부(2012) 고령화시대 노인층 여가 활성화 방안

6) 박지혜, 이순학, 한승희(2015), “1인가구의 문화소비 지출행태 분석” 이슈페이퍼, Vol. 2015- 376, 산업연구원

7) 박지혜, 이순학, 한승희(2015), “1인가구의 문화소비 지출행태 분석” 이슈페이퍼, Vol. 2015- 376, 산업연구원

□ 사회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복지의 영역에서 문화적 관점 도입 확대

- 사회복지 역할이 시민들의 보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확대되면서 단순한 경제적인 안전망의 확충뿐 아니라 개인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문화복지가 매우 중요한 공공정책으로 부상⁸⁾
-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정책에 개인의 문화적 권리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
- 2018년 발표한 「2030 문화비전」은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과 평등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물리적 성장, 경제적 단계를 지나 문화복지를 추구하는 사회를 위한 정책 제시

3) 지역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재조명

□ 지방으로의 권력 이양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문화의 중요성 확대

- 중앙정부는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거나 지방에의 시설확충 정책 추진,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문화정책 강화 추세
- 지역의 문화행정 이양은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높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정체성 보존 및 발전시키는데 중점

□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적 도시재생에 대한 공공정책 확대

- 탈공업 또는 탈산업 단계를 맞이한 지방에 늘어나는 유허공간과 지방인구 감소로 인하여 지방소멸 문제 대두
- 도시재생은 단순히 공간 및 환경 정비사업이 아닌 커뮤니티 및 공동체성의 회복의 과정으로써 구성원의 삶의 기억, 역사문화유산, 역사문화경관, 지역공동체 등 유무형 자산 발현이 핵심요소⁹⁾로 작용

□ 국지적 지역단위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은 「문화21실천」계획의 9대 책무에서 문화와 도시계획, 거버넌스 등을 골자로 지역과 도시문화의 중요성 강조
- 세계지방정부연합과 세계도시문화정상회의(WCCF)에서 지역재생은 정책적 화두
- 국내에서도 서울과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지역의 유허공간 또는 폐산업시설을 기반으로 문화공간과 도시를 재구성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확대

4)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유와 공존의 문화 확산

□ 전 세계적으로 문화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 최근 경기침체와 전 세계적으로 문화공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속도로 증대
- 밀레니엄세대들은 자동차, 주택구매보다 공유를 대표 소비패턴으로 함

8) 정무성(2016),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방향”, 「웹진 아르크」, Vol. 30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9) 조광호(2017), 도시재생에서 역사문화콘텐츠 활용의 쟁점 및 정책지원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시대는 끝난다”라고 주장하며 공유경제를예찬하였으며 시장 교환가치가 사회의 공유가치로 대체되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이 시장에서 덜 팔리고 자원도 덜 사용된다고 주장

○ 이미 공유경제는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으면서 도시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¹⁰⁾

□ 사회 전반적으로 의견을 공론화하고 이를 새로운 사회혁신의 움직임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

- 2018년 미투 폭로 등 문화계 권력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예술계의 오래된 관습 및 체질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음
- 과도한 문화권력으로 인하여 폭력을 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미투운동의 확산과 성평등 문제 해결 방안 강화 필요
- 미투 운동, 다양한 혐오 현상 및 세대갈등 등 다양한 갈등의 골이 분출되는 반면 이에 대한 토론이 활성화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전반적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 가까이 가는 계기¹¹⁾

□ 사회적 경제를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경제적 생산 가치 제고

- 문화예술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의 정의는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영리를 추구” 하는 것을 일컬음¹²⁾
-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정책으로 ‘혁신창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육성’ 두 가지를 핵심으로 선정
- 문화예술분야에서는 노동집약적 특성에 따라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으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증진에도 기여하는 등 이점이 부각되는 추세¹³⁾

□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문화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방안’ 제시

- 인구지형 변화(다문화인구 유입,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문화정책 요구 증가 예상
- ‘문화다양성’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된 국제사회에서 3대 주요 의제로 주로 거론되어 왔으며 2005년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협약 이후 각국의 주요 문화정책의 기조로 자리잡음
- 정종은·이상열(2017)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성으로 승화하는 문화정책을 위하여 ‘공존, 상생을 위한 사회적 자본 확충 및 삶의 지표 설정’, ‘문화다양성 제고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을 문화정책을 중요 미래과제로 제시

10) EFN(Eco& Future)(2018.08.31.) “공유문화, 도시와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다”

11) 김혜인·김연진(2018), 2020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pp. 212-21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 연수현(2018),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3)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2017),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pp.28

2. 문화예술 정책환경 변화

1) 정부 정책 기조 변화¹⁴⁾

□ (60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에 치중, (70년대) 문화예술 분야 법 제정 및 지원 확대

- 1960년대 지역문화정책은 국가의 근대화와 산업화가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문화행정이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의 관점에 머물러 있었음
- 당시 중앙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 사업에 예산을 집중하면서 지역과 문화예술 분야의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함
-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 이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문화수요와 욕구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중앙정부는 60년대 소극적인 문화행정에서 벗어나 문화를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우선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 그리고 민족 주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197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 1974년 문화예술진흥 5개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전통문화 보존과 관리, 문화예술 진흥 및 관련 시설 조성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짐
- 하지만 70년대 문화정책은 자주적인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국가주의에 기반을 두고 당시 정권의 문화홍보수단으로 이용되면서 한계점을 보임

□ 1980년대를 기점으로 지역의 ‘문화진흥’이 양적으로 확대되기 시작

- 문화분야가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전략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계획에 문화분야가 포함되고 문화진흥정책을 수립함. 전두환 정부 집권시기인 7년 동안 문화예산이 약 3.3배 증가했으며, 처음으로 공보분야 예산을 앞지름
- 이 시기 ‘국풍 81’ 개최,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유치로 민족문화 주체성 강조의 필요성과 문화관련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함
-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문화진흥을 목표로 삼고 정부의 통제와 규제 중심의 기존 문화정책을 탈피해 지원과 완화 정책으로 전환함

□ 1990년 문화부 신설, 1995년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따른 지역문화 진흥정책 추진

- 1990년 문화부 신설과 함께 문화복지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발전 10개년계획과 지역문화발전전략 수립, 문화분야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영역으로 인식됨
- 1993년 문민정부는 세계화의 관점에서 문화산업의 창조력을 높이고자 문화정책에 자율성과 다양성을 토대로 한 창작 환경 개선에 주력. 또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정과 문화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함. 즉 문화 복지가 정부차원에서 중요한 대국민 서비스로 인식
-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지역민의 지역문화 향유 증대와 문화분권, 문화재정 확대, 관련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기 시작
- 1997년 국민의 정부 이후 문화정보화 강화 및 평가 제도가 적극 도입되고, 문화예술분

14) 전주시(2019), 「2030 전주문화비전 수립 학술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7), 예술정책 미래비전과 전략연구,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

야의 효율성이 강화되었고 문화를 통해 중앙과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사회통합에 관심을 가짐

-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관광분야 기능이 강화되고, 영화, 음악 등 문화예술 검열제도를 완화하고 문화부분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 2000년대 들어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창작, 매개, 향유의 균형발전 추구

- 지방자치제도 도입이후 지역문화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중앙에 집중된 문화영역이 지역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함
- 이에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증가 및 ‘2001년 지역 문화의 해’가 개최되었으며, 문화예산 비중이 정부 예산에서 처음으로 1%를 달성함
- 참여정부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강화를 통해 창작, 매개, 향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현장 중심 예술행정체계와 문화분권체제 구축
- 이명박 정부는 문화비전 2008-2012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추진,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등 6개 전략 제시

□ 2010년대 박근혜 정부는 국정기조의 하나로 문화를 설정하는 등 문화의 중요성 강조

-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을 목표로 문화재정 2% 달성과 2014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
-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 문화발전과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 활성화로 문화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해 문화도시 지정 및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 지역문화재단 설립 활성화

□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 2030을 수립하고 문화분권을 9대 의제로 설정

- 문재인 정부는 ‘개인의 자율성 보장’과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문화비전의 3대 가치로 정하고 그에 따른 9대 의제를 설정하였으며, 9대 의제 중 하나로 문화분권을 포함해 문화적 재생, 문화도시 육성 등과 함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일상화 도모
- 그동안 우리나라의 지방문화정책은 각 정부마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중앙 정부 의존성에 따른 지역문화정책의 불균형과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바, 문재인 정부는 지역문화분권이라는 개념을 역대 정부 최초로 정책으로 담아냄
- 지역문화분권 개념 도입을 통해 지역에서 문화분권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대표과제로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 마련 및 계기 제공, 중앙과 지방 간 협치모델 설계 등 4개 과제 설정
- 세부적으로 지역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청년 문화 활동가, 문화 분야 인력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공간과 콘텐츠, 전문인력을 결합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을종합적으로 지원함. 쇠퇴한 공간(유희 산업시설, 점포 등)의 문화적 활용과 주민공동체 공간 조성으로 지역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위해 문화도시 육성 실시
- 삶의 질과 여가를 중시하는 현대사회에서 문화를 매개로 한 여가의 향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고 누구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함

<표 2-1> 우리나라 문화정책 흐름

시기	분야별 문화정책의 방향			지역문화 관련 주요정책
	문화기반 확충	문화복지	지역문화	
~제5공화국	문화시설 확충	-	지역문화정책의 인식 지역간·계층간 문화격차 해소 계획 수립	(1983)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 수립(1980년대 새문화정책 흡수) (1984) 지방문화진흥 5개년 계획 수립
제6공화국	국어, 도서관정책, 문화 시설 확충	문화복지의 개념 등장, 국민문화향수권 강조	문화와 지역의 연계 문화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 출 추구	(1989)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문민정부	문화시설 확충	문화복지 기본구상 수 립	문화복지정책의 심화 발전	(1996) 문화체육부 내 문화복지기획단 설치
국민의 정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유희공간 활용	창의적 문화복지국가 건설 10대과제 선정	지역문화진흥의 사회적 공 론화 및 기반구축 시작 지역균형발전과 문화정책 의 연계	(1998) 새문화관광정책 발표 (2001)지역문화의 해 지정(백가쟁명 토론회 개최)
참여정부	기존 공간 리모델링 문 화공간 확충	분배적 정의에 입각한 문화복지		(2003) 문화환경 가꾸기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2003) 문화비전 중장기계획 발표 (2004)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및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이명박 정부	근대 산업화 시대 공간 변형으로 문화공간 확 충	능동적 복지(생산적 복 지, 맞춤형 복지) 바우처제도의 활성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권 확 대 추구 장소기반형 문화정책의 추 진	(2008)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설치
박근혜 정부	생활권 중심의 복합문 화시설 유희공간 활용	국민 일반의 문화향유 권 보장(국민여가활동 보장 등)	생활문화진흥, 지역문화전 문인력 양성 문화도시 등 지역 전반의 문 화적 여건 개선 추구	(2013) 문화융성위 설치, 문화기본법 제정 (2014)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문재인 정부	중장기 문화비전 수립 (문화비전 2030-사람 이 있는 문화) 문화 관련 생활SOC 확 충	통합문화이용권 확대 추진으로 국민 문화향 유권 보장 생활권 내 문화 확산 노 력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민- 관 협력체계’ 구축 법정 ‘문화도시 지정 및 본 격 시행	(2019) 법정 문화도시 지정 (2019)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9-2023) (2019)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2019-2023)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p.45

2) 지역문화 정책의 흐름¹⁵⁾

- 국민의 정부 이후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 고조되었으며 참여정부 시절 지역문화 기반 구축 정책 추진
 - (문민정부 이전)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이전 문화정책은 6공화국 시절 문화복지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기는 했지만 주로 공보행정(국민홍보용 문화사업), 전통문화·문화유산 보전을 통한 문화적 주체성 강조가 핵심.
 - (국민의 정부) '문화입국(文化立國)'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핵심 사업으로 '2001년 지역문화의 해 사업' 추진
 -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발족, 지역문화컨설팅, 지역 특화형 문화프로그램 등 '지역문화의 해 10대 사업' 선정·추진 (특히 이른바 '백가쟁명(百家爭鳴)'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숙의민주주의 실험)
 - (참여정부) '자율, 참여, 분권'에 입각한 '국가균형발전'을 국정목표로 제시하고, 지역문화의 기반구축 중심의 정책 추진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처음 제기(통과는 무산), 문화관광부 내 지역문화과 신설,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본격 추진, 지방문화원의 거점화, 지역 문화산업 및 축제 육성 등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 함께 관련 사업인 '문화도시 조성', '생활문화진흥',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문화정책 본격 추진
 - 2015년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지역문화 정책을 계획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7년 문체부 내 국장급 독립부서(지역문화정책관실)를 신설하여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함
- 문재인 정부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핵심 가치로 설정
 -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 핵심 기조는 '지역'과 '국민의 일상'에서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임.
 - 문화분야의 국정목표는 크게 ①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생활문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 기반 구축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강화 ③ 문화 분야에 대한 자원 확대 및 매개인력 확충 추진임.
 - 문화 분야 국정과제 중 지역문화 관련 세부 과제는 총 6대 분야에 걸쳐 제시
 - ①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②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동아리 활성화, ③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 ④ 지역 간 문화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⑤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⑥ 문화 분야에 대한 자원 확대 및 매개인력 확충

<표 2-2> 문재인 정부 지역문화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분야	주요 내용
① 국민의 기초 문화생활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부터 6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180만 명)에게 연간 1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연차별 확대) • 중앙부처·지자체 정책 및 계획을 대상으로 문화영향평가 확대 실시, 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문화기본법 개정 추진
② 동네 생활문화 환경 조성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문화기반시설* 건립 지원(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 작은영화관, 실버극장 확충 및 지역 영상미디어센터를 활용 어르신 영상교육 프로그램 확대 △ 콘텐츠 누림터 신설 △ 스토리 아카이브 구축

15)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

분야	주요 내용
동아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및 좋은 이야기 기반 콘텐츠 · 관광상품 개발 지원 추진 * 박물관, 미술관 등 여타 문화기반시설 포괄(포용국가 추진계획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문화 동호회 발표 및 교류, 창작 프로젝트 운영 지원 - 예술동아리에 예술 강사 및 마스터클래스, 발표회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특화 공공도서관 육성 및 국립세종도서관을 인문.문화예술허브로 특화, 지역별 장서구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장르별 동네생활밀착 프로그램 운영 - 인력양성을 위한 '웹툰 캠퍼스' 구축, 음악 창작소 내 체험.진로탐색 공간 제공, 게임콘텐츠 리터러시 프로그램 강화
③ 국민의 문화 예술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 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창의놀이교육확대 - (아동·청소년)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18년 시범추진) - (학교) 학교 예술강사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장르 다양화 및 지역문화자원 연계 교육 강화 등 사업 다각화, 광역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역할 및 자율성 강화 국민 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길 위의 인문학', '이야기할머니', '인생나눔교실' 및 도서관.박물관 문화프로그램 확대, 전통 인문자산의 수집.연구 및 창의적 활용 지원 지역의 유희시설을 실용공예 중심의 '공예메이커 스페이스(지역공예클러스터)'로 개발 공공도서관 및 문화시설에 메이커스페이스, 디지털 미디어랩 조성 독서문화 진흥 및 출판문화 활성화 영상.미디어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속 확충 및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지원
④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 및 문화다양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문화지수를 문화균형지수로 개선하고,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프로그램 제공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생활문화센터, 문화재단 등에 배치 문화재단의 독립성, 자율성 제고 및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재단 실태조사 및 운영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문화재생 사업 지원 대상 사업 확대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 원도심 노후 시설 등 추가) 및 당인리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분야별 문화 도시 지정 확대, 문화마을(읍면동 단위) 신규 조성 추진 세종시에 추진 중인 국립박물관 단지를 '국가 상징 문화 공간'으로 조성 다양한 인디문화콘텐츠 지원 및 전통문화 진흥 지원, 교육 및 캠페인, 문화 간 소통.상호교류를 위한 사업(무지개다리 사업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및 인식 제고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프로젝트 관련, 국토부·행안부·경찰청·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추진
⑤ 문화유산 보존.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지원, 장기적으로 매장문화재 조사의 공영제 도입·운영 문화재 지진대책 추진 및 재난안전 기반 강화, 문화재 일상관리 강화를 위한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근.현대 문화유산 활용 지역역사문화재생사업 지원 및 3.1운동 100주년 계기 독립유산 등록문화재 등록 문화유산 교육 종합계획 수립.시행 무형문화재 종목 지정 및 보유자 인정확대, 종목 지원방식 개편, 전수교육 권한을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활동우수 이수자 등으로 확대 추진 검토 영산재 등 등재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 확대 무형문화재 진흥 복합단지 조성 및 활동 지원 강화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가야유적 정비.복원, 세계유산 등재 및 고도 지정 추진, '가야유적 복원·정비추진단' 구성·운영 광화문 월대 복원 및 해태상 이전, 서십자각 복원 및 동.서십자각 궁장 복원 전통문화의 원형보존 강화 및 국민적 향유 확대
⑥ 문화 분야에 대한 자원 확대 및 매개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재정 지속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 사각지대 해소,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 생활문화 시대의 정착, 전통 무형문화 진흥 등을 위해 문화 분야 투자자원 대폭 확충 양질의 문화매개인력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문교육, 문화프로그램 기획, 생활문화 동호회 축진을 통한 일상 문화활동 전문 인력 확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p.46-47

3) 법·제도 및 계획 여건¹⁶⁾

□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비롯해 지역문화 정책과 관련된 대표 법령 시행 중

- 지역문화 정책과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대표 법령은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지역문화진흥법」이 있음.
- 이외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도서관법이나 콘텐츠산업 진흥 관련 법령 또한 지역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침

<표 2-3> 지역문화정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비교

구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연도	• 2013.12.30.	• 2014.1.28.	• 1972.8.14.	• 2005.12.29.
제정목적	•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지자체의 책임, 문화정책의 방향을 규정 • 문화의 가치와 위상제고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국가발전 도모	• 지역문화진흥사항 규정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고유문화 발전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국가 실현 도모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	•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사항 규정
용어정의	• 문화 • 문화권 • 국가와 지자체 책무	• 지역문화, 생활문화 • 생활문화시설 • 문화도시, 문화지구	•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 문화이용권 • 문화시설의 종류	•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 교육시설 • 문화예술 교육단체 및 교육사
기본개념	• 문화의 다양성·자율성·창조성 • 문화의 가치 확산 • 문화표현 및 활동의 차별 금지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삶의 질 추구 • 고유문화 보전, 생활문화 활성화	• 문화예술진흥 시책 강구 • 문화예술활동 권장, 보호, 육성	•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 • 문화예술의 학습교육권 차별금지 및 보장
포괄분야	• 문화유산·전통문화 •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자원, 문화복지, 여가문화, 문화경관, 지역문화활성화 등	•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 • 문화도시·문화지구 지정지원 • 지역문화진흥기금 등	• 문화예술공간 설치 • 문화예술복지 증진 • 문화예술위원회 등 • 문화예술진흥기금	•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주요계획 및 규정	• 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 문화강좌 설치기관 • 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 •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종합계획
인력양성	• 문화인력의 양성기반 조성 • 문화가치 확산과 진흥교육 실시	• 지역문화 전문인력	• 문화시설의 전문운영인력 양성 • 전문 예술법인 단체 지원 및 육성	• 문화예술교육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p.48

□ 관련 법에 의거해 각 지자체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

-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조례(포괄적 지원 근거) 제정 현황을 보면, 17개 특별·광역시자치단체 전체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39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됨.
-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하여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사항을 반영한 지자체는 기초 45개임.

16)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

- 문화예술진흥과는 별도로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조례를 별도 제정한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22개 기초자치단체인 것으로 나타남.

<표 2-4>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현황 (2019.10월 기준)

시도명	조례 유무	문화예술진흥 관련 조례제정 현황 (<u>진한 글씨</u> 의 지자체는 문화예술진흥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문화진흥법」내용 반영)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조례 별도 제정 현황
서울특별시	○	(총 25개 중 13개) 강동구, 관악구, <u>광진구</u> ,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중랑구, 종로구(전통문화예술), <u>마포구</u> , 서대문구, <u>서초구</u>	
부산광역시	●	(총 16개 중 8개) <u>기장군</u> , 동래구, 북구, 사상구, 수영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북구, 사상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	(총 8개 중 8개)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
인천광역시	○	(총 10개 중 7개) 동구, <u>미추홀구</u> ,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동구, 부평구, 연수구
광주광역시	○	(총 5개 중 5개) 북구, 동구, 서구, 남구, <u>광산군</u>	
대전광역시	○	(총 5개 중 2개) 유성구, <u>대덕군</u>	
울산광역시	○	(총 5개 중 3개) 중구, <u>남구</u> , <u>북구</u>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자치단체 없음)	
경기도	○	(총 31개 중 21개) 가평군, <u>고양시</u> ,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u>김포시</u> ,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u>안산시</u> , 안성시, 안양시, 양평군, 여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여주군	광명시, 오산시
강원도	●	(총 18개 중 9개) 강릉시, 동해시, 양구군, 양양군**, 철원군, <u>춘천시</u> , 태백시, 화천군, 횡성군	동해시(지역문화진흥기금)
충청북도	○	(총 11개 중 4개) <u>보은군</u> , 제천시, 증평군, 충주시	충주시
충청남도	○	(총 15개 중 6개) <u>금산군</u> , <u>논산시</u> , 보령시, 천안시, 태안군, <u>당진시</u>	
전라북도	●	(총 14개 중 8개) 군산시, <u>김제시</u> , 부안군, <u>익산시</u> , <u>임실군</u> , <u>장수군</u> , <u>전주시</u> , <u>진안군</u>	남원시, 부안군(지역문화진흥기금), 순창군, 완주군
전라남도	○	(총 22개 중 18개) 강진군, <u>고흥군</u> , <u>곡성군</u> , 광양시, 나주시, 목포시, 무안군, <u>보성군</u> , <u>순천시</u> , <u>신안군</u> , 여주시, 영광군, <u>영암군</u> , <u>장성군</u> , <u>장흥군</u> , <u>진도군</u> , <u>함평군</u> , 해남군*	화순군
경상북도	●	(총 23개 중 15개) <u>경산시</u> , <u>경주시</u> , <u>고령군</u> , <u>구미시</u> , 군위군, <u>김천시</u> , <u>문경시</u> , <u>상주시</u> , 성주군, <u>영주시</u> , <u>영천시</u> , <u>울진군</u> , <u>청도군</u> , <u>칠곡군</u> , 포항시	영덕군
경상남도	●	(총 18개 중 12개) <u>거제시</u> , 남해군, 산청군, 양산시, <u>의령군</u> , 진주시, <u>창녕군</u> , <u>창원시</u> , <u>하동군</u> , 함안군, 함양군, <u>합천군</u>	거창군, 사천시, 양산시(지역문화진흥기금), 함안군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시임)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 ● : 문화예술진흥조례 외 별도의 지역문화진흥조례를 제정한 광역자치단체

○ 생활문화지원(혹은 센터 설치)과 관련된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0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

- 문화도시조성 관련 조례 제정 지자체는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21개

<표 2-5> 생활문화지원 및 문화도시 조성 관련 조례제정 현황

시도명	생활문화지원 관련 별도 조례제정 현황	문화도시조성 관련 별도 조례제정현황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악구, 노원구	양천구, 영등포구
부산광역시	-	영도구
대구광역시	-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북구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중구	-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자치단체 없음)	
경기도	군포시, 부천시, 수원시, 화성시	광명시, 남양주시, 부천시, 성남시, 시흥시, 오산시
강원도	영월군	강릉시
충청북도	괴산군	청주시
충청남도	-	공주시, 보령시, 부여군, 천안시, 홍성군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군, 정읍시	-
전라남도	광양시, 화순군	나주시
경상북도	군위군, 성주군, 포항시	포항시
경상남도	남해군	김해시, 진주시, 통영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시임)	

*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 중앙정부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부문별 정책계획 수립 및 추진 중

○ 2018년 5월 발표된 중장기 문화계획「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는 비록 비법정 계획이긴 하나, 향후 20년간 대한민국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토대가 되는 계획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법률에 근거하여 법정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들 계획에서 제시된 정책과제 중 상당수가 지역문화정책과 연계되어 있음.

- 새예술정책 (2018-2022)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¹⁷⁾
-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기본계획 (근거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7조)
- 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2018-2022) (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1항)
-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근거 : 「도서관법」 제14조)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 (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9조)

17) 법률에 정기적 계획수립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문화예술 진흥 관련 시책 강구 조항이 있음(「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

<표 2-6>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정·비법정계획 내 지역문화정책 관련 내용

계획명	법적 근거	지역문화정책 관련 내용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2018~2030)	비법정계획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조성	• 지역문화진흥 재원의 지속적 확충
			• 포괄적 보조사업 확대
			• 지역 주민 참여문화 예산제도 지원
			• 지역문화 정책기반으로서 문화정책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활성화
			•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새로운 지수 개발
			• 생활문화를 일상 속에서 누리는 여가가 있는 삶의 방향 정립·지원 다각화
			•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적 삶이 가능한 지역 만들기
			•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과 활동 지원
			• 읍면동에 청년 중심의 '문화일꾼' 배치 추진
			• 지역문화기관/기구, 시설/공간, 문화현장의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정보 플랫폼 구축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원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조성사업 본격 추진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 확산
			•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
			• 콘텐츠산업에서 협치에 필요한 중앙과 지역, 지역 간, 지역 내 협력 체계 구축
			•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
			• 지역 전통문화 연구와 활용 활성화
			•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학 육성
			• 책으로 소통하는 생활(마을)공동체 구현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 혁신 및 지원체계 마련	• 생활권에 기반한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확대
			• 문화기반시설 운영 혁신
			•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전문성·독립성·자율성 강화
			• 지역문화재단 총액예산지원 제도화 추진
		문화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문화기관의 특성을 인정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
			• 중앙, 광역, 기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 지역문화, 예술분야 협력체계 구축
새예술정책 (2018-2022)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역예술지원기관 확대 네트워크 구축	• 예술위 중심 예술지원 관계기관간 협의체 구성
			• 예술위 소위원회 지역분과 및 예술위-지역문화재단 운영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

계획명	법적 근거	지역문화정책 관련 내용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 협업 관점에서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 광역센터 역할 강화 및 기초단위 추진체계 구축
		예술인 복지정책 지역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칭) 예술인복지 지역협력위 구성 • 지역문화재단 내 예술인복지 전담인력 배치
		지역 문화예술공간의 다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예회관 공간 다양화(다양한 범주의 공간 개념 도입, 리모델링 지원 등) • 전통예술창작 거점 공간 조성 • 문학집필공간 운영 • 도시재생 지역에 메이커스페이스 조성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예술 창작 거점 공간 조성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기 본계획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7조	일상의 여가공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밀착형 지역 여가공간 확대 • 국·공유지를 활용한 여가접근성 확대 • 한국형 살기 좋은 도시로서 '여가친화도시' 구축 지원 • 여가공간 관리체계 구축(최소기준 설정, 통합 DB 구축)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202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6조 제1항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센터의 지역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으로 역할 강화 • 문화예술교육 관련 예산 통합지원 및 성과관리 체계 구축(광역센터 자율성 강화) • 지자체 대상 문화예술교육사업의 통합 개편 • 사회 문화예술교육 사업의 단계적 지역이관
		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추진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중심의 기초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지역문화예술교육공간 및 자원과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꿈꾸는 예술터) 유휴공간 활용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 조성 및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운영 • 파출소 유휴공간의 문화예술교육공간화(문화파출소) • 문화예술교육 공유공간 개발
		중앙과 지역간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광역) 중앙부처와 지자체(광역센터) 간 정례회의 신설 • (중앙 전담기관-광역센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광역센터간 협력 강화
		문화정책 내 연계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정책-지역문화-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관련 부서 간 협력 강화 •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예회관연합회, 한국문화의 집 연합회, 박물관 및 미술관 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계획명	법적 근거	지역문화정책 관련 내용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도서관법」제14조	지역대표도서관의 역할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대표도서관 역할 정립 지역도서관 통합관리체계 구축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에 대한 지식공유체계 구축
		지역 자료의 납본·보존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자료 납본 수집력 강화 장서 보존 기능의 효율적 개선
		공동체 자료의 아카이빙 및 활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의 삶의 기억 수집·보존·관리 체계 구축 지원 지역 향토자료를 보관하는 기관(사람)과 협력 및 기능적 지원 강화
		공공도서관 지역공동체에서의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 네트워크 활성화(마을 소모임 활동 및 마을상담, 컨설팅 지원 등) 지역 생활문화모임 활성화 (공동체 활동공간 확대)
		도서관 아웃리치의 지속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강화 농산어촌 공공시설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우편배달 서비스 확대
		도서관계 대내외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중앙도서관과 지역대표도서관을 연결하는 국가적 협력체계 구축 지역대표도서관 중심 지역 내 도서관 협력체계 구축
		도서관 시설·장서 지속적 확충 및 리모델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도서관 지속 확대(공공도서관 수 '17년 1,042개관 → '23년 1,468개관) 도서관 장서 확충(국민 1인당 장서 수, '17년 2.03권→ '23년 2.5권)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 (2019-2023)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9조	'지역문화거점'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능 강화(진흥계획수립·조례 정비, 사전평가 및 평가인증 인센티브 부여, 전문관장 채용권고 등 전문성 향상 등) 지역고유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화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확충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개관 당 인구수 4.5만명('19년)→3.9만명('23년) 목표로 박물관·미술관 확충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 기반 확대 박물관·미술관 지역별 현황,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 분석을 통해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지역별 배치기준 마련
		문화향유 소외 지역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소외지역 대상 '찾아가는 박물관', '작은 미술관 조성지원' 사업 지속
		박물관·미술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박물관의 날(5.18.) 계기 '박물관·미술관 주간'(5월중) 전국 확대 추진

계획명	법적 근거	지역문화정책 관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축제, 지역문화시설, 학교, 문화관광 기구·단체 등과의 협력으로 지역문화향유 및 관광의 구심점 역할 수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p.51~54

①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¹⁸⁾

□ 지역문화 진흥의 방향성과 주요 부문을 규정하기 위한 기본계획

-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2014년 1월 28일 제정되었음.
- 이 법률에 의거, 5년 단위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이 2019년 만료됨에 따라 정부(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2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함

[참고]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지역문화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방향제시자로서 역할 수행
- 본 계획의 성격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전략·정책계획’, 현 시기 거시환경 및 지역문화 정책 여건을 반영한 ‘실증 기반 계획’, 정부-지자체, 공공-민간이 참여하는 ‘소통·협력계획’의 성격을 가짐.
- 국정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 2018년 발표된 「문화비전 2030」의 비전과 주요 정책 방향을 적극적으로 견지하고,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될 예정인 문화·예술분야의 중장기 계획(법정·비법정)을 수용하여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함.

□ 기본계획의 핵심 방향은 문화자치 및 문화분권 실현, 문화적 균형발전 추구

- 민주주의의 성숙과 맞물려,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분권·자치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증가되고 있음. ‘자치’와 ‘분권’의 시대적 가치와 요구에 문화와 예술 또한 예외는 아니며, 그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함.

* 정치이념, 관료적 규격, 위계성에 ‘문화’를 가두어 두면 ‘문화’는 생명력을 잃거나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

18) 문화체육관광부(2019),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연구」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함

- 하지만 자치와 분권은 역설적으로 지역 간 경쟁 유발, 지역 간 불균형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급속히 쇠퇴하는 지역의 경우 직접적·적극적 지원을 통해 자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앞서 발표된 ‘문화비전 2030’의 기초를 따라 지역문화 근간을 ‘사람이 있는 문화’로 규정

- ’18년 발표된 「문화비전 2030 - 사람이 있는 문화」에서는 ‘문화’가 사람의 존재 이유를 묻고 답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며, ‘사람의 생명과 안전 중시’, ‘삶의 자유와 행복 추구’, ‘다양한 감성과 가치 존중’, ‘내재적 힘과 역량 강화’의 원천임을 천명하고 있음.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문화비전’의 가치인 ‘사람이 있는 문화’를 계승하고, 지위·지역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자율적으로 문화활동을 경험하는 한편, 정책 결정 및 추진에 참여하는 ‘포용적 지역문화정책’을 지향함

□ 다양한 지역 문제와 갈등을 ‘문화적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혁신적 지역발전 추구

-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 및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변화, 도시환경의 노후화와 쇠퇴, 경제·산업 기능유출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지역은 사회·공간적 위기에 직면해 있음.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혁신과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자산과 혁신의 결합이 필수적이며, 이들은 모두 지역의 ‘문화’ 역량에서 비롯된다 할 수 있음.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을 발굴·보존·활용하고, 창의적·혁신적 환경조성 및 인력양성에 계획의 주안점을 둬으로써,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는데 기여 하도록 함

② 제2차 경기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¹⁹⁾

□ 지역문화진흥법과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 의거 경기도 시행계획 수립

-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 도민의 문화권 보장, 지역 간의 문화격차 해소, 지역별 특색 있는 고유 문화의 발전,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경기도 문화 진흥정책 수립
- 경기도 지역문화 여건변화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부합하는 향후 5년간 (2020-2024)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목표와 비전, 정책과제 제시
- 문화예술분야 학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진을 구성, 경기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발굴
- 의견수렴을 토대로 민선7기 경기도 주요 공약사업과 핵심과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 단기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신규과제와 연계하여 2020~2024 중점추진방향과 핵심과제 도출

□ 도민의 문화를 통한 행복 추구를 위해 핵심 키워드로 ‘자치’, ‘공정’, ‘향유’ 설정

- “도민이 있는 문화,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의 비전 하에 도민이 참여하고, 정당한 보

19) 경기도(2020), 「도민이 있는 문화,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 -제2차 경기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함

- 상이 있는 문화, 누구나 누리는 문화를 중심으로 전략 및 핵심과제 6대 15개 과제 도출
- 과제 1. 누구나 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는 환경 조성을 통해 도민이 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제시함. 특히 문화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의 과제를 함께 제시함
 - 과제 2.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예술인 지원(문화예술 창작지원은 물론 매개 인력으로서의 전문인력의 육성 포함)과 소외받는 사람 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제시함.
 - 과제 3.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기반 확충을 목표로 지역 재생 활력, 생활문화 시설 및 확충 과제 제시. 정부의 생활 SOC 확대 정책을 수렴하여, 지역 내에서 필요한 문화기반시설의 내실화와 맞춤형 서비스 강화 과제 제시
 - 과제 4. 도내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통한 지역의 위상과 정체성을 구축에 문화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특히 문화유산의 올바른 가치 확산을 통한 역사 인식 확립을 통하여 지역민의 지역 정체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 과제 5. 지역 특화 콘텐츠 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문화와 관광의 융합적 시너지 기대. 경기도 역사 문화 생태 관광코스 개발 및 생태 관광 거점 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의 기대 효과 달성 목표 제시
 - 과제 6.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뉴노멀의 도래를 준비하는 지역문화 예술 환경 조성을 과제로 제시함.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도내 문화예술관광 분야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분야가 나아가야 할 패러다임 제시

3.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환경변화²⁰⁾

1) 정치·국제관계 변화

□ 정치/국제관계적 측면에서 코로나19는 각국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한 실험대가 됨

-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소위 선진국(advanced country)들이 코로나19 대응에 크게 실패하면서 선진국 신화가 붕괴되었고 글로벌 리더십의 실종이 나타남
- 한편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공공의료체계와 공공부문의 위기대응시스템의 중요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고, 대형재난위기 대응력이 국가의 역량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기존의 선진국 대신 위기대응력과 사회안전망 등을 통해 국제사회를 주도하는 국가를 뜻하는 선도국(leading country)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음
- 또한 기아, 질병, 억압과 같은 만성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은 물론 일상생활의 붕괴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는 ‘인간안보(human safety)’의 이슈가 등장함

□ 코로나19 확산이 해외 유입을 통해 가속화되면서 국제적 상호의존성은 심화됨

- 동시에 국경폐쇄 등과 같은 자국우선주의(Nation First)가 나타나기도 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와 확진자 동선에 대한 공적 정보제공으로 인해 사생활에 대한 과도한 노출과 정부의 개입을 둘러싸고 새로운 통제사회, 스마트국가의 출현이 예고됨
- 한편 세계적으로 대규모의 긴급지원패키지가 이루어지면서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국민 모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음
- 이는 기존의 재정·금융정책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경기하강을 막기에 역부족인데다,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만큼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개인의 생계와 시장의 소비여력을 유지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국가 간 상호협력을 기초로 하는 국제문화교류 위축이 지속됨

- 코로나 19로 인한 각국의 락다운(lock-down)으로 인하여 국가간 상호 협력을 기초로 활발히 진행되는 국제문화교류 부분의 위축이 지속됨
-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를 중심으로 문화예술분야 다양한 장르 혹은 영역별 인적·물적 교류의 기회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계획된 사업의 형태를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수 발생
- 지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의 해외 수출의 판로를 직접 개척하고 다양한 네트워크 확장을 통하여 해외 시장 진출이 가능했던 바, 관련한 영역의 활동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
- 국가 간 거리두기(International distancing) 요구로 인해 문화예술분야에도 그동안 구축해온 글로벌 공급망, 또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문화예술의 창작·기획-유통-소비·향유, 교육이 재구성될 것으로 전망됨

20) 양혜원 외(2021), 「코로나 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9~34
내용을 요약 정리함

2) 경제 환경변화

□ 코로나19로 생산활동 및 소비활동이 중단되면서 세계적 경제위기를 가져옴

- 기업 차원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함께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현상 나타남
- 세계경제의 불황은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으며, 임시직 노동자(Gig Worker)와 플랫폼 노동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고용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되면서 기존의 부의 불평등의 심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비대면 경제(un-tact economy)가 급격히 부상함

- 언택트는 부정 접두사인 un과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사람들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됨에 따라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금융 등 비대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
- 외출을 피하고 실내에서 각종 경제활동을 하는 홈코노미(Home+Economy)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음
- 특히 이러한 언택트 산업의 확산은 디지털 경제와 결합하여 진행되면서 4차 산업혁명 담론에서 이야기되어왔던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다양한 상상들이 현실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고 있음

3) 사회 및 생활 환경 변화

□ 일상 공간인 직장 및 학교 공간에서 비대면을 전제로 한 환경변화 확대 양상이 나타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와 재택근무, 유연근무제를 권고하는 회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기존 오피스 공간 및 직장문화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로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연기 및 학년별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 대학 온라인 강의가 전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원격교육이 본격화됨
- 또한 온오프라인 교육이 혼합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나 온라인 선행학습 이후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벌이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한편 교사의 역할 또한 이에 맞추어 학생의 성장과 진로를 돕는 가이드스(guidance)의 역할과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카운슬러(counselor)의 기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집에서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홈 루덴스(Home Ludens) 문화가 확산됨

- 홈 루덴스는 호모루덴스(Homo Ludens, 놀이하는 인간)에서 파생된 조어로 멀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주로 집에서 놀고 즐기는 이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임
- 홈 루덴스문화의 확산으로 집에서 많은 부분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이러한 생활 변화는 음식, 숙박업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전반의 변화를 예고함
- 비대면 경제의 부상이라는 빛 너머에 저소득계층과 고령층 등 소외계층의 디지털격차(digital divide) 심화라는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지고 있음에 대한 경계도 함께 제기되고 있음

□ 사회 및 생활 전반에 ‘코로나블루(Corona blue)’라는 심리적 우울감이 증폭됨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언제 감염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사회적 고립과 야외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외로움과 무기력감, 경제적 불황과 고용불안으로 인한 긴장과 불안, 분노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60%, 보호자의 83%는 불안과 걱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청소년의 경우 28%는 분노를 경험했다고 응답함
- 특히 코로나19로 힘들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청소년의 경우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는 것(72%)’으로 나타남
- 이외에도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양인에 대한 공격이나, 이태원 클럽 확진자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표출에서 볼 수 있듯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다양한 계층간 갈등의 증폭이 예측되기도 함

4) 기술 환경변화

□ 기존 4차 산업혁명 논의와 기술력의 현실 적응에 있어 빠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

-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는 미래에 혼란과 기회를 가져올 10대 전략기술로 초자동화, 다중경험, 기술의 민주화, 인간능력증강, 투명성과 추적성, 에지컴퓨팅, 분산 클라우드, 자율적인 기기, 실용적 블록체인, 인공지능보안 등을 들고 있음²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유망기술로 실감형 교육을 위한 가상·혼합현실 기술, 온라인수업을 위한 대용량 통신기술, 감염의심자 이송용 자율주행차, 유통물류센터 스마트화, 배송로봇, 디지털트윈, 인간증강기술, 인수공통감염병 통합관리, 실감 중계서비스, 화상회의 보안성 확보 등을 제시함²²⁾

□ 문화예술과 첨단기술과의 결합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고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 전세계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용량이 늘어나고 서버 과부하가 일어나면서 5세대(5G)네트워크에 기반한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음
- 비대면 콘텐츠가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MR(Mixed Reality)와 같은 실감·체감 기술에 대한 수요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5) 생태 환경변화

□ 코로나19는 무차별적 개발과 환경·자원 착취를 통해 성장해온 인류에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음

- 인간의 생활이 더욱 편지해지는 동안 동식물은 계속 멸종하여 생물다양성에 위기가 왔

21) 박영숙·제롬 글렌(2020),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교보문고.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0),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준비하는 유망기술은? 29일 온라인 포럼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0.4.28.).

고, 탄소배출로 지구의 온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0.75℃ 상승했으며 많은 과학자들이 지구의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2℃ 이상 상승하면 지구는 회복할 수 없는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대응으로 ‘멈춤의 시간’을 보내면서 대기가 깨끗해지고, 오염된 호수와 바다를 떠났던 동물들이 다시 돌아오는 등 환경생태계가 되살아나는 ‘코로나의 역설’이 연출되면서 제레미 리프킨이 이야기한 생태계와의 공감대 확보, 자연과 동식물과의 교감, 생물권의 인정 등과 같은 공감문명(empathic civilization)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됨

□ 그간의 삶의 방식, 경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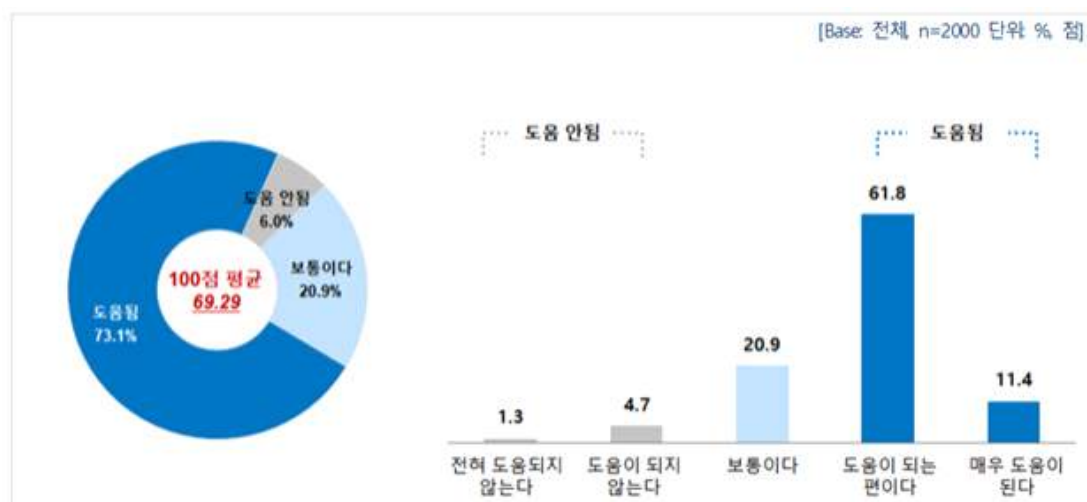
- 마이크로소프트, GM 등의 기업들도 탄소제로, 폐기물 제로와 같이 제로로 가는 혁신에 제품과 기술의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기구 및 국가들의 노력들도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지구온난화, 삼림벌채나 오염, 남획 등의 저지는 기술적인 솔루션이나 제도적인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인식과 삶의 방식의 변화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생태환경 이슈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의 수요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

6) 문화예술 분야 변화

① 문화예술의 가치변화

□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확대, 예술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

- 코로나19의 유행은 이전부터 지속되어왔던 문화예술의 효과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를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국제적 차원에서 예술을 통한 회복탄력 운동 ‘리질리아트’ (ResiliArt Debate, 20.4.15.)를 제창한 이후 주요 화두로 떠올랐음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문화예술관광콘텐츠 분야 정책성과와 전망에 관한 설문조사」
 [그림 2-1] 문화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 증가와 같은 정신적 피해 해소 도움 여부

- 문화예술이 개인의 심리적 회복탄력성, 공동체 회복탄력성을 형성하고 구축한다는 점은 문화예술의 본질로서 널리 동의되고 있는 개념이며,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장소성을 형성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은 모든 영역의 회복탄력성을 위한 핵심임²³⁾



[그림 2-2] 코로나19 유행 이후 문화예술 분야 환경변화

□ 문화예술이 가진 ‘사회의 회복탄력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실정

- 비대면(언택트)의 지속은 그 어느 때보다 연결에 대한 욕구를 축적시켰고 이것이 ‘나’와 ‘나의 공동체’와의 온택트 또는 딥택트의 형태로 발현되며 연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이노션 월드와이드는 내부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을 통해 ‘바이러스 트렌드’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거리두기를 통해 사람들 물리적 거리는 유지하되, 개인

23) 양혜원, 김면, 차민경 외(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p.55.

일상의 삶을 영위하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연결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뉴노멀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함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전 국민 811명(청소년 340, 성인 471명)을 대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이라는 질문에 주관식 응답을 하도록 하고 응답결과에서 단어를 추출하여 빈출을 분석하였음, 그 결과 공동체, 소통, 배려, 신뢰, 관계, 존중 등의 관계를 기반으로 한 단어들이 추출되었음
-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소통단절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우울감과 무기력증은 심리적 방벽의 필요성을 야기하는 가운데 치유와 힐링의 매개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함

□ 문화예술에 더 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질적인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 지남

- Joshua Guetzkow(2002)의 모델은 문화예술의 효과(Impact)에 대해 탐구하는 다수의 연구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문화예술로 촉발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연구하기 위해 기존의 실증적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인과 사회에 대한 예술의 가치에 대한 매트릭스로 표현함
- 문화예술에 더 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질적인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았으며, 단순히 감흥이 아닌 개인적 정서와 행동양식에 대한 영향, 인지 및 소통능력, 그것들이 축적되어 이루는 사회의 사회적 자본의 형성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음

<표 2-7> Mechanisms of Arts Impact

가치	구분	직접참여	관객참여	예술가, 예술단체 및 기관의 존재
개인 가치	신체적 건강가치	-건강을 증진시키는 대인관계 구축 및 자원봉사 촉진 -자기 표현과 향유기회 증가 -청소년 범죄 감소	- 향유기회 증가 - 스트레스 감소	예술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의 기회 및 성향 증가
	인지적 심리적 가치	-개인의 효능감과 자아존중감 증가 -지역사회에 대한 개인의 소속감 증가 -인적자본_기술과 창조력 향상	- 문화자본 증가 - 시공간 추리력 향상(모차르트 가치) - 학업성적 향상	
	대인관계 가치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타인과 소통능력 향상	-타인에 대한 포용력 증가	
사회 가치	경제적 가치	-종업원을 참여시키는 임금	-관광객, 방문객 예술관람과 지역기업에 비용지출 -예술시설이나 기업이 지역에 지출함으로써 배가가치를 냄	-지역구성원의 예술참여 성향 증가 -관광객 기업, 사람들(특히 고숙련 노동자)과 투자자 지역 매력도 증가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는 창조적 환경 조성 -경제 부흥의 가능성 높아짐
	문화적 가치	-집단적 정체성과 효능감 증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자부심 형성 -다양성, 관용, 자유로운 표현과 같은 긍정적인 공동체 규범 확산	-지역사회의 이미지와 위상 제고
	사회적 가치	-사람들을 참여시키거나, 단체들을 서로 연계시키거나, 참여자들에게 지역정부 및 비영리 기관을 조직하거나 협력하는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자본 형성	-이 기회가 아니면 몰랐을 사람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게 됨	-이웃의 문화적 다양성 제고 -이웃의 범죄 및 비행 감소

자료: Joshua Guetzkow(2002), 「How the arts impact communities」, Centre for Arts and Cultural Policy Studies.의 표 재구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p.57 및 문광연(2012) 재인용, 재작성)



출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가장 소중한 가치」

자료: 이노션월드와이드(2020), '이노션 트렌드 리포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 '포스트 코로나 가장 소중한 가치'

[그림 2-3] 코로나19 발생으로 주목받는 주요 키워드(좌) 및 가치(우)

□ 예술은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에는 창조적 원동력과 집단정서 정화 효과 제공

- 2018년 미국 예술시민단체인 American for the Art(AFRA)는 「예술을 지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예술이 사회와 개인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함²⁴⁾
- 이 역시 개인의 정서적 치료와 인지능력, 생활여건 개선, 지역사회 및 산업에 예술이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음

[사례] 이탈리아 베란다 음악회

- 로마의 한 악단은 페이스북을 통해 플래시몹을 예고하며, '악보를 볼 줄 아는지, 악기를 연주할 수 있거나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시민들에게 창문을 열어 무엇으로든 '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함
- 전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극심한 코로나19 피해를 겪으며 전국에 이동금지령이 내려진 이탈리아에서 주민들이 창밖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합창을 하는 모습은, 코로나 시대 전 세계인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담 사례로 회자되었음
- 국내에서도 주민의 마음방역과 힐링을 위해 이를 벤치마킹한 기획을 실시하기도 하였음



□ 비대면 향유 및 교감 방법에 대한 고민할 때이며, 지역 및 자치 측면의 접근 필요

- 팬데믹 시대에 개인과 사회를 치유하는 역할로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하였

24) 최미애(2019),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자원 활용방안 연구」, p.50. 재인용(국외훈련보고서)

고 비대면 상황에서도 예술을 향유하고 이웃과 교감할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기간이 늘어나면서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접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지역예술단체 및 재단 등 매개기관에서도 온라인행사나 자동차극장, 배란다 음악회 등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음

② 문화예술 시장의 위축

<표 2-8> 코로나19 이후 문화예술 생태계 주요 변화

창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 이벤트 중단 예술인+단체의 생존 위기, 창작·발표 등 예술활동 위축 심각
향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프라인 소비 중단, 온라인 플랫폼 활용 스트리밍 증가 온라인 소비 시의 사각지대(접근/생산 취약계층, 브랜드 예술에 편중된 소비, 진정성과 아우라)
매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활동가, 기획자 활동 기회 차단, 예술강사 활동 위축 심각 문화공간/연습공간/실연무대의 재정위기와 폐관
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의 위축과 경기의 침체 온택트 시장이 확대되었으나, 예술 수익은 제로 문화소비 심리는 위축되었으나, 수요와 욕망은 오프라인 문화비로 연계됨

자료 : 임학순(2020),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뉴딜 정책토론회」(2020.06.29.) 발제문 참고 재작성

□ 코로나19의 장기적 대유행으로 문화예술생태계 위기 지속

-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 이후, 일상의 모든 방식과 형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직접적 대면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창작, 제작, 유통, 소비, 향유 등 가치사슬 전반에 큰 영향을 줌
- 전국 광역·지역 107개 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분야로 ‘행사·축제 등 문화사업(95.6%)’, ‘문화예술시설운영(68.9%)’ 집계²⁵⁾

□ 국·공립 및 민간 예술시설의 운영일수 및 방문객/참여자 수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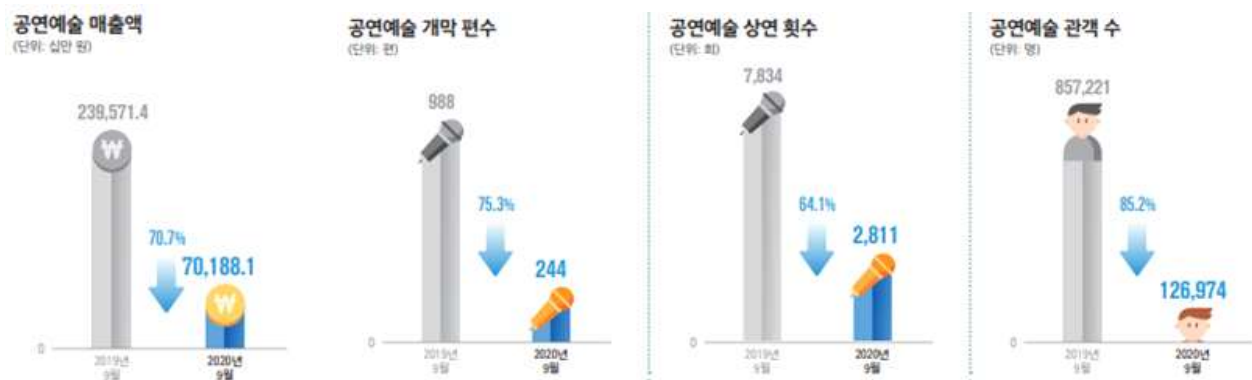
- 2020년 2월 25일 전염병 위기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 이해, 문체부 소속 국립문화예술시설 및 국립공연기관, 궁궐·왕릉 등 문화재청 산하 사적은 코로나19의 전개국면에 따라 휴관 및 재개관을 반복하였으며, 각 지자체의 요청 또는 자체적 결정에 따라 공공문화시설의 휴관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²⁶⁾
- 이에 따라 민간 체육시설,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보급시설의 혼란과 합

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내부자료,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가져온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에 대한 문화재단 설문조사」, 유효표본: 45개, 기간: '20.9~10.

26) 2020년 2/25~3/22, (심각 격상) 1~2차 휴관 5개 국립공연기관과 문체부 소속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휴관
 2020년 5/6 국립공연기관 및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재개관
 2020년 5/30~, 수도권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궁궐, 왕릉 등 문체부·문화재청 산하 20여개 기관·사적 휴관
 2020년 6/12~기한 두지 않고 계속 휴관 결정(수도권 박물관·미술관·도서관 10곳, 공연장 4곳 휴관, 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 중단)
 2020년 8/23~, (전국 사회두기 2단계) 수도권 이어 지방소재 국립문화예술 시설 모두 휴관 (지자체 요청으로 이미 휴관한 기관도 있음)
 2020년 9/28~ 국립문화예술시설 34개 재개관 (거리두기 수칙 적용, 수용가능인원의 최대 30%로 제한(전시시설), 관객 최대 50%(공연시설))
 2020년 12/8~ 서울 소재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9곳과 공연장 8곳 등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7개 국립예술단체의 서울 공연을 중단

게 수익성 보장이 어려워지면서 매출액 및 고용 피해, 휴·폐업에 이르며, 2020년 절대적인 운영일수 및 방문객 수치 감소가 예견되는 상황임

-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피해추정 자료에 따르면 20년 1월부터 8월까지 공연예술계 1967억원, 시각예술분야 678억원의 매출액 피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였고, 취소된 공연은 9683건, 전시는 1553건으로 집계됨. 같은 기간 고용감소로 747억원 일자리가 축소되었고, 예술인실태조사 모집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프리랜서 예술인 고용피해는 1260억원으로 추정됨²⁷⁾
- 5월에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실시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보고서(공연예술실태조사 모집단 5333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운영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기관이 82.4%, 상반기에 준비된 공연 2만5167개 중 '잠정 취소' (1만3458개, 53.5%), '일정연기' (8,500개, 33.8%), '상연 중단' (6,640개, 25.7%)로 집계됨²⁸⁾
- 특히 대면을 전제로 하는 공연예술 분야는 하반기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거나 연기된 공연행사는 2020년 9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공연예술매출액 70.7% 감소, 개막편수 75.3% 감소, 상연횟수 64.1% 감소, 관객수 85.2% 감소 등 매우 큰 피해가 추정됨²⁹⁾



자료 : 관광지식정보시스템, 공연예술통합전산망(문공연, 2020 월간 문화체육관광 경제지표-11월호에서 재인용)

[그림 2-4] 2020년 9월 공연예술분야 현황

- 지난 2월 심각단계 격상으로 문체부 소속 문화예술기관이 1차로 휴관한 후, 한국박물관 협회가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2월 한 달간의 피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122개 전시시설 중 30% 이상이 2월에 문을 열었음에도 예상 소득 손실은 13.9억 이상으로 추정되었고 소규모 사립시설의 경우 시설과 인력을 유지하기 어려워 재택근무, 월급삭감 및 무급휴가로 전환되어 국공립 기관에 비해 취약한 구조 보임

③ 문화예술 향유·소비 구조 및 방식 변화

□ 새로운 장르로서 온라인·비대면 콘텐츠 인식, 시공간 제약이 해제되는 다양한 경험 축적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공연과 콘서트, 프로스포츠 경기 등이 무관중 온라인 중계로 이루어지고, 나만의

27) 뉴데일리(2020.10.07.), '코로나 폭탄'에 매출 급감·공연·미술계 2646억 피해'

28) 예술경영지원센터(2020.5.),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 보고서」

29)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월간 문화체육관광경제지표-11월호」, '20.12월 발간.

안전한 공간에서 영화감상, 공연 관람, 운동, 요리 등 취미를 즐기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음

- 온라인 교육의 확대로 현재 예술대학의 커리큘럼이나 도제식 교육을 주요한 특징으로 하는 현재 예술대학 교수-학생 간의 관계에도 일정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짐
- 2016년에 영국 예술위원회는 ‘공연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관객과 제작, 유통에 미치는 영향’을 전국적으로 조사했는데, 온라인 공연 관객들은 실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과 다르게 공연 영상이 라이브 공연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별개의 ‘장르’로 인식을 하고 있음이 밝혀짐
- 작품성을 담보한 우수한 공연무대를 개인화하거나, 단체관람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해제되는 경험들을 축적해왔고, 최근 이것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만나 창작자와 소비자를 더 즉각적이고 가깝게 만들고 있음

□ 전통적 개념의 향유자-창조자 경계 재편, 문화예술과 첨단기술과의 결합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고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 비대면 중심의 제작과 향유방식이 떠오르면서 전통적 개념의 향유자 및 창조자 그룹의 엄밀한 경계보다, 창작과 공급, 향유, 재창조 프로세스가 다변화되고 있고 경계 또한 유연해지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넷플릭스, 유튜브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용량이 늘어나고 있고, 비대면 콘텐츠가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MR(Mixed Reality)와 같은 실감·체감 기술에 대한 수요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 문화예술에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들도 다변화될 것이며 실제 이루어지고 있음

4. 종합분석

<표 2-9>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거시적 환경변화와 문화예술 분야 영향

거시적 환경변화		문화예술분야 영향	
정치/국제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 정부의 위기대응능력 실험대 • 글로벌 리더십 실종, 선진국 신화 붕괴, 국제기구의 실패 • 새로운 통제사회, 스마트 국가(빅브라더)의 출현 • 공공의료체계, 질병관리(위기대응)시스템의 중요성 • 대규모 긴급지원패키지 정책, 기본소득 논의 점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집중식 통제에 따른 방역조치로 문화시설 휴관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 공연, 전시, 축제 등 중단·취소·연기로 문화예술활동 위축 • 코로나 대응 문화예술분야 지원정책 추진 • 기본소득제도 도입 논의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경제위기(불황) • 리쇼어링(Reshoring)/공급망의 재편 • 노동시장 충격(일자리 대체와 Gig노동 증가), 불평등의 심화 • 온라인/비대면 경제(untact economy)의 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단체 소득 감소, 고용불안정 심화, 이탈 증가 • 예술시장 매출 감소, 영세한 예술단체·사업체 도산 • 비대면콘텐츠 관련 직업 출현 및 확대 • 글로벌 공급망의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예술생태계 가치사슬체계 재편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적 위기(재난)사회 도래,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 • 재택근무(스마트오피스), 온라인 교육 • 홈 루덴스(Home Ludens) 문화 확산 • 안전에 대한 심리적 과잉, 코로나블루, 고립, 혐오와 갈등, 디지털 격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분야 스마트오피스 확대 • 온라인·비대면 제작, 유통, 향유, 교육 증가 • 예술대학교육 변화 • 코로나블루, 소외와 고립, 혐오와 갈등에 대한 문화예술 수요 증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 네트워크 기반 4차 산업혁명 가속화 • VR, AR 등 체험기술 강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T 사용량 증가 • VR/AR, AI, 블록체인 등 기술과 예술의 결합 가속화, 디지털 전환 가속화
생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의 인간에 대한 경고 • 지구의 재발견: 일시멈춤으로 되살아난 환경생태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환경이슈에 대한 문화예술적 접근방식 확대

자료 : 양혜원 외(2021), 「코로나 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p.9~34

□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증대’

- 문화예술 분야가 4차 산업 혁명 등 사회 혁신의 핵심영역으로 그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미래 기술과의 융합과 활용에 있어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용 및 가치 제고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
-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문화예술의 중요성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정책에 개인의 문화적 권리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으며, 사회 복리 측면에서의 문화적 영향력 확대
- 2010년대 이후 지역에서 문화분권을 준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되는 계기가 마련된 바,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위한 대표과제로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조성,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마련 등을 통하여 문화예술이 가진 사회적 역량이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될 수 있음

□ 문화 향유와 소비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화예술 분야의 다중 정체성 강화

- 언제 어디서든 연결되는 보편적 네트워크를 가진 스마트미디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문화 소비와 참여가 확산되고 있음
- 디지털 컨버전스로 인한 콘텐츠의 확장으로 콘텐츠 소비 방식이 단순 소비에서 진화, 사용자의 직간접적 명령이나 요구에 적응적으로 반응하는 체감형 또는 상호작용형 참여와 경험 공유로 변화
- 지역에서의 문화적 환경은 단순히 공간 및 환경 정비사업이 아닌 커뮤니티 및 공동체성의 회복 과정으로써 구성원의 삶의 기억, 역사문화유산, 역사문화경관, 지역공동체 등 유무형 자산 발현에 이르는 경계가 모호한 다중 정체성으로 확산됨

□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과 문화 소비방식 변화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문화 활동 증가 예상

- 언택트는 부정 접두사인 un과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의 합성어로 비대면·비접촉 방식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사람들간의 물리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됨에 따라 원격교육, 원격진료, 원격금융 등 비대면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
- 온라인/비대면 콘텐츠의 급격한 부상과 홈 루덴스(Home Ludens) 문화의 확산은 기존 문화예술의 창작과 제작 - 유통 - 소비와 향유, 교육 등과 같은 문화예술분야 가치사슬 전반에 큰 영향
- 과거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관련하여 제시되었던 문화예술과 첨단기술과의 결합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고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
- 비대면 콘텐츠가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MR(Mixed Reality)와 같은 실감·체감 기술에 대한 수요 또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됨

□ 문화 경험에 대한 일반적 인식 범위 확대 및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 창의성이 중요한 삶의 경쟁력으로 작동되는 창조경제의 시대에는 문화예술교육이야말로 21세기형 ‘문화시민’ 육성의 필수요건 이 되고 있음
- 수동적 의미의 예술의 향유, 혹은 문화적 활동의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한 요소로서 ‘생활 속의 문화’ 활동 전개
- 불확실성의 시대를 타개할 수 있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의 적극적 사회 활동으로서 문화 활동의 범위 확대
- 수동적 문화안전망 구축에 머무르지 않고 능동적 문화 참여 기회 확산을 위하여 온라인 문화활동의 기회 확대 노력

□ 오프라인에서의 온라인으로의 단순 전환이 아닌 문화예술의 ‘디지털 소통’의 방식 모색 필요

- 디지털과 문화예술, 새로운 세계의 패러다임을 구성하는 주요한 핵심 요소로서 소비문화와 체험문화라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고 하고 있으며, 예술가와 감상자의 경계를 해체시키고 경계 간의 소통을 촉진 시키는 멀티미디어가 발전됨
- 이와 같은 멀티미디어의 발전은 단순한 오프라인 활동의 대체제로서 온라인 소통이 아닌 ‘온라인 디지털 소통’에서 필요한 새로운 언어와 방식을 필요로함
- 문화예술이 가진 다양성과 OSMU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확산 시킬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 필요

□ 거시적 사회변화 및 문화정책 흐름에 발맞춘 기초 단위의 지역문화예술 발전 사항 점검 필요

- 권역별 중점 추진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필요하며, 중앙정부 의존재원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문화 재정 마련 방안 제시가 필요
- 도내 각 시군이 가진 콘텐츠의 격차가 커서 시군별 차별화된 문화정책 수립이 필요,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필요

□ 단순 예술 유통이 아닌 예술을 매개로 이뤄지는 지역공동체의 '관계성'에 집중한 전략 마련

- 도정의 시책 위주의 사업 계획이 아닌, 도민 사회의 자발적 문화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문화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필요
- 지역의 문화·역사자원은 지역주민의 고유한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므로 자원의 보전과 활용에는 지역주민의 동의와 참여가 필요
-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협력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관계망을 열어나가는 복지적 의미의 문화활동,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개개인들의 긍정적 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는 계기 마련

Ⅲ. 김포시 문화예술 여건 분석

1. 인문사회 환경
2. 문화예술 자원 현황
3. 문화예술 관련 계획
4. 종합진단

1. 인문사회 환경

1) 입지 특성 및 접근성

□ 지리적으로 서울, 고양, 인천과 인접해 있으며 한강과 운하로 둘러싸여 있음

- 경기 서북부 한강하구에 위치해 있으며 한강 남으로는 서울, 북으로는 북한 황해도, 동으로는 고양, 서로는 강화와 접해 있음
- 동서방향으로 국도 46호선과 지방도로 356호선이 뻗어 있고, 남북으로 지방도로 35호선이 연결되어 지리적·교통적으로 한반도의 남과 북, 내륙과 해안을 연결함
- 지역의 3면이 강화만, 한강하구, 염하강으로 둘러싸여 반도 형태를 이루며,³⁰⁾ 지역 남부 신도시에는 김포대수로, 가마지천, 실개울 등의 수변환경이 조성되어있음

□ 지역 내 전 토지의 절반 이상이 임야와 논·밭으로 이용되고 있음

- 김포시 총면적은 276.59km²로 경기도의 2.72%를 차지함
- 용도별 토지이용면적은 경지(31.67%), 녹지(23.97%), 주거(3.12%) 순이며 임야와 논·밭의 비중이 전 토지의 절반이상으로 높게 나타남³¹⁾
- 지역별 토지면적은 하성면(20%), 월곶면(19%), 대곶면(15%)의 순으로 넓게 나타나며 모두 김포 북부 임야 및 전답 지역에 위치함

□ 경기 서북지역의 광역행정업무 중심지로 3개의 중생활권과 9개의 소생활권을 보유하고 있음

- 김포시(2015) 「2020 김포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의 공간적 동질성 및 지역개발의 계획성을 고려하여 김포시를 3개의 중생활권과 9개의 소생활권으로 구분함
- 3개의 중생활권은 남부, 중부, 북부로 나뉘며 남부는 주거·문화활동 기능, 중부는 행정 기능, 북부는 생태관광 및 산업단지 기능을 담당함
- 9개의 소생활권은 남부의 고촌읍·김포본동·사우동·풍무동, 중부의 양촌읍·장기본동·운양동·구래동·장기동, 북부의 동집은·대곶면·월곶면·하성면으로 구성됨

□ 접경한 대도시들과의 지리적 인접성이 뛰어나며 향후 접근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김포는 주변 서울, 인천, 고양 등의 대도시들과 지리적 인접성이 뛰어나
 - 김포 한강로를 이용하면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여의도까지 자동차로 20분, 강남까지 40분 소요
 - 2019년 김포 도시철도 골드라인이 개통되어 반경 15km 안에 여의도, 용산 등의 서울 중심부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서울로의 접근성은 한층 강화됨
- 서울 중심부까지 도로와 철도로 30분 내 이동 가능한 ‘30분 생활권’이 형성되자 김포 신도시 지역의 가치가 상승함
- 김포 신도시 가치 상승은 지속적인 3~40대 인구유입 및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이끔
- 그러나 이러한 접근성은 아직 수도권 내 지역 중에서는 낮은 편에 속함
- 추후 2027년 구축 예정인 광역급행버스BRT 운영이 시행되면 서울 강서지역과의 접근성은 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 강남·인천·시흥 등의 서울 남동부 및 수도권 전역으로 접근성 향상이 기대됨

30) 김포시 경관계획(2011)

31) 제 59회 김포시 기본통계(2020)

2) 인구특성

□ 2020년 12월 기준 김포시 전체 인구는 473,970만 명으로³²⁾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임

- 2020년 12월 기준 김포시 인구현황에 따르면 총인구수는 473,970만 명이며 인구증가율(0.99%)은 전국 5위임³³⁾
- 총인구는 매년 증가추세이며 특히 2015년 이후 증가세가 강화됨³⁴⁾
- 2020년 9월 경기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 도시의 도내인구변동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김포시 인구변동 증감율은 26.7%로 화성시 다음 가는 높은 증감율을 보임³⁵⁾



자료 :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2019)

[그림 3-1] 김포시 총인구 변화추이

□ 순유입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인구이며 그 외 인천, 부천, 고양 등의 인근 지역에서 이주함

- 김포시가 통계청 국내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2019년 김포시 순유입인구의 절반 이상이 서울 인구이며 강서구에서 이동이 가장 많음
- 주요 인구 유입지역은 서울 강서구(18.6%), 인천 서구(9.4%), 경기 부천시(7.4%), 경기 고양시(6.7%) 순으로 나타남

<표 3-1> 김포시 주요 인구 유입지역

구분	순유입 지역	인구 수(명)	순유입률
2018년 전국 226개 시·군·구	서울 강서구	12,537	18.6%
	인천 서구	6,347	9.4%
	경기 부천시	4,980	7.4%
	경기 고양시	4,528	6.7%

자료 : 김포데일리(2019.7.4.), "김포시, 최근 3년 간 김포시 유입인구 분석"

32) 김포시청 홈페이지 <https://www.gimpo.go.kr/portal/index.do> (접속기준 2021.1.29.)

33) 김포시청 홈페이지 <https://www.gimpo.go.kr/portal/index.do> (접속기준 2021.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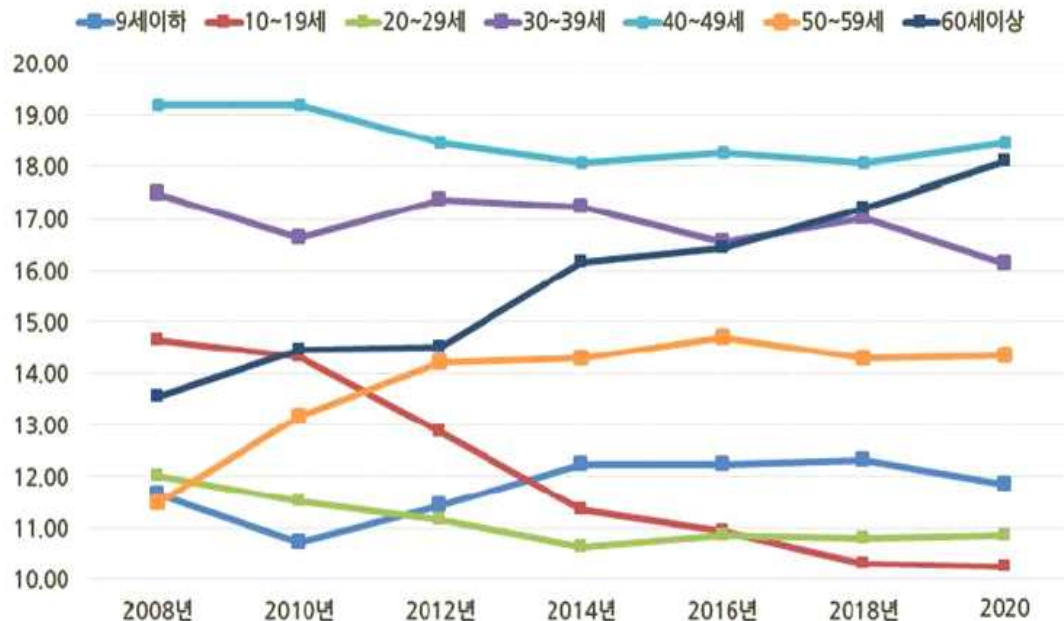
34)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2019)

35) 경기통계DB (접속기준: 2020.9.)

- 이와 같은 증가세는 지속적인 교통망의 확대로 인한 김포시 중·남부 지역의 신도시 가치 상승에서 비롯되어 인근 대도시의 3~40대 젊은 층이 정주 목적으로 꾸준히 유입되기 때문으로 분석됨³⁶⁾

□ 대거 유입된 3·40대로 인해 노령인구의 비중이 높음에도 평균연령 39.7세의 ‘젊은 도시’ 형성³⁷⁾

-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해 신도시 중심으로 젊은 연령층이 유입되면서 전국 평균 연령 43세보다 3.3세 낮은 평균 연령 39.7세의 ‘젊은 도시’ 형성
- 60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 중 18.09%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30대와 40대의 비중이 각각 16.14%와 18.46%로 비등하게 높아 김포시 평균연령을 낮춤
- 2020년 기준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은 전국의 16.2%보다 3.9% 낮은 12.3%로 나타나 인구의 노령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³⁸⁾
- 또한 영유아 비율은 전국 5위를 차지하며, 합계출산율의 경우 2017~2019년의 3년 간 전국 수준보다 평균 0.6% 높은 수준을 나타내어 가족단위 세대의 인구수와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³⁹⁾



자료 : 김포시(2020),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그림 3-2] 김포시 연령별 인구비율 (단위: %)

□ 전체 인구의 약 83%가 김포 남부권에 밀집하여 원도심과 신도심 간 정주 여건 격차 시사

-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2020)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김포시 인구수는 풍무동 13.9%, 김포본동 11.5%, 운양동 11.1% 순으로 집계되어 김포 중·남부권에 밀집해 있음을 알 수 있음⁴⁰⁾

36) ytn(2020.10.15.), “김포시 8월 인구 증가 수 전국 최다...신도시 개발 요인” (접속기준: 2021. 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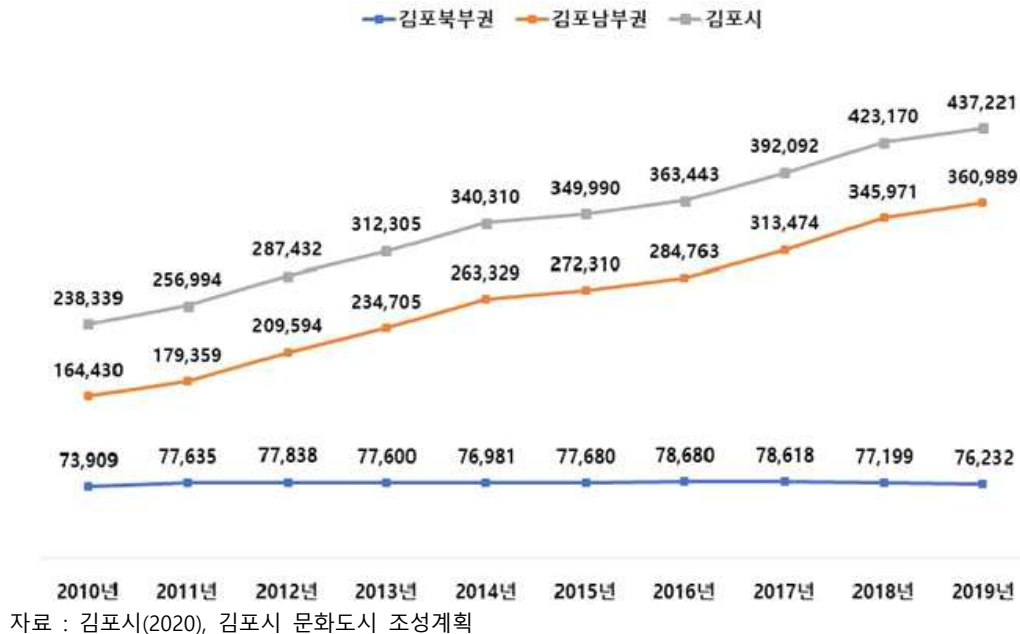
37)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2019)

38) kosis(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20.10.28. 검색

39) kosis(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20.10.28. 검색

40)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2020)

- 특히 주거·문화기능이 특화된 남부생활권에는 김포시 인구의 약 83%가 밀집해 있음
- 김포남부권 중심의 신도심 개발이 최근 10년 동안 김포시의 지속적인 인구증가를 견인해온 것에 비해 북부권의 원도심 인구는 감소추세에 있음⁴¹⁾
- 원도심인 북부생활권과 신도심인 중·남부생활권은 인구구성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임
- 고령자 및 외국인이 원도심 인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신도심 인구는 3·40대 근로인구 및 5·60대의 신중년과 한국인이 다수를 차지함



[그림 3-3] 김포시 권역별 인구증감 추이 (단위: 명)

□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다문화 도시⁴²⁾

- 2019년 김포시 거주 외국인은 28,071명으로 전체 김포시민의 6.2%임
- 이는 전국의 전체 인구대비 외국인 주민비율 4.3%를 상회함
- 김포시 다문화가구원 수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1만 명을 돌파함
- 원도심과 신도심의 인구 수 및 인구구성 격차는 두 지역 간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격차를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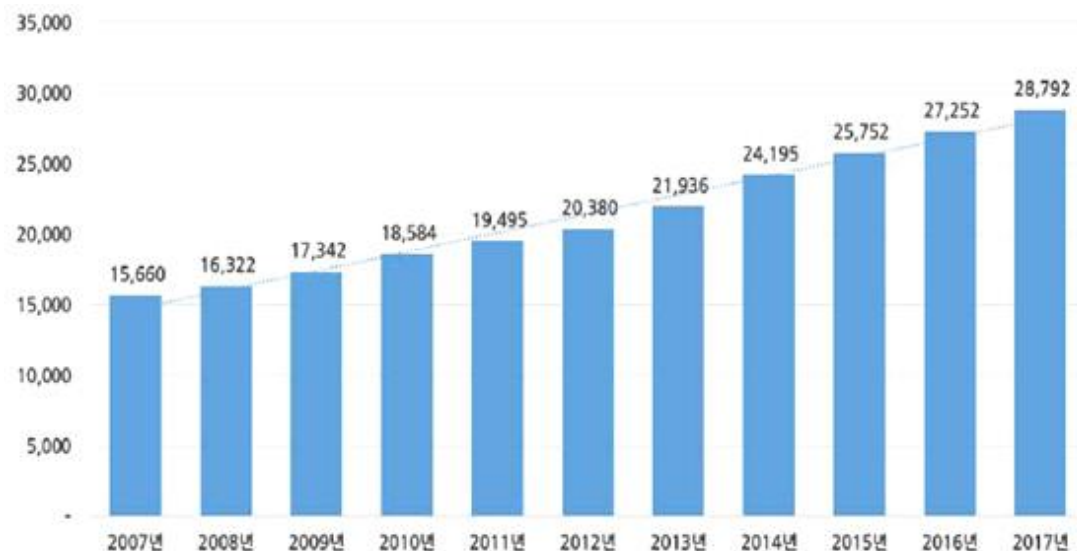
41) 김포시 주민등록인구통계보고서(2018)

42) 경기도 김포시 기본통계(2019)

3) 산업·경제 현황

□ 재정자립도는 낮으나 지속적 인구 유입과 적극적 기업 유치로 산업·경제의 양적 성장 진행 중

- 김포시 재정자립도는 4년 간(2015~2018년) 9.44%p 하락한 35%로 저조한 양상을 띠⁴³⁾
- 그러나 사업체 수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8,584개에서 28,792개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임⁴⁴⁾
- 김포시는 지속적인 인구수와 사업체 수의 증가세를 바탕으로 지역산업 및 경제의 양적 성장방안을 도모해 옴



자료 : 김포시 사회조사(2019)

[그림 3-4] 김포시 사업체수 변화 추이 (단위: 개)

□ 제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선정하여 제조융합혁신센터를 구축하고 지역산업 혁신선도

- 김포시 사업체의 산업별 생산액과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비율이 약 42%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이 그 차순위를 차지함⁴⁵⁾
- 이에 김포시는 제조업을 특화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김포시만의 기업지원정책을 위하여 제조융합혁신센터 구축을 추진함⁴⁶⁾
-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제조융합혁신센터에는 김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마트,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의 ‘기업지원 전문기관’ 등이 입주할 예정임
- 이를 통해 김포가 경기서북부지역의 기업중심도시로 산업혁신 선도할 것을 기대

□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창출 효과 견인

- 제조융합혁신센터의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로 김포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센터에 입주한 기관들의 기술력과 기업지원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여 신사업 구상 및

43)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2019)

44)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2020)

45)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록(2020)

46)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2020)

신규 콘텐츠 창출을 촉진시킴

- 센터에 입주하는 강소기업들의 고용창출(258명)과 더불어 본격적인 센터 운영에 따른 추가고용(1,481명) 등 총 1,738명의 일자리 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 지역의 기업경쟁력 강화와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생태계 도약이 기대됨

4) 도시개발 현황

□ 지속적인 택지개발로 수도권 인구 유입 및 교통망의 광역화가 이루어짐⁴⁷⁾

- 1990년대 초반부터 북변택지지구(1990년~1995년), 사우택지지구(1994년~2002년), 신곡택지지구(1998년~2008년)이 개발되어 수도권인구가 유입됨
- 1998년 4월 김포군에서 김포시로 승격되어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이루어짐
- 2003년 주택공급안정을 주요 목적으로 한 2기 신도시 개발정책에 따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김포한강신도시가 개발됨
- 이어 2006년 택지개발계획 승인으로 2008년부터 공사 착공. 김포 중부 및 남부지역에 152,940인, 56,653호가 공급됨⁴⁸⁾
- 택지개발과 함께 남부에는 상업, 업무타운 및 문화의 거리 조성과 종합운동장이 건립되고 중부에는 첨단 R&D단지 및 고급주거타운, 중앙공원 등이 조성됨
- 2016년부터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됨
- 2019년 김포시와 서울 강서구를 연결하는 김포골드라인 개통으로 광역교통망의 확대와 더불어 인근도시와의 접근성이 보다 강화됨

□ 전체 면적의 약 70% 이상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개발의 통제 및 제약이 따름⁴⁹⁾

- 김포시 전체면적 276,586km² 가운데 군사시설보호구역은 198,74km²이며 이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함
- 관할부대면적 223,990km²에는 육군 17사단, 해병 2사단, 공군3175 부대가 위치함. 이는 김포가 북쪽으로 북한 황해도와 접경해 있다는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됨
-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읍·면·동은 김포 북부의 통진, 하성, 월곶, 양촌, 대곶(일부)등임
- 해당 지역의 도시개발이 통제됨에 따라 기반시설 및 문화시설 구축에 제약이 따름

□ 중남부에 집중된 주거 및 문화생활권 조성이 북부와의 불균형을 초래함

- 김포 중부와 남부에 도시기반시설들이 집중됨
- 김포 북부는 전체 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나 인구밀도가 낮고 1차 산업이 주로 이루어지며 각종 편의시설과 공공시설이 미비함
- 북부의 생태문화자원은 매우 풍부하나 접근 및 개발이 제한되어 활용도가 저조함

47)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s://www.molit.go.kr/> (접속기준: 2021.01.29.)

48) 2020 문화영향평가(2020)

49) 김포시청 홈페이지 <https://www.gimpo.go.kr/> (접속기준: 2021.01.29.)

□ 중남부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또한 지속됨

- 김포 전체 인구의 약 80%가 남부 신도심에 거주함
- 김포 남부 한강신도시의 서울과의 접근성, 인구밀집, 도시주요기능의 집중 등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를 초래함
- 김포 남부에 조성예정인 방송영상문화 중심의 산업단지 한강시네폴리스 구축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의 사회·문화적 격차가 지속됨

5) 시민 인식

□ 김포한강신도시로 대표되는 주거 중심 도시로서의 이미지가 강함

- 2019 김포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한강신도시’에 대한 인식이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남⁵⁰⁾
- 2020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연구 결과 도시유형을 여섯 가지로 구분하였을 때 김포시의 유형을 ‘주거중심도시’라고 응답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⁵¹⁾

<표 3-2> 시민이 생각하는 김포시의 도시유형

구분	빈도(N)	비율(%)
복지도시	23	3.1
문화예술도시	38	5.2
생태환경도시	21.4	29.2
산업물류도시	26	3.5
역사문화도시	85	11.6
주거중심도시	347	47.3
합 계	733	100.0

자료: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2020)



자료 : 김포시 사회조사(2019)

[그림 3-5] 시민이 생각하는 김포시의 대표 이미지 (단위: %)

50) 2019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2019)

51)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2020)

□ 주요 거주요인은 ‘가족, 친인척과 같이 살기 위해서’이며 ‘교육’, ‘문화·편의시설’은 거주동기로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임

- 2019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포시민이 김포에 거주하는 요인은 ‘가족, 친인척과 가까이 살기 위해’ 36.8%, ‘직장’ 21.1%, ‘옛날부터 살아와서’ 16.0%의 순으로 나타남
- ‘편의시설’ 2.3%, ‘교육’ 1.0% 등의 문화환경요인은 매우 낮게 나타남



자료 : 김포시 사회조사(2019)

[그림 3-6] 시민의 김포시 거주 이유 (단위: %)

□ 젊은 층의 정주의식과 지역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유대감이 미흡함

- 김포시민 전체의 51.5%가 김포에 대하여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보니 고향 같다’고 응답하였으며 지역에 대한 소속감에 대하여 55.7%가 ‘다소 있다’는 의견을 나타냄⁵²⁾

<표 3-3> 시민의 현 거주지 거주기간 및 10년 후 거주 의향

구 분		현 거주지 거주기간				10년 후 지역 거주의향				
		5년 미만	5-10년 미만	10-15년 미만	15년 이상	매우 그렇다	어느 정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경기도		23.3	16.7	15.7	44.3	33.0	39.1	15.9	8.1	3.9
2019		27.3	27.7	13.2	31.7	36.7	34.3	15.5	8.3	5.2
2017		37.5	24.1	11.0	27.4	30.7	41.7	15.6	8.0	4.0
2015		44.6	13.0	14.2	28.2	23.6	28.9	19.9	16.9	10.8
권역별	1권역(읍면지역)	18.8	15.8	17.3	48.2	48.4	31.5	10.0	6.6	3.4
	2권역(동지역)	31.0	32.8	11.5	24.7	31.7	35.5	17.9	9.0	5.9
성별	남자	26.5	29.4	13.9	30.2	33.9	35.2	16.4	8.3	6.2
	여자	30.1	22.4	11.0	36.5	45.8	31.3	12.7	8.3	1.9
연령별	15 - 19세	100.0	0.0	0.0	0.0	0.0	0.0	100.0	0.0	0.0
	20 - 29세	48.2	31.5	5.4	15.0	0.0	29.0	47.4	15.8	7.9
	30 - 39세	51.5	32.1	5.5	10.8	16.1	38.8	21.2	14.1	9.9
	40 - 49세	30.0	37.1	12.9	20.0	22.8	39.3	20.9	11.5	5.4
	50 - 59세	14.5	24.9	20.5	40.1	36.7	40.0	14.6	5.2	3.5
	60세 이상	21.9	20.7	12.8	44.7	56.7	25.7	8.5	5.1	3.9

자료 : 김포시 사회조사(2019)

52) 2019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2019)

- 그러나 15 이상 29세 이하 젊은 김포시민의 단 29.0%만이 10년 후에도 김포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20세 이상 응답자의 주요 이주요인은 ‘직장 및 취업’ 59.1%임⁵³⁾
- 이주할 경우,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층의 과반수 이상이 ‘서울로 이주’ 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50대 이상의 김포시민은 ‘김포 시군 내’ 라고 응답함⁵⁴⁾
- 젊은 연령층일수록 지역에 대한 애착과 유대감이 미흡하며 이를 통해 젊은 세대의 지역애착감 형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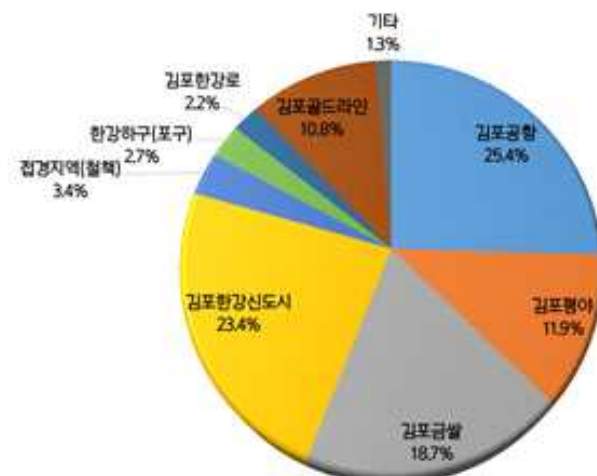
□ 김포시민의 지역정체성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지역 이미지 간 격차 존재

- 김포 시민 대상 ‘김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이 ‘김포한강신도시’ 인 것에 반해 타 지역에서 바라보는 김포의 이미지는 ‘서울 근접도시(베드타운’, ‘도농복합도시’ 가 높은 비중으로 나타남
- 김포시에 대한 김포시민의 지역정체성에 비해 외부에서 바라보는 김포의 이미지 제고가 미비하여 간극이 큼

<외부에서 바라보는 김포이미지>



<김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자료 : ‘문화도시 김포’를 만들기 위한 시민의견조사(2020)

[그림 3-7] 시민이 생각하는 ‘외부에서 바라본 김포 이미지’ 및 ‘김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 도시 정체성 혼재 및 권역별 발전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

- 2020년 기준 김포시에 대한 시민 인식은 ‘도농정체성이 혼재된 도시’, ‘과거 농촌의 모습으로 낙후되어있는 북부지역’, ‘권역별 발전불균형’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 활발’, ‘광역교통망 발달로 인접 지역과의 접근성 우수’,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그로 인한 다양한 분야의 수요 증대’, ‘추후 발전가능성 풍부’ 등의 긍정적인 인식을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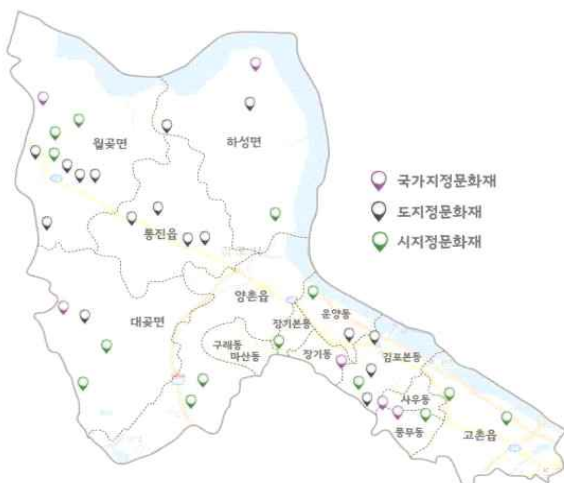
53) 2019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2019)

54) 2019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2019)

2. 문화예술 자원 현황

1) 문화재 및 문화유산

- 접경지역에 다수의 관방유적이 분포하나 경기도내 타 지역에 비해 지정문화재 보유수가 미비함
 - 김포시 전체가 강과 운하로 둘러싸여 역사적으로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담당해온 관계로 덕포진, 문수산성과 같은 요새 유적이 남아있음
 - 국가지정문화재 5개, 등록문화재 1개, 도지정문화재 16개, 시지정문화재 16개를 보유하고 있음. 경기도내 타 지역에 비해 등록된 지정문화재 수가 미비함
- 생태문화자원이 발달하였으나 접경지역의 특성상 접근과 개발이 어려움
 - 강과 운하로 둘러싸인 자연환경으로 인해 물길을 이용한 환경시설물이 발달되어 포구 4곳과 나루 7곳에 역사·생태자원들이 풍부함
 - 또한 경기도에서 화성시(72km²)와 안산시(50km²) 다음으로 넓은 31km²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음⁵⁵⁾
 - 그러나 접경지역의 특성상 도시 전체가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어 풍부한 수변생태문화 자원에 접근 및 개발이 어려움
- 가치 있는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생활밀착형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지역 내 역사문화유산과 생태문화환경 등이 풍부하나 이에 대한 활용과 향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임⁵⁶⁾
 - 가치 있는 문화재, 문화유산, 수변생태환경 등이 일반시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
 - 지역의 기초적인 문화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양질의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자료: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록(2020)



자료: 2020 문화영향평가(2020)

[그림 3-8] 김포시 문화재 분포도(좌) 및 주요 포구 위치(우)

55) 해양수산부, 「연안습지면적현황」

56) 2020 문화영향평가(2020)

<표 3-4> 김포시 등록문화재 현황

구분	지정별		문화재명	소유자	지정일	소재지
	종별	지정번호				
국가 지정	보물	제1225호	묘법연화경<권제7>	중앙승가대	95.07.19	김포시 승가로 123(풍무동)
	사적	제139호	김포문수산성	국유	64.08.29	월곶면 성동, 포내리 일원
		제202호	김포장릉	"	70.05.26	김포시 장릉로 79 (풍무동)
		제292호	김포덕포진	"	81.09.25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5 일원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	77.04.19	월곶면 조강리 하성면 후평리 외 7리
	등록문화재	제542호	천주교인천교구김포성당	인천교구 천주교회	13.04.18	김포시 북변로 29-12
도 지정	지방 유형문화재	제10호	우저서원	유림	72.05.04	김포시 중봉로25번길 90(감정동)
		제90호	조헌선생유허추모비	"	79.09.03	김포시 중봉로25번길 90(감정동)
		제91호	문수사풍담대사부도및비	문수사	79.09.03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12-13
		제142호	장만선생영정및공신록권	장근표	91.10.19	김포시 하성면 기금로 123-1
		제146호	심원원신도비	청송심씨	92.12.31	김포시 통진읍 웅정리 58-12
		제147호	심강신도비	"	92.12.31	김포시 통진읍 웅정리 58-12
		제275호	김포금정사석조여래좌상	금정사	12.06.26	김포시 승가로 125(풍무동)
	지방기념물	제47호	한재당	전주이씨	75.09.05	김포시 하성면 평화공원로 101
		제91호	고정리지석묘	국유	86.09.07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609-1
		제108호	갑곶나루선착장석축로	"	88.03.21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 271-22
		제159호	수안산성	"	96.01.18	김포시 대곶면 올생리 산117 일원
	문화재자료	제29호	김포향교	향교재단	83.09.19	김포시 북변중로 25번길 38(북변동)
		제30호	통진향교	"	83.09.19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 288-21
		제109호	권상묘역	안동권씨	02.4.8	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산24-4
		제166호	통진이청	서정훈	11.10.4	김포시 월곶면 군하로276번길 27외
	무형문화재	제23호	김포통진두레놀이	보존회	98.4.13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347-8
시 지정	향토유적	제1호	대포서원	남원양씨	86.3.3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3번길 30-32
		제3호	대성원	청송심씨	86.3.3	김포시 대곶면 대곶서로59번길 186
		제4호	심음사당	풍산심씨	86.3.3	김포시 운양동 314-2
		제5호	통진현감·부사선정비	시유	86.3.3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83-2
		제6호	봉수대	시유	86.3.3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산44-9
		제7호	용화사미륵석불	용화사	04.8.21	김포시 금포로 1487-5(운양동)
		제8호	청송심씨묘역	청송심씨	04.10.1	김포시 장기동 1763
		제9호	양성지묘역및신도비	남원양씨	07.1.2.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산32-2 외 1
		제10호	수안사	남원양씨	07.1.2.	김포시 양촌읍 황금로23번길 30-108 외
		제11호	남원윤씨오룡골유적	남원윤씨	08.4.29	김포시 고촌읍 인향로24번길 105
		제12호	문경공민기묘역	여흥민씨	08.4.29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산119-1
		제13호	남원윤씨영사정묘역	남원윤씨	10.4.14	김포시 고촌읍 산곡리 102-7
		제14호	김포현령·군수선정비	시유	10.4.14	김포시 사우중로 1(사우동)
		제15호	공숙공정광묘역	동래정씨	13.12.11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산92-1
		제16호	강릉군김문취묘갈	강릉김씨	13.12.11	김포시 고촌읍 태리 35-1

2) 문화예술 시설 및 공간

□ 문화기반시설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및 경기도와 비교 시 미흡한 실정

- 김포시 공연시설 및 미술전시공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 십만 명 당 평균 문화기반시설 수는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수준보다 낮은 편임
 - 2018년 기준 전국의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평균은 5.5개, 경기도는 4.1개이나 김포시는 2.8개 수준에 머무름
- 또한 공공공연장 및 미술관에서의 공연, 전시 관람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 공연장이나 전시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며, 영화관 이외 시설의 양적 증가가 미비해 시설의 한계가 확인됨
- 또한 문화시설의 대다수가 김포남부권에 분포되어있어 지역균등발전을 고려한 문화시설확충이 요구됨

<표 3-5> 김포시 공연시설 및 전시실 현황

구분	공연시설			전시실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관	미술관	화랑
2017	2	-	4	2	-
2016	2	-	4	2	-
2015	2	-	4	2	-
2014	2	-	4	1	-
2013	1	-	2	1	-
2012	-	-	2	1	-
2011	-	-	2	1	-
2010	-	-	2	1	-
2009	-	-	2	-	-

자료: 제58회 김포시 기본통계

<표 3-6> 김포시 문화기반시설 수와 인구당 문화기반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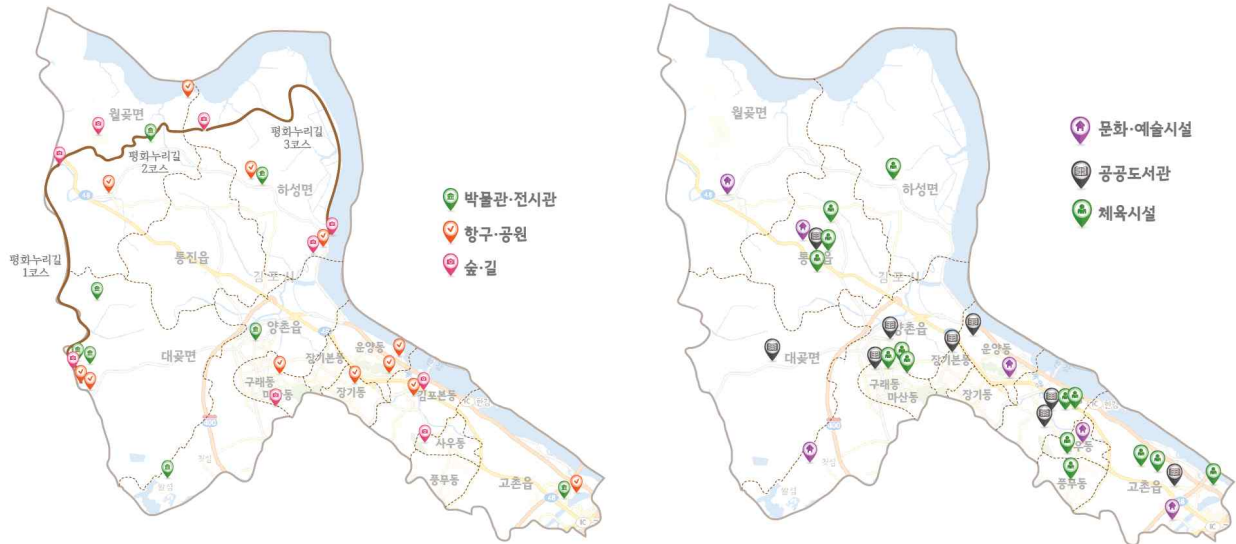
구분	김포시		경기도		전국	
	문화기반 시설수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문화기반 시설수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문화기반 시설수	인구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2018	12	2.8	537	4.1	2,825	5.5
2017	11	2.8	526	4.1	2,749	5.3
2016	11	3.0	504	4.0	2,657	5.1
2015	10	2.9	492	3.9	2,595	5.0
2014	9	2.6	481	3.9	2,519	4.9
2013	9	2.9	442	3.6	2,375	4.6
2012	8	2.8	406	3.2	2,182	4.3
2011	7	2.7	378	3.1	2,072	4.1
2010	7	2.9	360	3.0	1,979	3.9

자료: 통계청, kosis, 2020.9.18 검색

<표 3-7> 김포시 권역별 문화시설 현황

구분	총계	공연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재단
		공연장	영화관					
김포시 전체	14	2	4	3	2	1	1	1
김포 남부권	10	2	4	-	1	1	1	1
김포 북부권	4	-	-	3	1	-	-	-

자료: 김포시청 홈페이지(2019년 기준)



자료: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부록(2020)

[그림 3-9] 김포시 주요 문화·예술·관광 시설 분포도

□ 도서관의 경우 시설 수가 부족하고 이용률이 낮아 시설확충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필요

- 도서관 김포시 공공도서관은 6관, 공공 작은도서관 4개, 사립 작은도서관 40개로 집계되었으나 2019 김포시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포시민의 70% 이상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고됨
-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44.8%, “일(공부)로 바빠서” 38.1%, “도서관의 거리가 멀어서” 13.0%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응답은 “접근하기 편리한 곳에 도서관 건립” 39.4%,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확대” 30.1%로 나타남⁵⁷⁾
- 도서관 이용률과 이용편의 증대를 위하여 시설의 접근성 및 프로그램 강화가 요구됨

□ 체육시설현황의 경우 젊은 지역민의 선호도가 높아 지속적 유지·관리 및 신설 필요

- 김포시 공공체육시설은 육상경기장 1개, 축구장 2개, 야구장 2개, 테니스장 3개, 간이운동장 45개, 승마장 3개, 종합체육시설 4개, 수영장 7개, 체육도장 152개로 집계됨⁵⁸⁾
- 김포시에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이 무엇인냐는 질문에 대해 15~19세 청소년의 37.5%가 “체육시설 및 경기장”을, 20대 젊은 층의 35.5%가 “공원, 녹지, 산책로”를 응답함⁵⁹⁾

57) 2019 김포시 사회조사

58) 제58회 김포시 기본통계연보

- 지역의 10~20대 젊은 연령층에서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을 목적으로 한 체육시설 중요도 및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체육시설에 대한 젊은 층의 인식도가 높고 신도시 유입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중임을 감안하여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계획적인 신설이 필요함

<표 3-8> 김포시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현황

구분	김포다도박물관	덕포진교육박물관	보름산미술관	CICA미술관
설립 목적	· 한국 전통예절과 다도를 계승·발전시키고 시대에 맞는 생활예절과 차문화 연구·보급하고 국민의 바른 국가관과 도덕적 정신문화를 함양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다도구류의 전시와 함께 전통예절과 다도교육 진행	·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 사고로 시력을 잃은 아내(이인숙)를 위해 남편이며 역시 초등학교 교사를 지냈던 김동선 선생님이 설립한 사립 박물관	· 화가이자 건축가인 장정웅의 작품으로 크지 않은 공간이지만 전시장, 교실, 카페, 서점 등 공간을 나누어 지역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계획	· 1994년 조각가 김종호의 작업실에서 시작된 종 현대 미술 연구소(CICA)는 예술가들이 설립하고 육성하는 문화 공간이며, 예술가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현대미술을 배우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
구성 및 규모	· 제1전시실 : 골동품, 규방문화 · 제2전시실 : 30년 이상 된 근대 작품들 · 특별전시실/야외 조각공원/연못 2곳/ 정자	· 인성교육관 : 60년대 교실, 딱지 교복, 책가방 등 · 교육자료관 : 서당, 교과서, 악기, 붓, 상장 등 · 농경문화관 : 풍구, 도롱이, 탈곡기, 팽이, 허수아비 등	· SPACE 달 : 미술관 소장 작품 상설전 · SPACE 해 : 평면미술 작품 기획적및 특별전 · 카페/다실/책방.아트숍	· 갤러리L, 갤러리M · 미디어 갤러리 · 김종호 갤러리 · CICA 포럼 : CICA Flexspace/휴게공간 · CICA 가든
주요 프로그램	· 전시프로그램 · 행사 프로그램 : 전국차인 개인소장품 전시 및 다회, 연꽃축제, 한·중·일 문화교류 등 · 교육 프로그램 : 다도박물관 문화대학/학생 및 교사, 공기업 '예절과 다도'교육 · 체험 프로그램 : 전통문화 다례체험/전통 다식만들기/한지공예 등	· 체험학습 - 문화교실 - 자연체험학습 - 학교중이 땡땡땡 - 초등학교 교과목 체험학습프로그램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대학생, 가족, 군인 대상)	· 전시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 · 유아 미술교육 프로그램 · 온라인 미술 감상·교육 프로그램	· CICA 뉴미디어 아트 컨퍼런스 · 시각 문화를위한국제 심포지엄 · Art Teleported New York · 어린이 체험 전시 · 간행물 출판

자료: 시설별 홈페이지

3)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

□ 다양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대표축제는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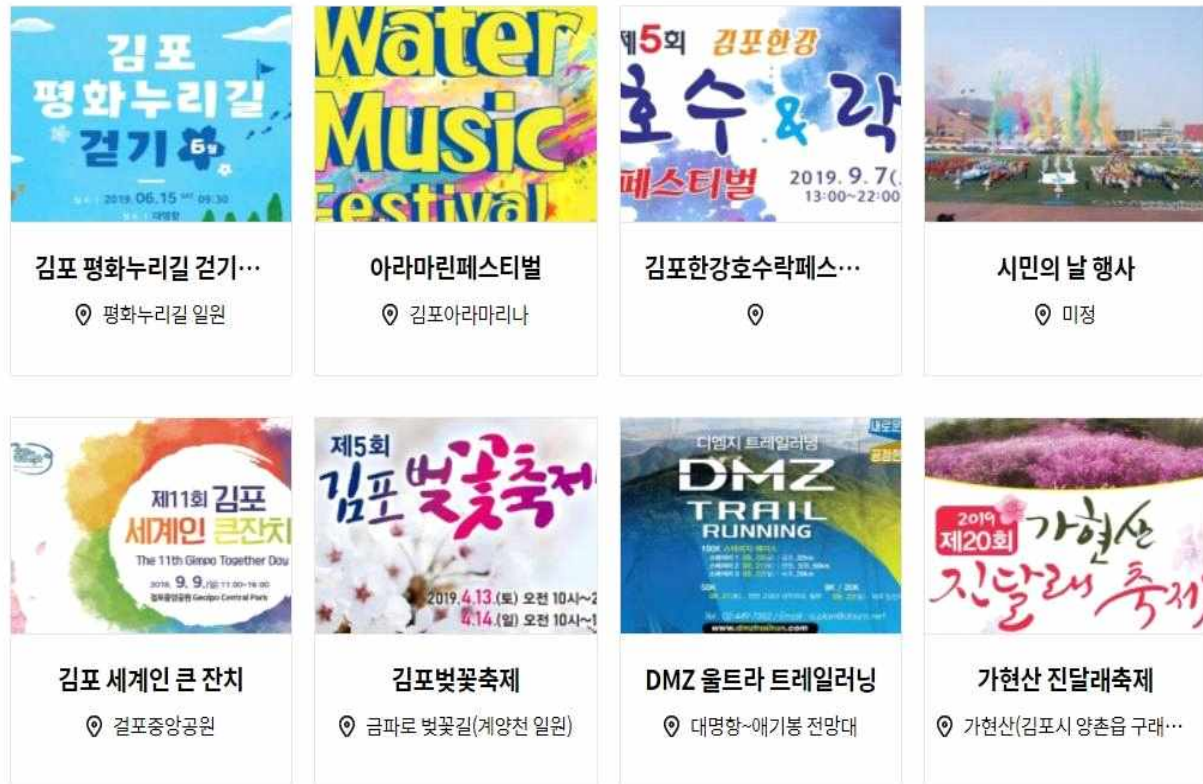
-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축제(포도축제, 대게축제, 인삼축제 등), 계절별축제(김포벚꽃축제, 가현산진찰래축제), 생태환경을 활용한 축제(아리마린페스티벌), 북한과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의 주제를 활용한 축제(김포평화누리길걷기) 등이 개최되고 있음⁶⁰⁾
- 그러나 전국적으로 알려진 김포시를 대표할 만한 축제나 행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⁶¹⁾

59) 2019 김포시 사회조사

60) 김포 문화관광 홈페이지 <http://www.gimpo.go.kr/culture> (접속기준 2021.1.31)

61) 2020 문화영향평가

- 김포평화누리길 걷기(제1회), 아라마린 페스티벌(제4회) 등의 경우에는 운영의 역사가 짧아 추후 정기적인 개최 및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되는 상황임



자료: 김포 문화관광 홈페이지 (접속기준: 2021.1.21)

[그림 3-12] 김포시 지역축제 현황

□ 코로나 이후 오프라인 비대면 축제 및 온라인 여행박람회 등 확대 운영

- 2020년 펜데믹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오프라인 축제 운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였으나 김포평화누리길걷기대회는 지정코스 도보여행이라는 축제 특성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비대면 축제 참가 방식으로 운영을 지속함⁶²⁾
- 그 외 김포지역 문화예술단체 (사)전통문화예술연구소는 ‘도당문화축제’, 김포지역예술인들의 ‘김포예술제’ 등이 온라인에서 공연됨
- 김포시 또한 정책적으로 온라인 여행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역예술축제의 사전예약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

4) 문화예술 인력 및 단체⁶³⁾

□ 인구 대비 등록예술인 비율이 높은 편이며 예총과 김포문화원이 지역 문예활동 견인 중

-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8.5명으로, 전국 상위 23%, 경기도

62) 경기관광포털 <http://www.ggtour.or.kr> (접속기준: 2021.1.31)

63) 문화인력에 대한 체계적 통계 데이터가 부재해 정확한 인력 집계 불가능함

상위 45%에 해당⁶⁴⁾

- 김포시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포지회 및 김포문화원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김포시의 문화예술활동을 이끔⁶⁵⁾
 -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김포지회는 김포에서 약 20여 년 간 활동(2020년 기준)함
 - 이 단체에는 지역 문인, 미술가, 국악인, 음악인, 무용인, 사진작가 등의 다양한 예술가 442명이 소속되어있어, 김포시 문화예술단체 중 가장 많은 회원수(442명)을 보유함
 - 김포지역에서의 오랜 활동이력과 많은 회원수를 바탕으로 매년 '김포예술제' 개최
 - 김포문화원은 지역고유문화 개발과 보급, 보존 및 전승을 목적으로 1964년 출범한 기관이며 당초 지역문화행사 등을 개최함으로써 지역에 내려오는 고유문화 선양의 역할을 수행함. '중봉문화제' 주최

<표 3-9> 김포시 예술단체 현황

구분	단체수(개)	최원수(명)
연합단체	2	547
전통문화	20	745
음악	8	256
연극	8	165
사진	3	120
미술	15	612
문학	5	153
무용	3	59
기타	12	254
합계	76	2,917

자료: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2020)

□ 2015년 출범한 '김포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김포문화재단은 2015년 출범 후 문화인프라 조성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선도함
- 운영시설로는 김포아트홀, 김포아트빌리지, 통진두레문화센터, 월곶생활문화센터, 작은미술관 보구꽃이 있음
- 지역특화된 문화예술사업으로 '평화사업'을 운영함. 김포지역의 평화문화자원을 활용하여 평화문화콘텐츠 제작을 선도함. 세부사업으로 '김포 역사 토크콘서트', '김포 평화포럼', '조강평화문화제' 등이 있음
- 원도심과 신도심의 문화격차완화, 양질의 문화예술콘텐츠 제작, 지역민에 밀착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담당함

<표 3-10> 김포문화재단 인력 현황

구분	정원인력						
	계	임원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A)	60	1	2	10	13	16	18
현원(B)	56	1	2	9	5	17	22
결원(A-B)	4	-	-	1	8	-1	-4

자료: 김포시 내부자료(2021)

6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현황통계」

65) 김포신문(2016.8.25), "김포 원도심 특성", <http://www.igimp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771> (접속 기준: 2021. 1.31)

<표 3-11> 김포시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단체명	구분	내용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년 3월 창단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기준 30회의 정기연주 개최 매년 전국의 각종 합창제 및 지역축제 축하공연 참여 2000년, 2004년 2회에 걸쳐 세계어린이합창제 참가
시립여성합창단	창단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4년 김포군 어머니합창단으로 시작 1999년 소년소녀합창단 출범과 함께 시립예술단으로 승격 2010년 여성합창단으로 명칭 변경
	주요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5년 창단연주회 개최 김포지역 각종 행사, 개청식, 기념일 등에 축하공연 지역문화예술축제 참여 찾아가는 음악회 등의 지역문화활동

자료: 김포시 홈페이지

<표 3-12> 김포문화원(시민회관) 교육프로그램

단체명	연도	내용
김포문화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역사문화 학습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태극기 인문학 강좌 교육콘텐츠 동아리 운영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학 아카데미 운영

자료: 김포문화원 홈페이지

<표 3-13> 김포문화재단 주요 사업

구분	연도	사업내용
지원사업	2018 ~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예술활동 지원사업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김포아트홀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 시각예술분야 창작전시지원사업 예술단체 공연전시 지원사업(2019, 2020)
지역문화사업	2018 ~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 버스킹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 다리 사업 문화가 있는 날 운영사업 김포아트빌리지 공연, 전시, 축제사업 통진두레문화센터 페스티벌 작은미술관 보구곳 조성 및 운영사업 찾아가는 미술관 운영사업 월곶생활문화센터 문화가 있는 토요일 월곶생활문화센터 우리 동네 최고 월곶생활문화센터 작은음악회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포시 역사문화 3종 스토리북 제작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곶마을장터 김포역사토크콘서트 김포포구학술콘서트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 옛 포구 사진, 영상 수집 공모전 • 거리에술 퍼포먼스 • 다시 쓰는 김포 100전 전 • 한강, 프리존, 강을 잃어버린 도시 전 • 역사자원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월곶생활문화센터 디지털 영상 변환 사업
교육사업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여름 예술아카데미 • 김포아트빌리지 전통문화 교육, 숙박체험사업 •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 김포아트홀 공연장 견학 프로그램 • 월곶생활문화센터 예술교육 프로그램 • 모담산 발굴학교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여름 예술아카데미 • 김포아트빌리지 전통문화 교육, 숙박체험사업 •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상교육 • 김포아트홀 공연장 견학 프로그램 • 월곶생활문화센터 예술교육 프로그램 • 월곶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 월곶 청소년 해설사 양성 및 평화문화 탐험대 • 모담산 발굴학교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아트빌리지 공방특화교육프로그램 • 김포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업 • 김포 공방문화체험교육사업 • 경기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경기청소년예술교육 장르특화사업 • 월곶생활문화센터 예술교육 프로그램 • 월곶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어린이 독서프로그램 • 모담산 발굴학교
평화사업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평화포럼 • 김포시 평화콘텐츠 제작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 역사 토크콘서트 • 김포평화포럼 • 조강평화문화제
연구사업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역사문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1차) • 근현대 역사문화 기록화사업(1차)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역사문화 디지털아카이브 구축(2차) • 근현대 역사문화 기록화사업(2차) • 한강하구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 김포시 역사자원 캐릭터를 활용한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강하구 역사문화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 역사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자료: 김포문화재단 홈페이지

3. 문화예술 관련 계획

1)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15)

①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2006년~2020년(기준년도: 2014년, 목표연도: 2020년)
- 공간적 범위: 김포시 행정구역 전역(필요 시 수도권 지역과 연계사항 포함)

② 비전 및 목표

- (비전) “문화예술과 복지로 힐링(Healing)과 창의(Creativity)를 입히다”
- (목표) ‘시민중심의 문화예술생활 활성화’, ‘문화적 방식의 공간·경관·지역재생’, ‘문화예술과 교육·복지의 융합’, ‘창조적 인력을 통한 문화예술 역량강화’, ‘생활권 기반의 문화예술 정책수립’의 총 5가지 목표설정

<표 3-14>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목표

목표	내용
시민중심의 문화예술생활 활성화	문화예술 거버넌스, 문화정책 전달 인프라 구축, 창작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문화정책과 사업이 행정기관이나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생활 활성화 유도
문화적 방식의 공간·경관·지역재생	클러스터 공간, 경관지구, 문화적재생지역 등으로 전문가협의를 통해 구역화
문화예술과 교육·복지의 융합	문화예술,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관련 재원을 확보하여 문화예술 융복합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작지원과 작가 육성을 위한 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아트, 예술인촌 조성
창조적 인력을 통한 문화예술 역량강화	임대료 지원을 통한 유입, 창조팩토리사업, 문화일자리 사업, 청년문화인턴 사업을 통해 창조적 문화예술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 마련
생활권 기반의 문화예술 정책수립	마을공방, 청소년과 함께 하는 아마추어 문화예술가 문화아지트, 시민특성별 마을예술 창작소, 작은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업을 통해 생활권역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 생활권 문화예술 기반시설 조성 및 공간대여 활성화

자료: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15)

③ 추진전략

- 김포시 문화예술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창조적 계승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발전 중인 김포시의 진취적인 미래상을 고려한 추진전략을 수립함
- 수행단계를 총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2016년), 2단계(2017년~2018년), 3단계(2019년~2020년)으로 설정함

- 핵심전략 및 인근지역자원과의 연계를 위해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계획수행
- 추진전략의 내용적 범위 설계
 - 김포시 문화자원 및 문화예술실태 조사·분석,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전 및 목표설정
 -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계승·발전 및 활용
 - 문화기반시설 및 환경의 정비·확충, 운영방안과 네트워크 구축방안
 -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역량강화
 - 문화예술정보의 효율적 제공 및 문화복지 확충방안
 -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방안
 -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방안
 - 중장기 발전계획의 추진전략 및 재원조달방안
 - 문화예술진흥정책과 사업 등 평가 및 환류방안

④ 부문별 사업내용

<표 3-15>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 부문별 사업내용

사업부문	사업내용
전통문화유산 계승발전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 역사 문화유산 집대성 • 김포 역사문화유산 교육 강화 • 김포의 대표 사상 및 인물 재조명 • 문화유산 활용 협력 체계 구축 및 주민참여 확대 • 통진두레놀이 보존회 지원확대 방안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 시민문화공간 확대를 위한 정책 • 주민과 문화시설 간의 문화네트워크 구축 • 문화시설 간의 문화네트워크 구축 방안 • 사이버 문화 활동 지원 • 김포 문화원(시민회관) 기능확대 및 시설개선 지원사업
문화관광산업 육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관광 마케팅 지원사업 • 문화축제·이벤트 활성화 지원사업 •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 조성사업 • 애기봉 개발사업 • 무장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 아라뱃길 한류문화관광상품 개발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및 콘텐츠 육성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아트빌리지 연계 • 문화예술클러스터 지도 제작 사업 • 문화컨설팅 사업단 구축 • 문화예술 동아리 발굴 및 지원 • 거리문화공연단 운영계획(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문화사절단)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 문화시설의 문화인턴십제도 도입 • 문화인력 강사풀(pool)제 활용 • 문화예술진흥정책 모니터링단 발족 • 문화콘텐츠 민·관·학 파트너십 구축사업 • 김포 예술인 총회 운영방안 • 희망계층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사업부문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은영화관 사업 문화예술 R&D 분야 지원사업 문화콘텐츠 제작사업 문화예술 교류 양성방안 기업메세나 운동의 적극적인 활용
김포문화재단 운영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단인력 전문화 김포문화재단과 예총, 문화원, 자생단체 등의 유기적 연계 김포 시립예술단 구성 및 운영

자료: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15)

2)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2020)



자료: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2020)

[그림 3-13]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 기본구상

① 계획범위

- 시간적 범위: 2021년~2037년(기준년도: 2020년)
- 공간적 범위: 김포시 전체(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의 연계사항 포함)

② 계획수립의 배경

-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문화도시 패러다임의 능동적 수용하고 국내 지역문화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법제적 연계기반 구축할 필요
- 문화도시 실현을 위한 김포시의 정책적 노력 지속 및 구체화를 위하여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③ 비전 및 목표

- (비전) “참여와 교류로 경계를 허물다! 문화나루도시 김포”
- (목표) ‘참여로 정주성을 높이는 생활문화’, ‘역사와 정체성을 품은 평화문화’, ‘다양성을 품는 교류문화’, ‘꿈을 공유하는 창의문화’의 총 4가지 목표를 설정함

④ 추진전략

- 4가지 계획목표에 따라 추진전략 수립
 - ‘참여로 정주성을 높이는 생활문화’: “문화, 삶을 꺼안다” ⇒ 생활행동
 - ‘역사와 정체성을 품은 평화문화’: “문화, 평화와 만다” ⇒ 평화행동
 - ‘다양성을 품는 교류문화’: “문화, 나루로 퍼지다” ⇒ 나루행동
 - ‘꿈을 공유하는 창의문화’: “문화, 시민이 만들다” ⇒ 창조행동
- 추진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기반조성’, 2단계 ‘활용&연결’, 3단계 ‘확신&융합’으로 설정함
- 권역별 추진전략을 문화활동의 거점(남부), 생태 및 문화체험프로그램 진행의 보조거점(중부), 시민중심 프로그램 개발·운영의 보조거점(북부)으로 설정하여 지역 간 문화불균형 해소를 도모함

⑤ 주요 사업

<표 3-16> 김포 문화도시 조성계획 전략별 주요 사업

추진전략	사업내용
문화, 삶을 꺼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김포문화 시민대학’ • 문화생태계 조성 위한 ‘문화놀이터 PAN’ • 문화의 일상화를 위한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사업’ • 문화를 펼치는 시민들의 성과공유를 위한 ‘김포문화난장’

추진전략	사업내용
문화, 평화를 만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문화원형 발굴프로젝트' • 평화문화도시의 지속을 위한 '평화문화 관광콘텐츠 개발사업' • 평화를 꽃 피우는 '철책문화마을 조성' • 문화예술로 단절의 경계를 허물어가는 '철책에 핀 문화예술'
문화, 나루로 퍼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사업의 거점 조성을 위한 '문화거점 조성사업' • 이업종 간 교류로 쉽게 만나는 문화현장 '문화예술 징검다리' • 코로나19에 새로운 생활문화로 대응하는 'Post-COVID19 시민문화행동' • 사회·문화적 이슈에 몸짓으로 답하는 '김포 이슈-플래시몹 문화행동'
문화, 시민이 만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나, 어디서나 접근하여 사고 파는 '김포문화 온&오프 플랫폼 구축' •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김포 자랑 '문화 인플루언서 활성화' • 문화경제 활력화를 위한 문화콘텐츠 상품개발 지원사업 '김포의 표현' • 문화의 재해석과 그 결과를 모아서 문화를 소비하는 '문화를 플렉스하다' • 김포에서 가장 힙(hip)한 문화동네를 만드는 '청년 김포힙'
문화도시 지원센터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지원센터 운영 인력 확보 •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자료: 2020 문화영향평가(2020)

⑥ 문화영향평가 결과⁶⁶⁾

-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2020)에 대하여 전문가 평가단 현장 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 등의 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이 김포시에 미치는 문화영향에 대해 평가함
- 평가영역은 '문화기본권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발전에 미치는 영향' 임
- 전문가 평가단의 의견을 점수로 환산한 결과 5.0 이상의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되며 5.0 미만일 경우는 영향력이 미비한 것으로 분석함
- 분석결과 해당 사업은 김포시민의 문화향유수준, 문화예술활동의 표현 및 참여기회, 창의성에 대하여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됨
- 반면 지역 문화유산활용, 공동체 형성, 문화다양성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됨

<표 3-17> 김포 문화도시 조성계획 문화영향평가 결과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 결과	세부의견
문화기본권	문화향유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평가: 시민의 참여 및 접근성 증대 기대 • 부정적평가: 수혜대상이 제한적 • 해결 및 보완방안: 시민주체적 참여구조 필요

66) 2020 문화영향평가(2020)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결과	세부의견
	표현 및 참여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평가: 시민의 문화생산 및 유통의 기회제공 • 부정적평가: 실질적 수행주체는 시민 아닌 관 • 해결 및 보완방안: 시민주도의 문예활동 보완 및 다양한 시민 포용가능한 매체 활용 고려
문화유산	문화 유산	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평가: 문화원형 발굴 통해 시민들의 인지도 제고 • 부정적평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정책체계 미흡 • 해결 및 보완방안: 시민의 삶과 문화유산을 연계하고 문화유산을 디지털콘텐츠로 활용하는 장기적·구체적 전략 제시
	공동체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평가: 철책선 주변지역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일 것 • 부정적평가: 김포시민 전체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것 • 해결 및 보완방안: 김포시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파악을 토대로 선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해소 기구 운영 등
문화발전	문화다양성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평가: 생활문화사업 통한 지역 간 문화격차해소 및 프로그램 다양화가 기대됨 • 부정적평가: 문화다양성의 본질적 가치 확산에 한계 • 해결 및 보완방안: 문화사각지대에 대한 문화지표조사 실시, 문화거점사업의 구체성 보완, 소규모마을커뮤니티 구축 등
	창의성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평가: 창의산업 활성화에 긍정적인 세부사업 포함 • 부정적평가: 세부사업들의 장기지속가능성이 높지 않음 • 해결 및 보완방안: 장기지속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안팎의 예술인력 활용하여 시민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

자료: 2020 문화영향평가(2020)

4. 종합진단

Strength	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도시 ▪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사업 추진 에너지 내재 ▪ 잘 보존되어 있는 생태자원 보유 ▪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원 및 콘텐츠 다수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지역민의 정주의식 낮음 ▪ 타 도시 대비 낮은 수준의 문화예술 분야 예산 ▪ 인구 대비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 및 대표 콘텐츠 부재 ▪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부족 (지역 진단 불가)
Opportunity	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개발호재로 도시성장 지속 예상 ▪ 난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문화예술 수요 점진적 증가 ▪ 김포시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확충 추세 ▪ 문화예술의 가치 및 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흐름 ▪ 문화예술의 심리·정서 치유 기능 각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문화향유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 ▪ 문화 환경이 우수한 대도시와 인접해 인구 유출 가능성 농후 ▪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제한 등의 성장 제약요인 존재 ▪ 지역격차 및 인구구성 다양성이 시민 결속력 약화 계기로 작동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활동 제약 및 미래사회의 불투명성

[그림 3-14] 김포시 종합진단 결과 SWOT 분석

□ 급격히 성장 중인 신도시로 다수의 개발 호재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강한 의지 보유

- 김포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율 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젊고 역동적인 신도시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에너지를 내재하고 있음
- 지역의 상당 부분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잘 보존된 생태자원은 물론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원 및 콘텐츠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 특히 다수의 개발 호재로 지속적 도시성장이 예상된다는 점 이외에도 시민의 문화예술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추세인 점,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확충 추세 등은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기회 요소로 판단됨
- 거시적 차원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문화예술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예술의 심리적·정서적 치유 기능이 각광 받는다는 점 역시 지역문화 발전의 동력으로 간주됨

□ 지역민의 정주의식이 낮고 시민의 문화예술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약점으로 꼽힘

- 김포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지역민의 정주의식이 낮으며, 타 도시 대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이 낮은 수준임
- 인구 대비 문화예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표 콘텐츠가 부재하다는 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은 약점으로 판단됨
- 또한 시민의 문화향유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서울 등 문화 환경이 우수한 대도시와 인접해 인구 유출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접경지역이 갖는 개발제한 요소 등은 극복해야 할 위협 요소임
-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시되어 온 지역격차 문제, 인구구성의 다양성이 시민 결속력 약화 계기로 작동 가능하다는 점 등은 김포시 문화예술 부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제약 사항임

지역 측면 전략과제

- 난개발 지양 및 인간성 회복
- 총체적 정주환경 개선
- 지역 이미지 개선 및 도시 정체성 구축
- 거주지와 생활권의 분리 양상 극복
- 접경지역이 지닌 성장 제약요인 극복
- 권역 간 불균형 완화 및 격차 해소
- 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 완화

문화예술 측면 전략과제

- 문화예술 필요성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
- 문화예술 향유수준 전반적 제고
- 문화기반시설을 포함한 기초 인프라 확충
-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및 지역편중 완화
- 수요 기반 문화예술(교육) 활동 기회 확대
- 문화예술 전문인력 및 매개인력 발굴·양성
- 주체 간, 공간 간, 사업 간 연계성 강화

[그림 3-15] 김포시 지역 및 문화예술 측면 전략과제

□ 문화예술 여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역 측면의 전략과제와 문화예술 분야 전략과제 각각 도출

- 김포시 지역 차원에서는 ①난개발 지양 및 인간성 회복 과제, ②총체적 정주환경 개선 과제, ③지역 이미지 개선 및 도시 정체성 구축 과제, ④거주지와 생활권의 분리 양상 극복 과제, ⑤접경지역이 지닌 성장 제약요인 극복 과제, ⑥권역 간 불균형 완화 및 격차 해소 과제, ⑦원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 완화 과제 등이 도출될 수 있음
- 김포시 문화예술 부문의 경우 ①문화예술 필요성에 대한 지역 공감대 형성, ②문화예술 향유수준의 전반적 제고, ③문화기반시설을 포함한 기초 인프라 확충, ④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및 지역편중 완화, ⑤수요 기반 문화예술(교육) 활동 기회 확대, ⑥문화예술 전문인력 및 매개인력 발굴·양성, ⑦주체 간, 공간 간, 사업 간 연계성 강화 등이 주요 전략과제로 꼽힘

Ⅳ. 시민·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1. 조사개요
2. 시민 의견수렴 결과
3. 창작자 의견수렴 결과
4. 매개자 의견수렴 결과
5.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1. 조사개요

<표 4-1> 시민 의견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 사 명	김포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조사목적	김포시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 시민 의견수렴
조사대상	김포시민 300명 (만15세 이상 남녀)
조사기간	1차 : 2020.12.22.(화) ~ 2020.12.30.(수) 2차 : 2021.01.04.(월) ~ 2021.01.06.(수)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및 대면조사 병행
조사내용	여가활동 실태, 문화예술 향유 경험,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참여 경험, 김포시 문화환경 관련 의견

<표 4-2> 관계자·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 사 명	김포시 문화예술 관련 관계자·전문가 의견조사		
조사목적	김포시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 수립 관련 관계자·전문가 의견수렴		
조사대상	전문가·관계자 100명		
조사기간	2020.12.29.(화) ~ 2020.01.06.(수)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조사내용	공통		김포시 문화예술의 강점, 문제요인별 중요도 및 시급도, 개선방안
	개별	창작자	창작환경, 예술인으로서 역할, 응답자 특성(성별, 연령, 소속, 거주지, 활동 분야, 활동 기간, 활동지역, 활동 수입, 협회 가입 여부)
		매개자	소속 기관(단체) 근무여건, 소속 기관(단체)의 지역 내 역할, 응답자 특성(성별, 연령, 소속 및 직위, 담당 직무, 근무 기간)
		전문가	응답자 특성(성별, 연령, 소속 및 직위, 전문분야, 경력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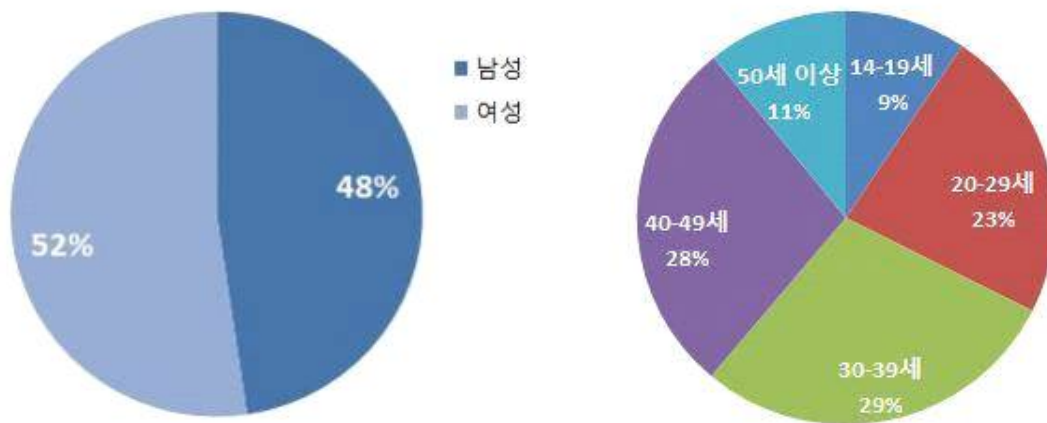
<표 4-3> 관계자·전문가 세부 조사대상

구분		내용
관계자(70)	창작자	한국예총 김포지회, 경기민예총 김포지부, 등록예술인 등
	매개자	김포문화재단, 김포문화원, 지역 문화예술 공간(시설) 등
전문가(30)	전문가	문화예술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2. 시민 의견수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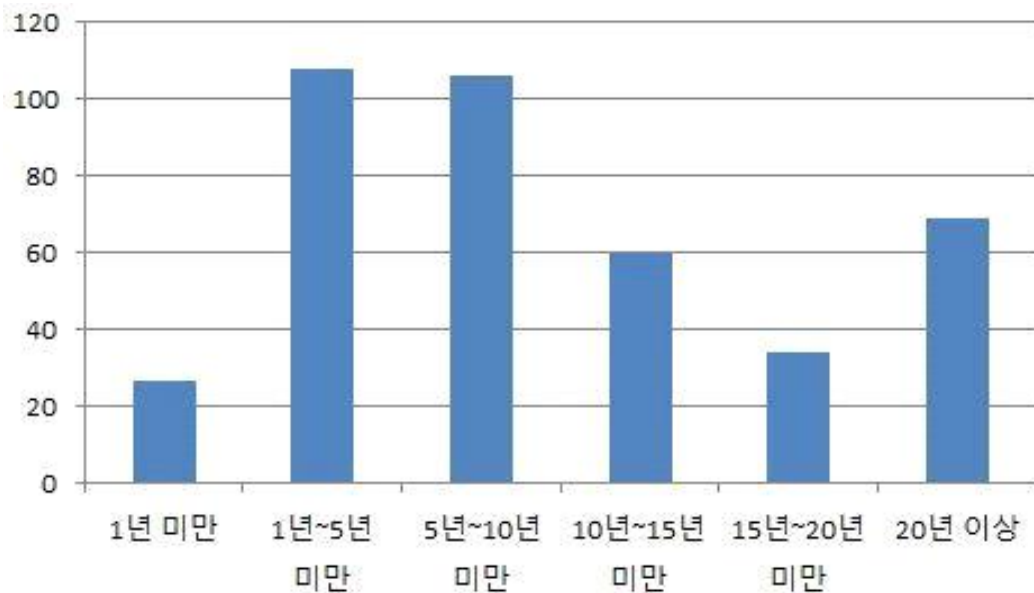
1) 응답자 특성

- 전체 응답자 404명을 대상으로 문화여가 향유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이 48%, 여성이 52%의 분포를 보임
- 응답자 연령은 ‘14~19세’ 9%, ‘20~29세’ 23%, ‘30~39세’ 29%, ‘40~49세’ 28%, 50세 이상 11%이며, 김포시 평균연령 29.7세를 포함한 30~39세 응답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1] [시민] 성별(좌) 및 연령(우)

- 응답자의 절반 이상의 김포시 정주 기간 10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15년 거주 시민이 14.9%, 15년~20년 거주 시민이 8.4%, 20년 이상 거주 시민이 17.1%로 각각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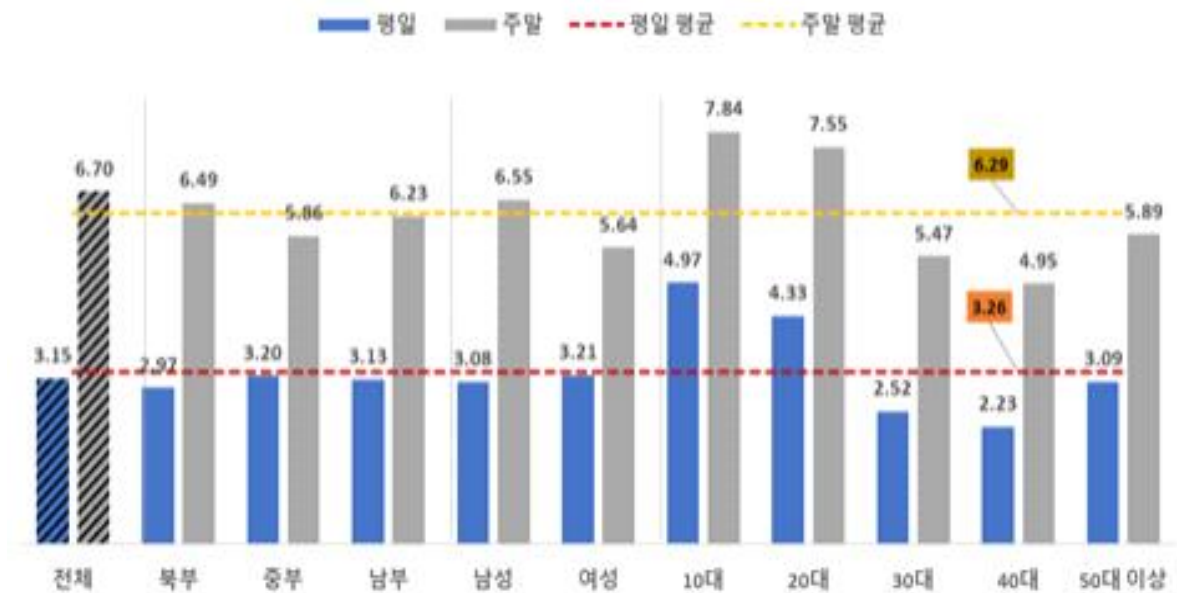
[그림 4-2] [시민] 김포시 거주기간

2)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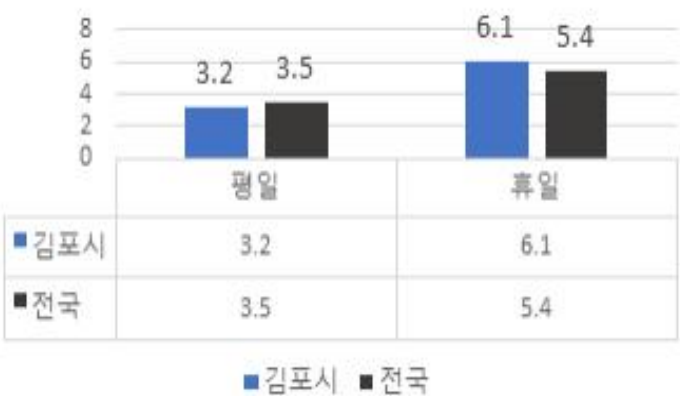
① 여가활동 실태

□ 주말 및 휴일에 주로 여가활동을 하며, 휴일 평균 여가시간은 6.1시간

- 김포시민의 여가활동은 주말·휴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말·휴일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전국(5.4시간)보다 높은 6.1시간임
- 여가시간에 대하여 충분하다고 보는 의견이 전체의 40.6%로 전반적으로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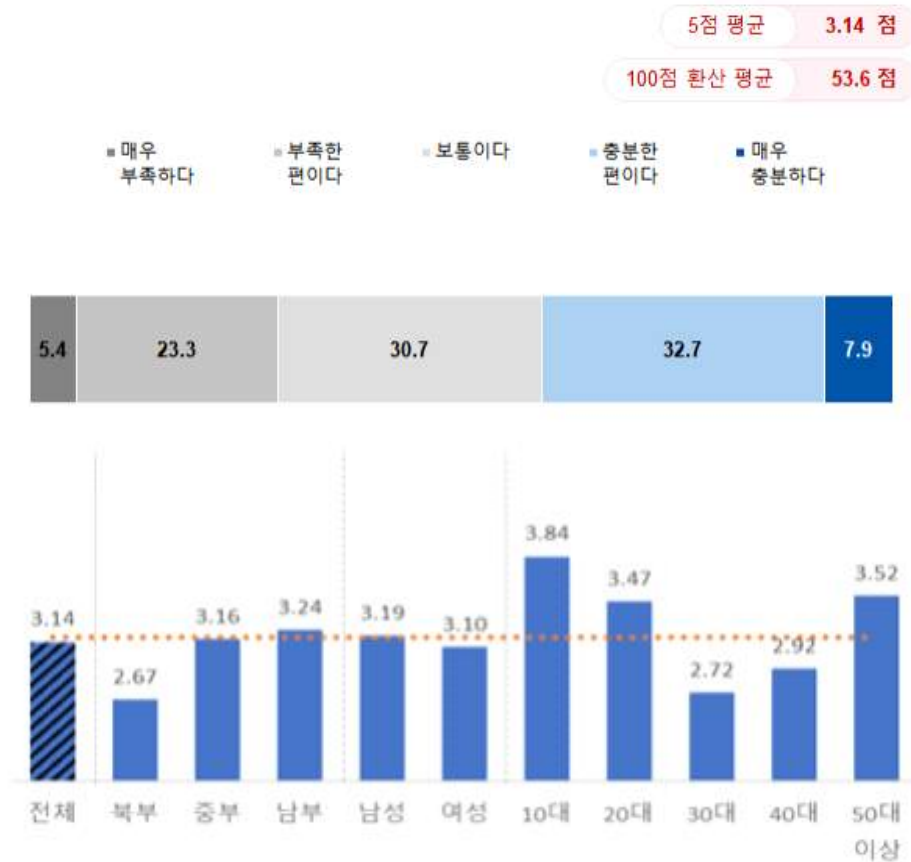
[그림 4-3] [시민] 하루 평균 여가시간 (단위: 시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그림 4-4] [시민] 하루 평균 여가시간 비교 (단위: 시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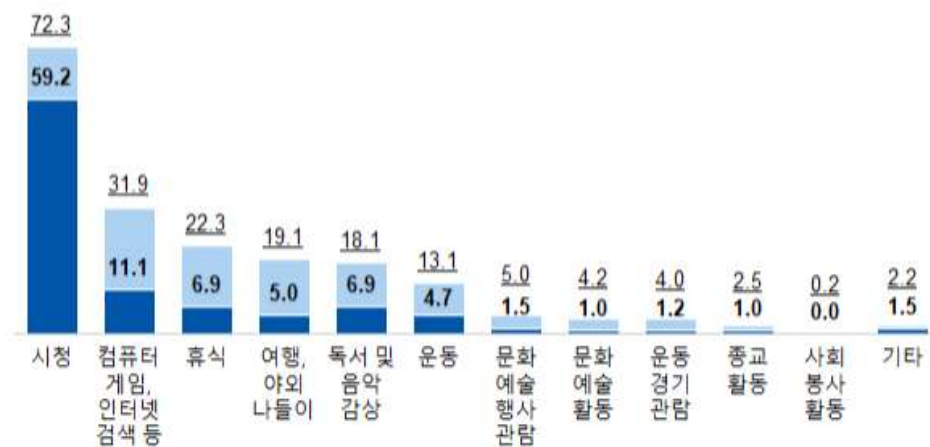
[그림 4-5] [시민] 여가시간 충분 정도

□ 가족과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는 비율이 가장 높으며, 영상물 시청 활동이 대부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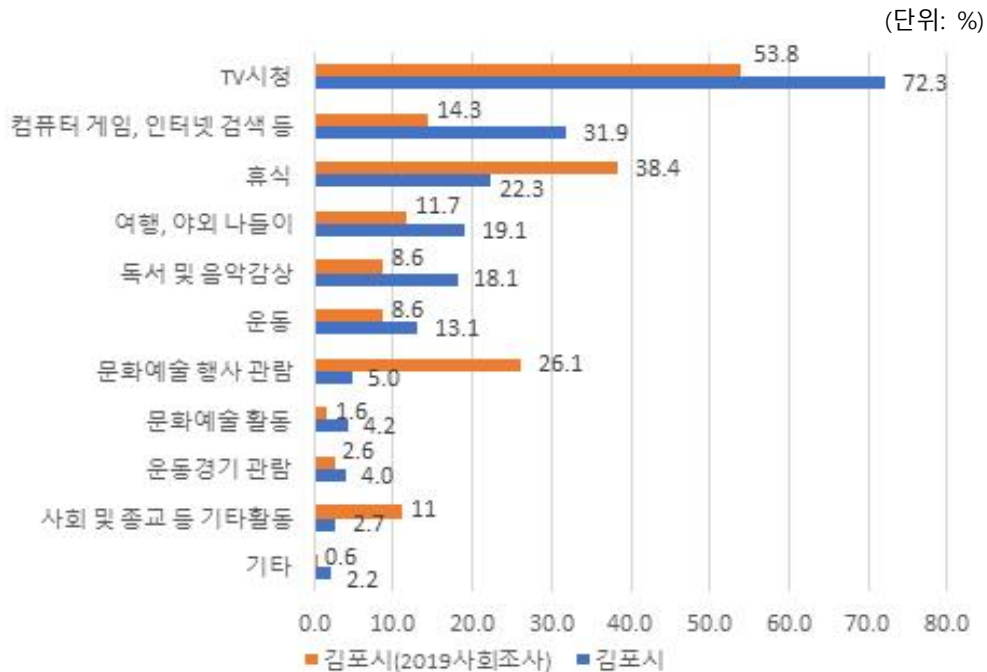
○ 1, 2순위를 통틀어 TV 등의 영상물 시청(72.3%)이 가장 주된 여가활동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 검색의 비율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31.9%)

(단위 : %)

열은색: 1+2순위, 짙은색: 1순위



[그림 4-6] [시민] 여가활동 유형



자료 : 김포시(2019), '2019 김포시 사회조사 보고서'

[그림 4-7] [시민] 여가활동 유형 (시계열 비교)

- 여가활동 동반자는 가족(43.8%, 자녀 동반 및 미동반 포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단독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경우(41.1%)도 높게 나타남
- 동반자 없이 여가활동을 즐기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에 견주었을 때, 여가 활동의 종류도 1인이 가능한 영역의 활동(영상물 시청, 인터넷 검색)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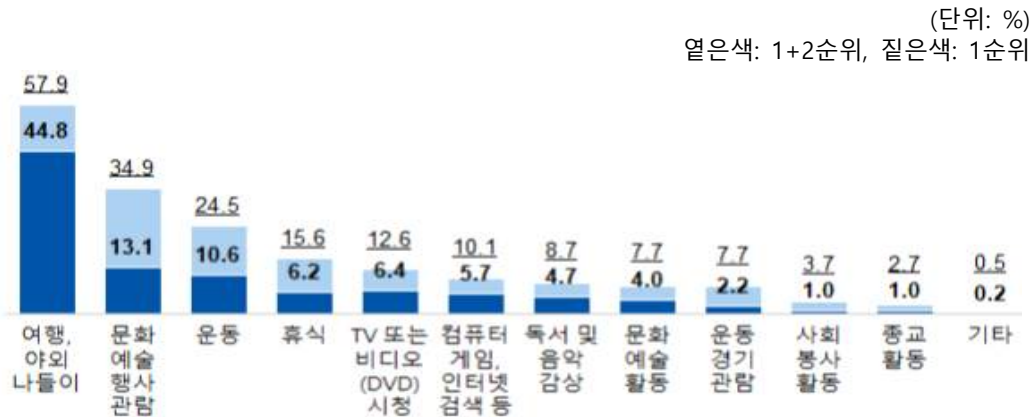
[그림 4-8] [시민] 여가활동 동반자 유형

□ 여행 및 나들이를 선호하며, 그 외에 문화예술행사 관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김포시민이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야외 나들이’ 57.9%, ‘문화예술행사 관람’ 34.9%, ‘운동’ 24.5% 순으로 나타남
- 평소에 하는 여가 활동이 대부분 개인활동으로서 영상물 시청 및 인터넷 검색에 집중

되어있었던 것에 반하여, 하고 싶은(욕구) 활동의 경우 외부 활동을 동반하는 나들이, 관람 등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코로나로 인해 제한된 문화여가활동 영역에 대한 욕구를 감안하더라도, 김포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선호’와 ‘욕구’가 현재 상황 대비 충족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 지원 등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그림 4-9] [시민]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

□ 남성보단 여성이, 북부보단 남부권이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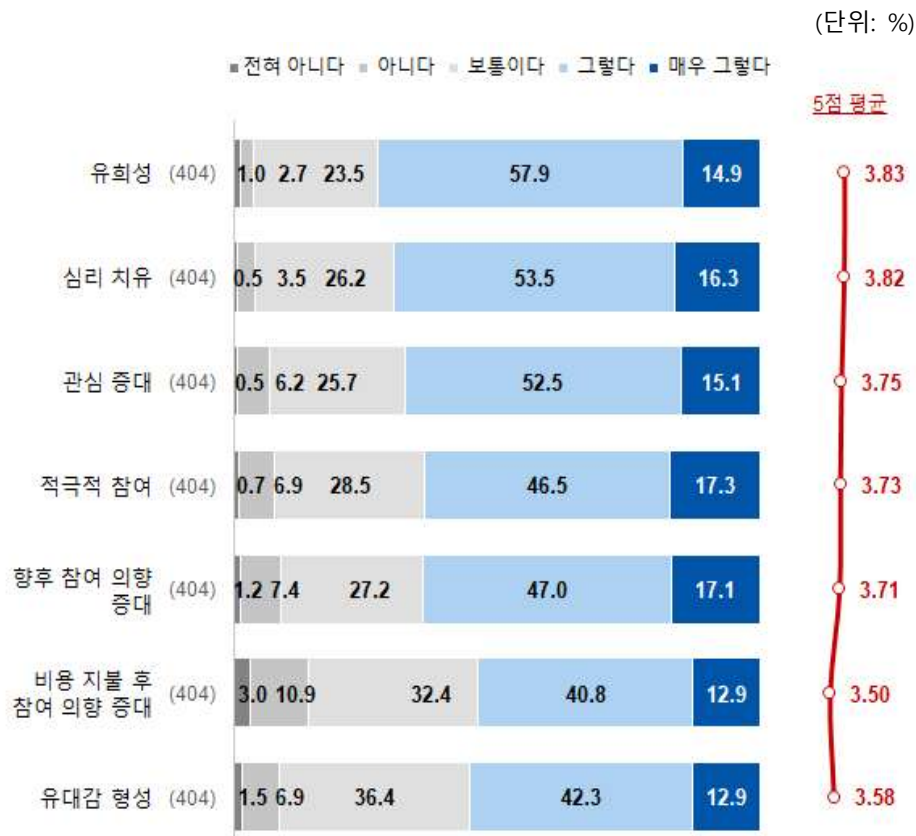
- 김포시민은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이 삶 속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71%), 남성(4.23점)보다 여성(4.30점)이 삶에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김포 시내 지역별로 중부(4.26)와 남부(4.30) 거주자의 경우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반면 북부(4.10)지역의 거주자의 경우 평균(4.26)보다 0.16p 낮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문화예술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10] [시민] 삶에서 문화예술의 중요도

□ 문화예술 활동의 가장 큰 효과로 유희성과 심리 치유 기능 선택

- 문화예술의 향유 및 창작활동의 효과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집계한 결과 ‘즐겁고 유쾌함’ 3.83, ‘심리적 치유’ 3.82, ‘문화예술 관심이 더욱 증대됨’ 3.75 등의 효과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즐겁거나 기쁜(유희적)’ 혹은 ‘불안정한 심리에 대한 치유’의 효과를 높게 꼽아, 문화예술이 감정(emotion)의 활동에 영향이 크다고 보는 것을 알 수 있음
-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반복적 참여(참여의향 증대)와 같은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으로서의 효과에 대한 의견을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그림 4-11] [시민] 문화예술 활동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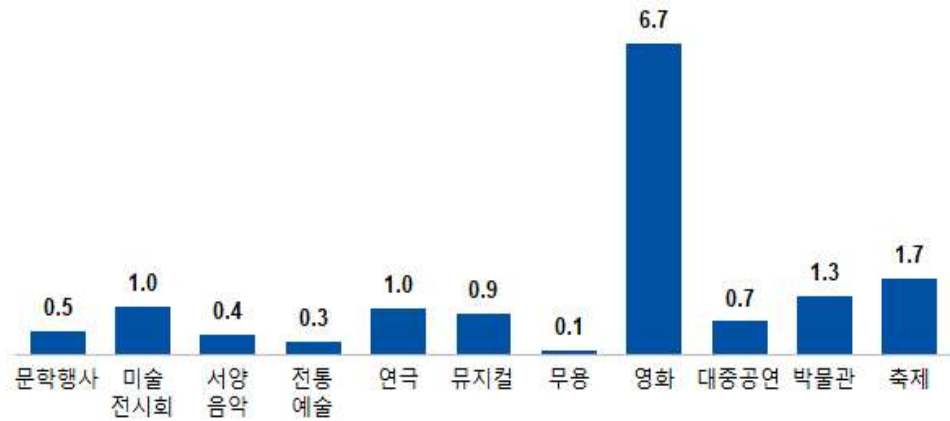
② 문화예술 향유 경험

□ 시민 대부분 문화예술 향유 경험이 있으며 영화관람이 가장 대중적인 활동인 것으로 나타남

- 김포시민 전체의 95.8%가 문화예술 향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장 많이 참여(관람)하는 문화예술 장르는 ‘영화’ 93.1%, 박물관 54.7%, 미술전시회 및 뮤지컬 관람 49.8%, 연극 46.5%, 대중공연 40.8% 순으로 나타남
- 직접 관람한 경험 중 대중공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화, 서양음악, 연극, 축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현장성을 바탕으로 이벤트를 중심으로 경험의 몰입도가 높은 활동(공연, 축제 등)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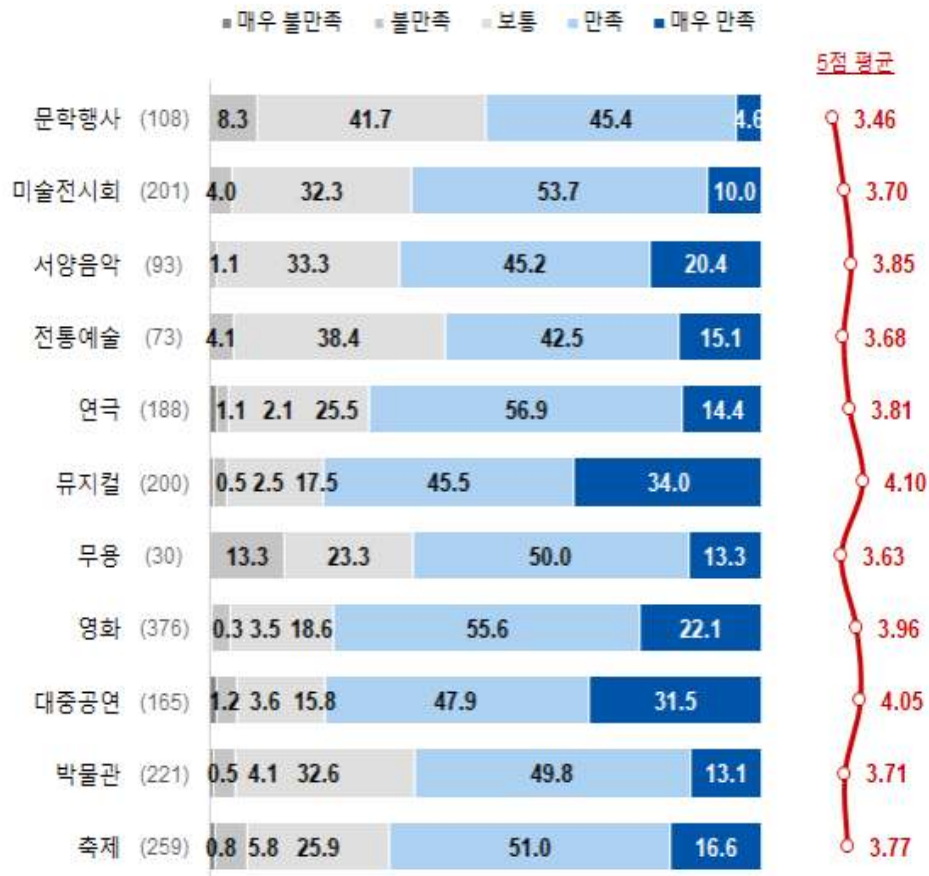
한 만족도가 타 영역 대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단위: 회)



[그림 4-12] [시민]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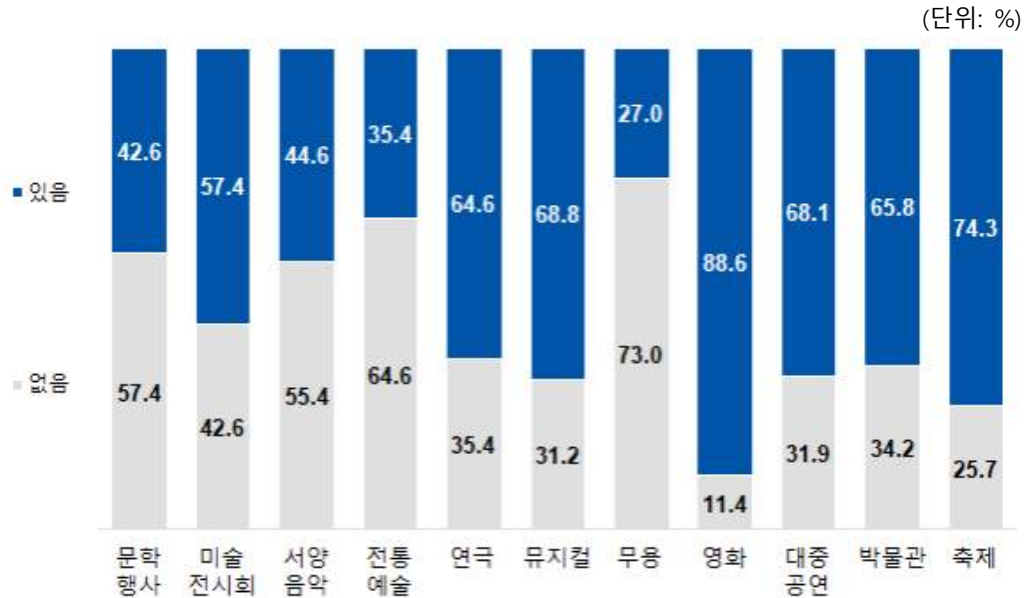


[그림 4-13] [시민]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만족도

□ 향후 1년 내 재관람 의향과 기존 관람 경험의 만족도는 정의 상관 관계를 보임

- 직접 관람 만족도가 높았던 장르(영화, 연극, 대중문화공연, 축제)일수록 재 관람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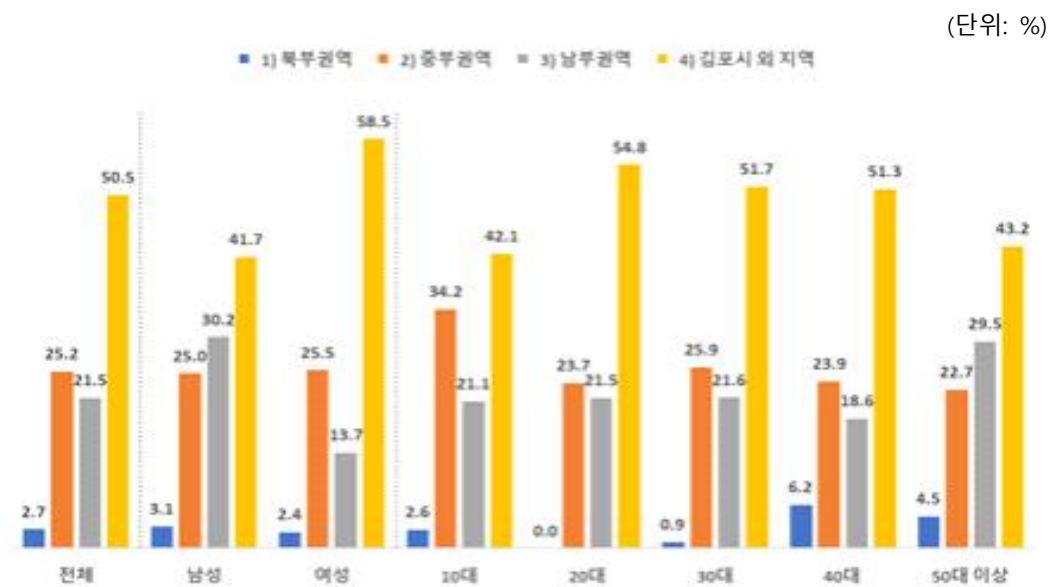
- 대중문화(뮤지컬, 대중공연, 영화)와 전통 예술 및 무용 장르에 대한 재관람 의향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시민 의견 수렴 결과만을 가지고 문화예술 지원을 할 경우 장르별 격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4-14] [시민]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의향

□ 시민의 절반 이상이 문화예술 행사 참여를 위해 지역 외부로 벗어남

-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김포시민이 직접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지역은 ‘김포시 외’ 50.5%, 김포시 49.5%로 나타남
- 김포 내의 문화예술경험은 ‘중부’ 25.2%, ‘남부’ 21.5%에서 이루어짐
- 김포시 외 지역에서 문화예술 향유활동이 이루어진 주요 동기는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타 지역에 있어서’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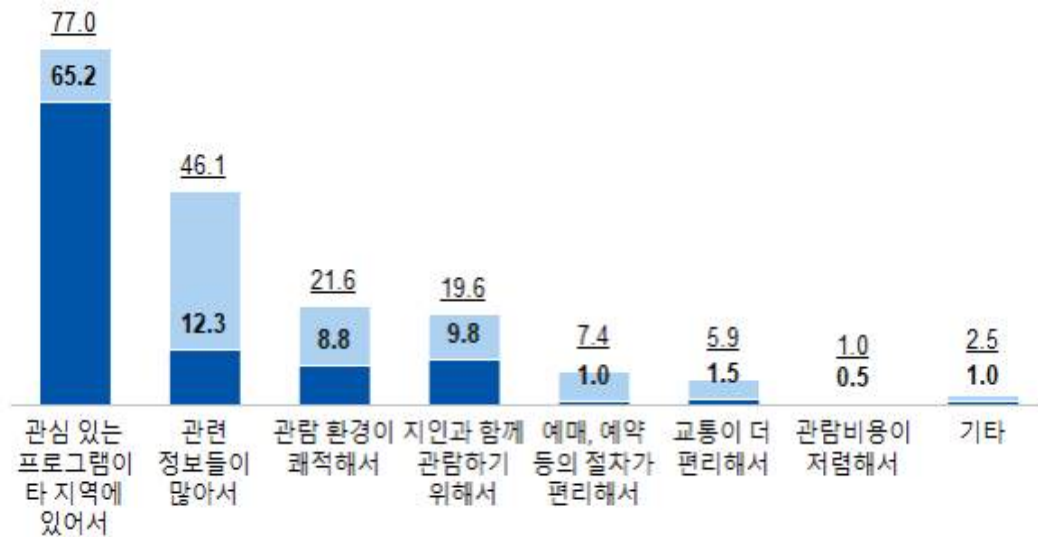


[그림 4-15] [시민]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지역

- 관람환경, 교통편의 관람비용, 예약 편의에 대한 만족이 높지 않음에도 타 지역에서의 프로그램 이용이 높은 것으로 유추했을 때, 프로그램의 선택의 다양성이 관람 지역 선택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김포가 서울과 근접해있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선호하는 프로그램 선택을 위하여 서울권으로 이동하는데 큰 불편이 없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

(단위: %)

열은색: 1+2순위, 짙은색: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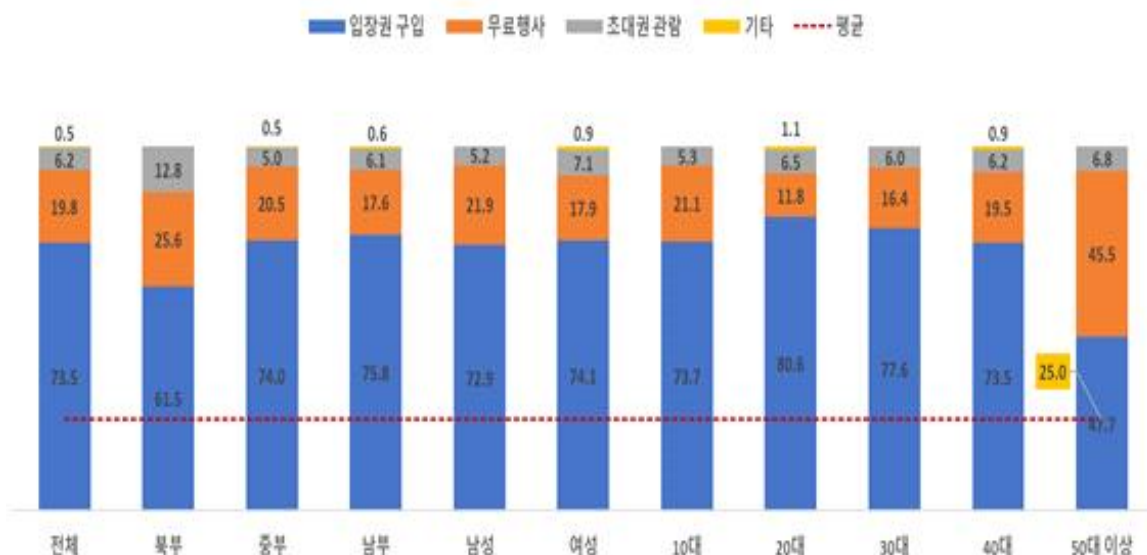


[그림 4-16] [시민] 김포시 외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이유

□ 입장권 구입 등 적극적 참여(관람) 비중이 높으나 권역별로 편차 존재

- 김포시 문화예술 향유 경험자의 73.5%가 입장권을 구입하여 문화예술행사에 참여(관람)함. 무료행사 관람률은 19.8%, 초대권을 통한 관람경험은 6.2%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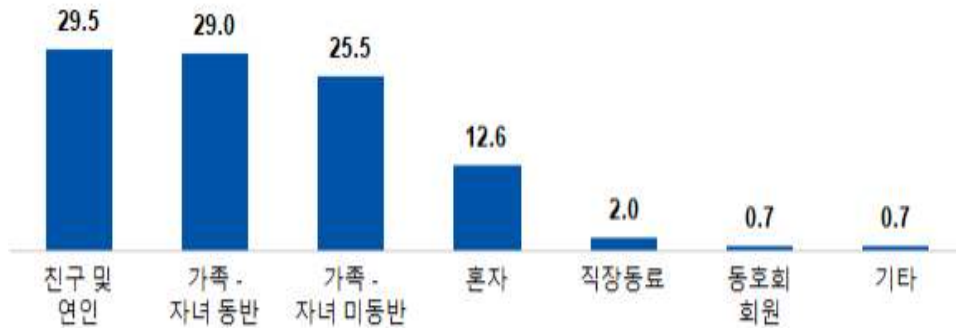
[그림 4-17] [시민]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방법

- 입장권 구매를 통한 문화예술 향유경험이 중부에서 74.0%, 남부에서 75.8%로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는 반면, 북부의 경우 61.5%가 입장권 구매 통한 문화향유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 권역별 편차를 보임

□ 문화예술 활동은 주로 ‘주말 낮’에 ‘친구 및 연인’, ‘가족’ 등과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남

- 김포시민이 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시간은 ‘주말 낮’ 68.8%, ‘주말 저녁’ 46.5%, ‘주중 저녁’ 23.8% 순으로 나타남
- 문화예술 향유활동의 동행인은 ‘친구 및 연인’ 29.5%, ‘자녀를 동반한 가족’ 29.0%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가족’ 25.5%과 ‘혼자’ 12.6%가 차순위로 나타나 김포시민의 대다수가 친구 또는 가족단위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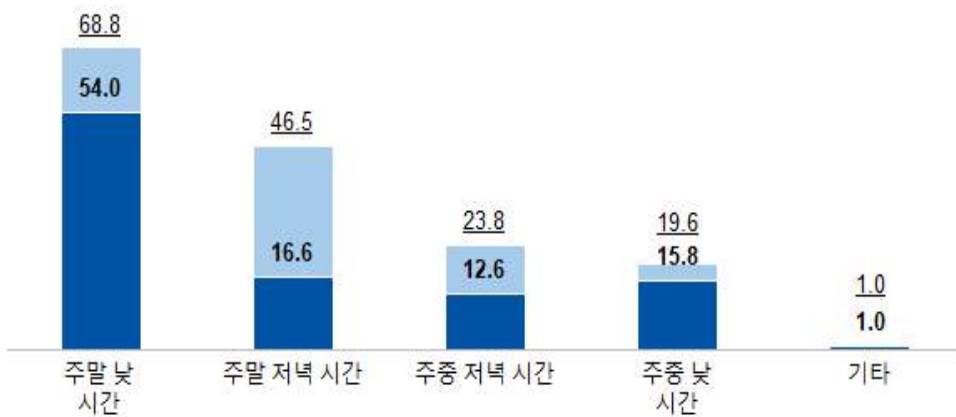
(단위: %)



[그림 4-19] [시민]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동반자 유형

(단위: %)

열은색: 1+2순위, 짙은색: 1순위



[그림 4-20] [시민]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시간대

□ 주요 정보습득 경로는 SNS, 웹사이트 등 온라인 채널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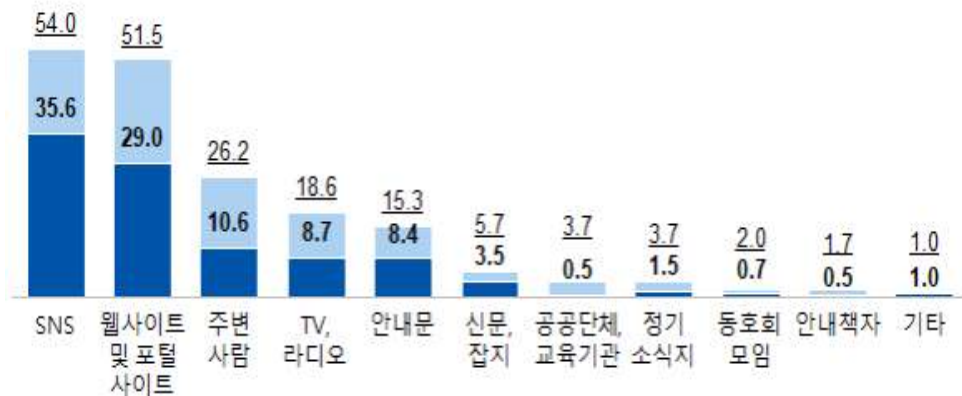
- 문화예술 정보는 주로 ‘SNS’ 54.0%,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51.5%에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주변사람’, ‘TV 및 라디오’, ‘안내문’을 통한 정보습득은 각각 26.2%, 18.6%,

15.3%으로 전통적인 방식의 홍보 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이 이전과는 달리 큰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웹을 통한 정보 접근 비율이 높다는 것을 통해 웹 접근성 및 활용 능력에 따라 관련 정보습득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김포시 문화예술행사 보완점으로 관련 정보가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정보 접근이 웹을 통해서 다수 이뤄지는 것을 반영하여 현재의 정보 전달 방식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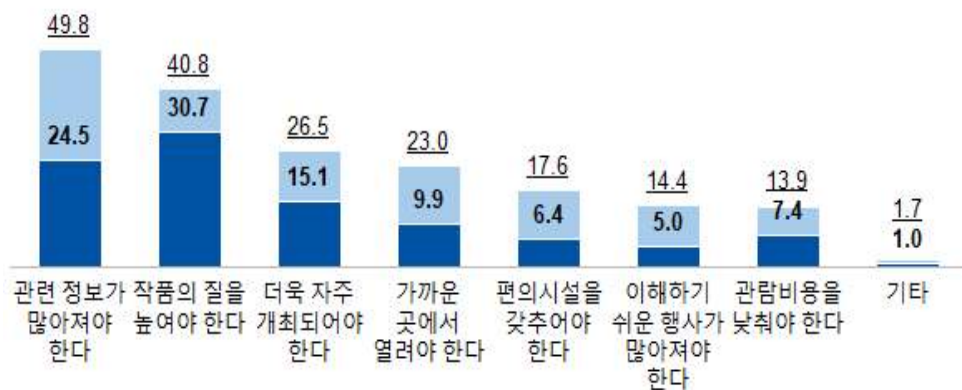
열은색: 1+2순위, 짙은색: 1순위



[그림 4-21] [시민]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관련 정보습득 경로

(단위: %)

열은색: 1+2순위, 짙은색: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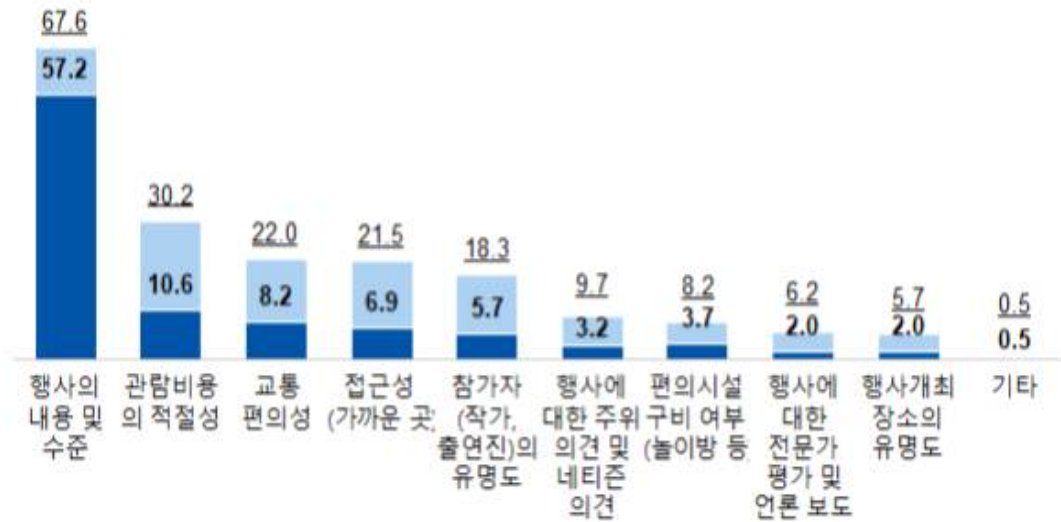


[그림 4-22] [시민] 김포시 문화예술행사 보완 필요사항

□ 문화예술행사 참여 결정 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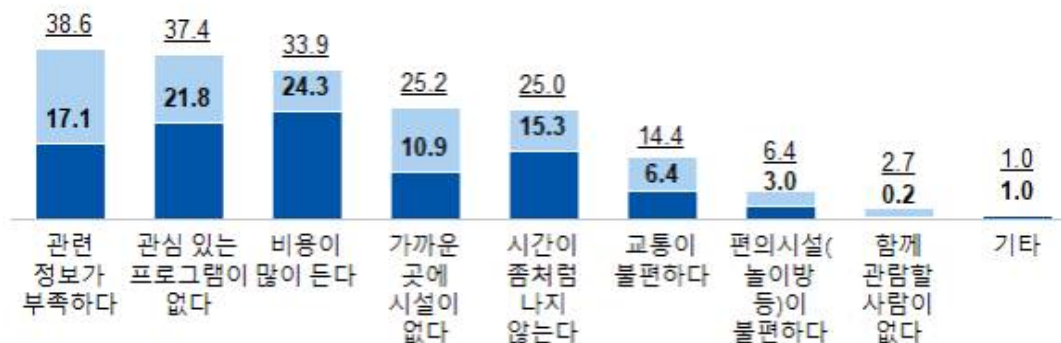
- 김포시민의 문화예술 참여(관람)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행사의 내용 및 수준’ 67.6%임이며, 이어서 ‘관람비용의 적절성’ 30.2%, ‘교통편의성’ 22.0%, ‘접근성’ 21.5% 순으로 나타남
- 참여의 제약 요인은 특히 ‘정보 부족’ 38.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차순위로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37.4%, ‘관람비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33.9%,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어서’ 25.2%가 응답됨

(단위: %)
열은색: 1+2순위, 짙은색: 1순위



[그림 4-23] [시민]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시 고려 요인

(단위: %)
열은색: 1+2순위, 짙은색: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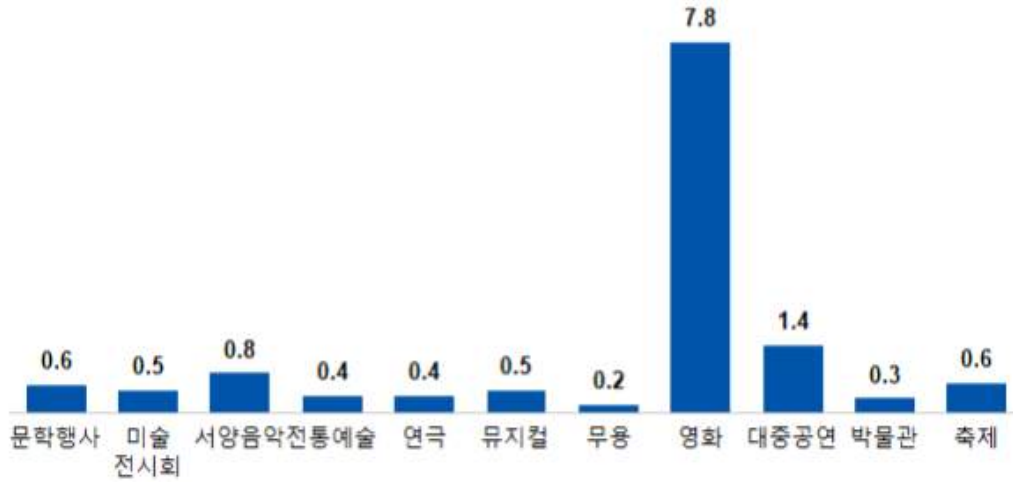


[그림 4-24] [시민] 문화예술행사 직접관람 시 제약 요인

□ 매체를 통한 문화예술 관람 경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스마트 기기의 이용률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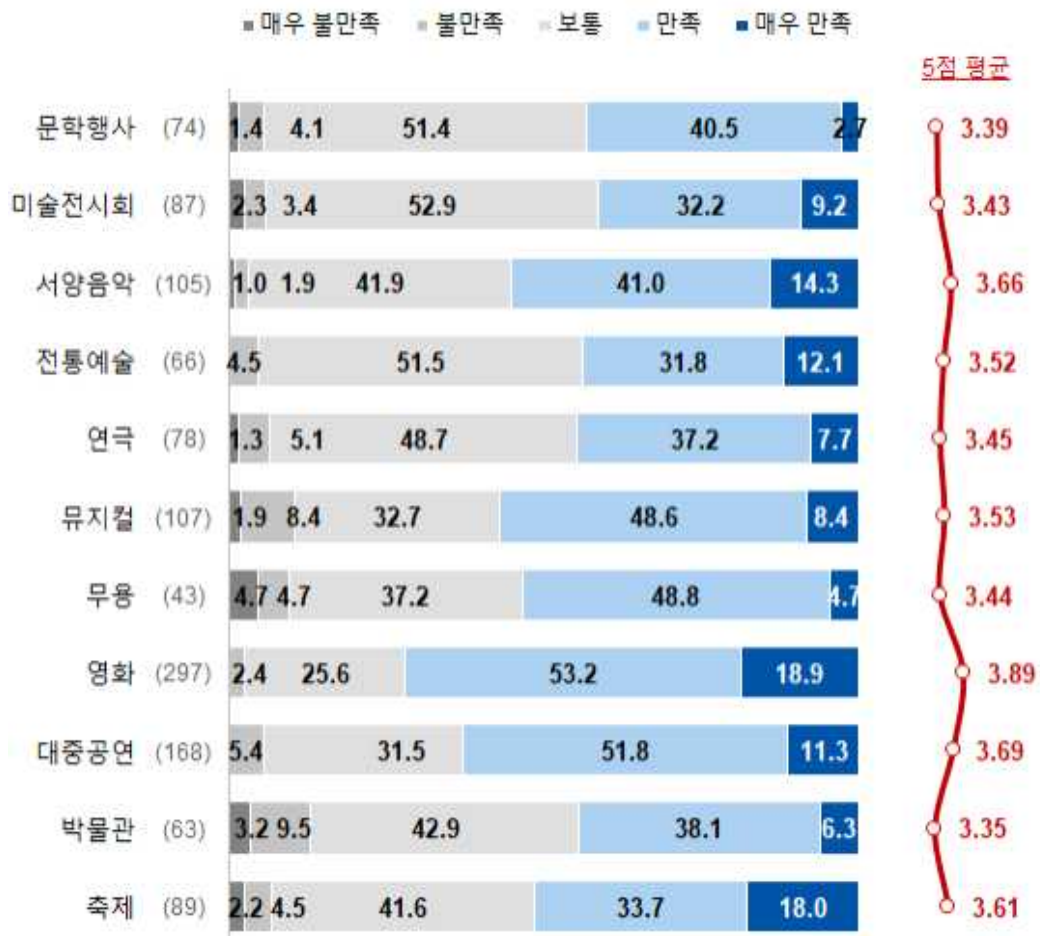
- 김포시민이 매체를 이용하여 주로 참여(관람)하는 문화예술 활동은 ‘영화’ 7.8와 ‘대중공연 1.4임(10점 만점 기준)
- 2019년 전국 조사에서 영화관람 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인구의 비율이 13.1%인 것에 비해 2020년 김포시민의 경우 전체의 54.2%가 스마트 기기를 통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집계됨
- 대중공연관람 또한 2019년 전국 조사대상의 11.3%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것에 비하여 2020년 김포시민은 전체의 53.6%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함
- 김포시민은 전국 대비 TV 사용률이 낮고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활용률이 높으며, 사용 연령대, 스마트기기 활용의 숙련도 등이 유의한 차이를 도출한 것으로 분석됨

(단위: 회)



[그림 4-25] [시민] 문화예술행사 매체관람 경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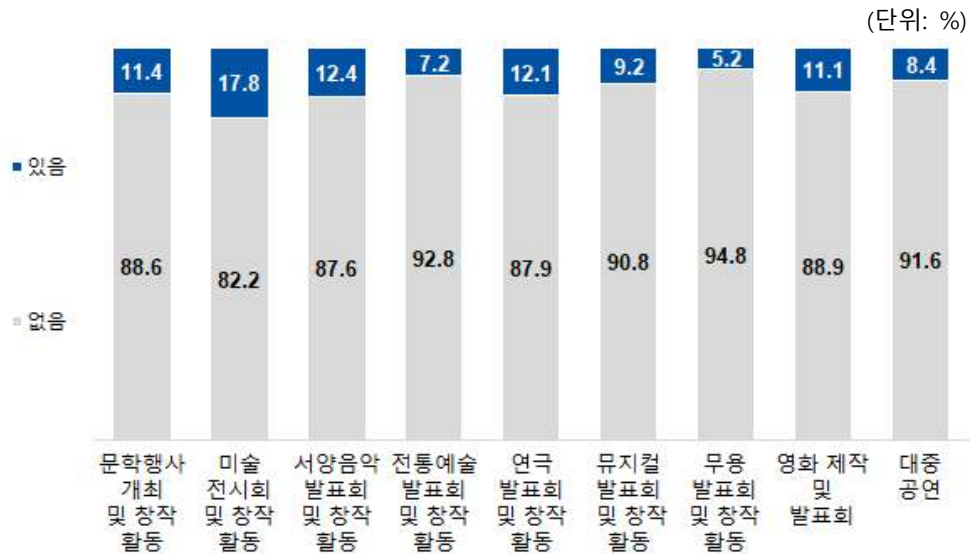


[그림 4-26] [시민] 문화예술행사 매체관람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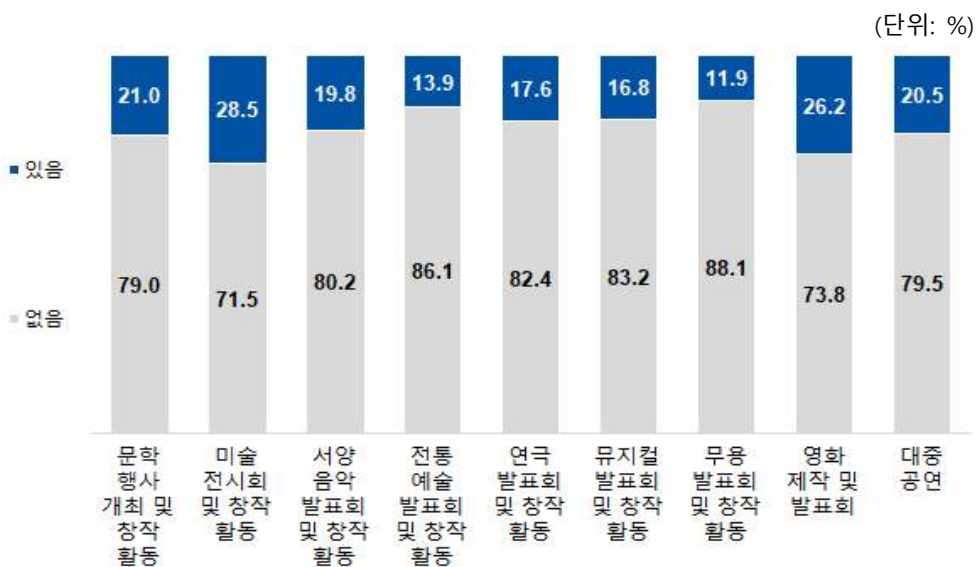
③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 경험

□ 문화예술 향유 활동 대비 창작활동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

- 문화예술 향유 경험이 90% 이상이었던 것에 비해 창작활동은 대부분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술전시회 및 창작활동’이 17.8%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양음악 발표회 및 창작활동’ 12.4%, ‘연극 발표회 및 창작활동’ 12.1% 순으로 나타남
- 유형별 만족도는 ‘서양음악 발표회 및 창작활동’이 3.88점으로 가장 높고, ‘뮤지컬 발표회 및 창작활동’ 3.86, ‘영화제작 및 발표회’ 3.84의 만족도가 차순위로 나타남
- 재참여 의사가 높은 문화예술 창작활동은 ‘영화 제작 및 발표회’ 26.2%, ‘미술 전시회 및 창작활동’ 28.5%, ‘문학행사 개최 및 창작활동’ 21.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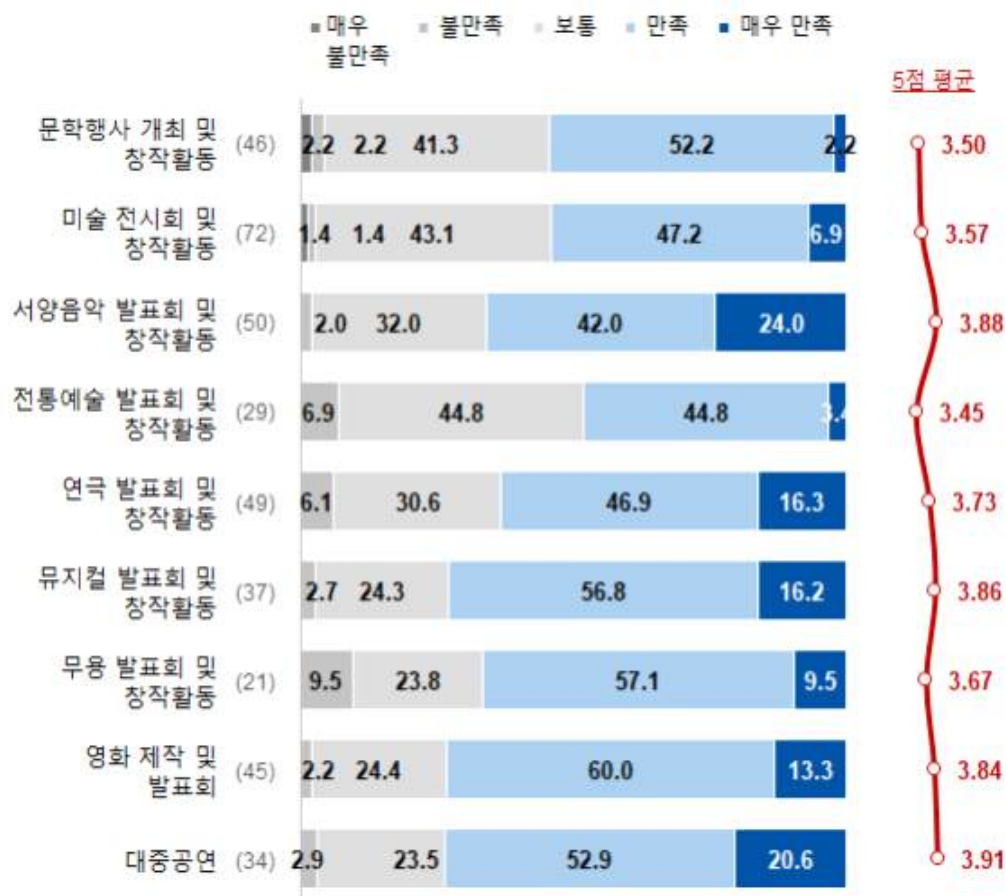


[그림 4-27] [시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 경험



[그림 4-28] [시민] 향후 1년 이내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 의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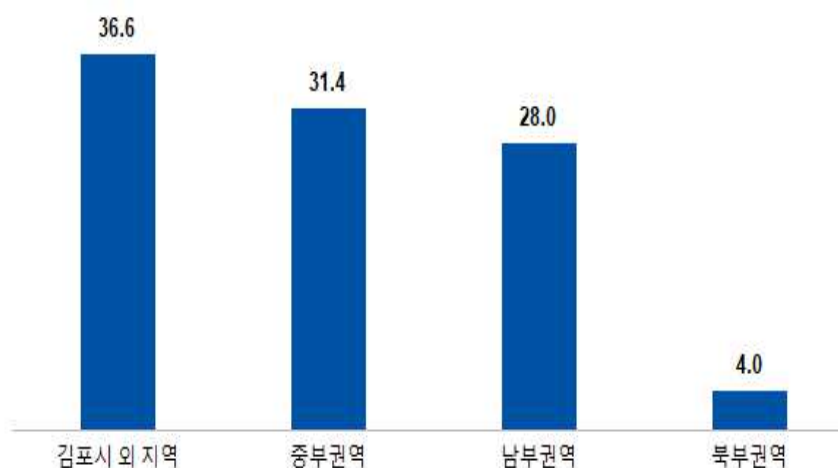


[그림 4-29] [시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 만족도

□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를 김포 지역 외에서 경험하는 경우가 약 37% 수준

- 김포시민의 36.6%가 김포시 외 지역에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에 참여하며, 김포 내의 참여가 많은 지역은 ‘중부’ 31.4%, ‘남부’ 28.0%, ‘북부’ 4.0%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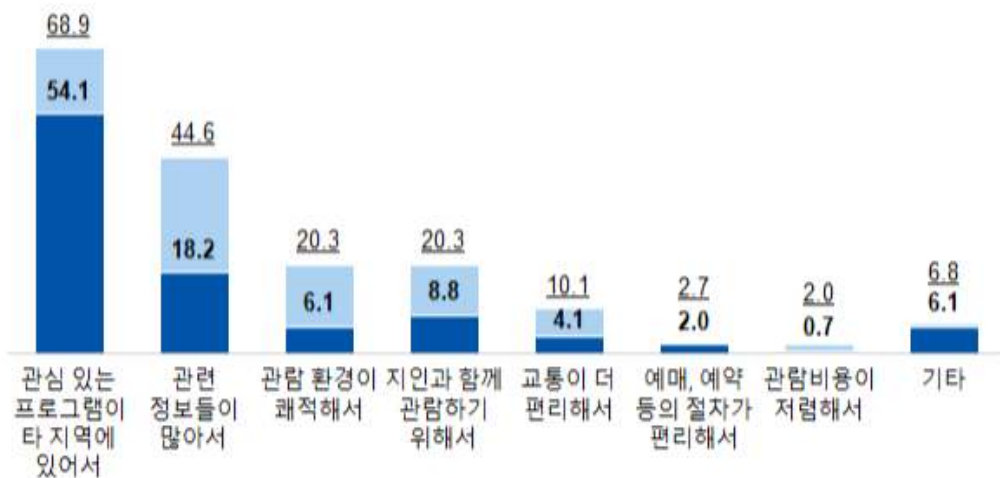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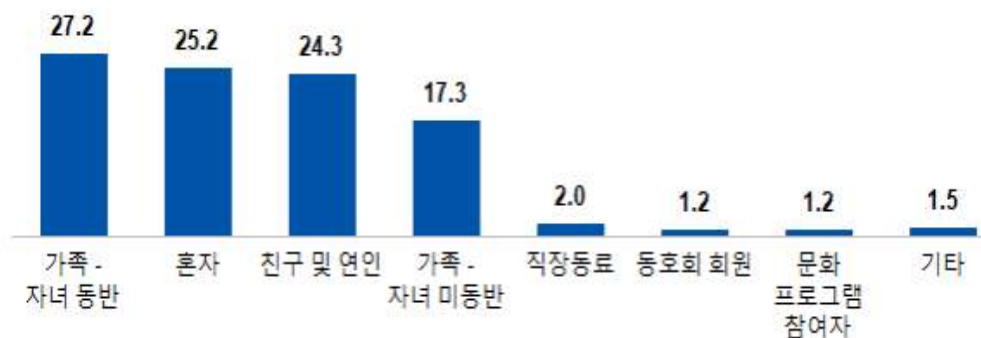
[그림 4-30] [시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 지역

- 김포시 외 지역에서 참여하는 이유에 대하여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타 지역에서 있어서’ 68.9%, ‘관련 정보들이 많아서’ 44.6%, ‘환경이 쾌적해서’ 20.3%가 주요 요인으로 응답되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참여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참여 시 동반자는 ‘가족(자녀동반)’ 27.2%, ‘혼자’ 25.2%, ‘친구 및 연인’ 24.3%로 나타나 2019년 전국조사에서 ‘친구’ 34.9%가 동반자 비중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과 차이를 보임
- 이와 같은 변화는 가족 단위 인구 유입 증가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측되며 김포지역의 아동·청소년·가족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 관련 정보습득 경로를 살펴보면 SNS(52.7%)와 웹사이트(46.5%)가 가장 많으며, 이어서 주변 사람(26.0%), TV/라디오(15.8%), 안내문(14.6%) 순으로 나타나 온라인 홍보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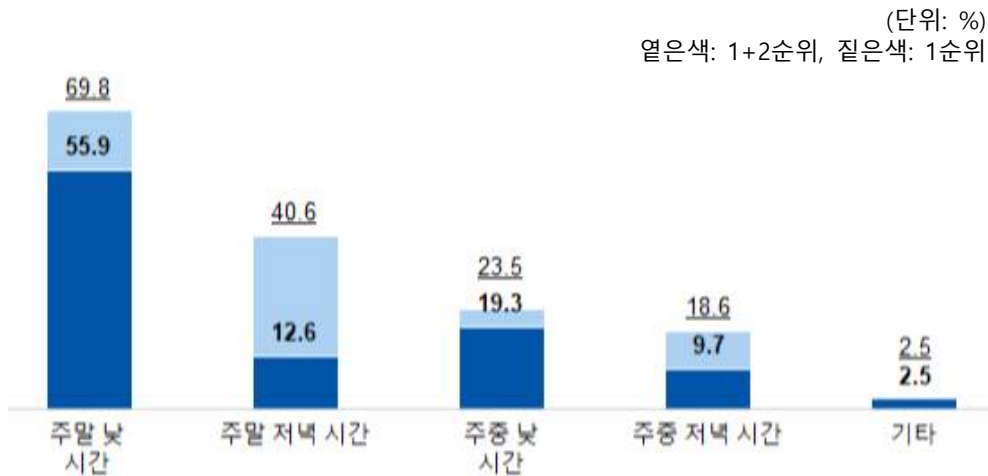
(단위: %)
열은색: 1+2순위, 짙은색: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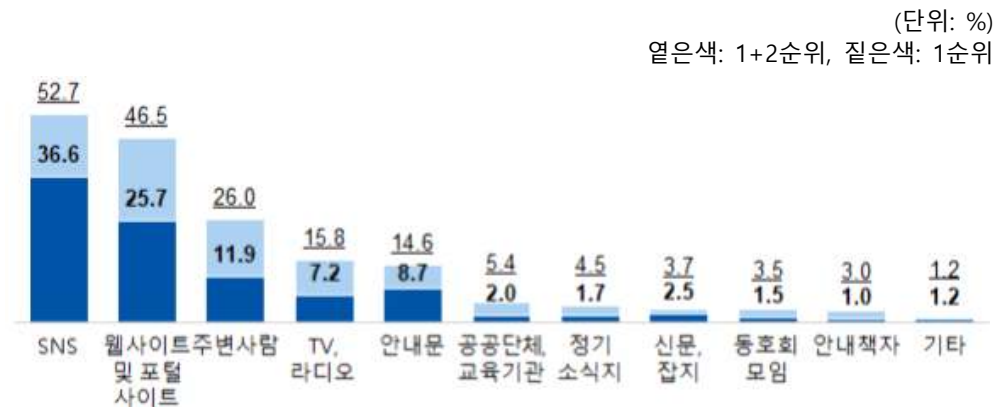
[그림 4-31] [시민] 김포시 외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 이유
(단위: %)



[그림 4-32] [시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 동반자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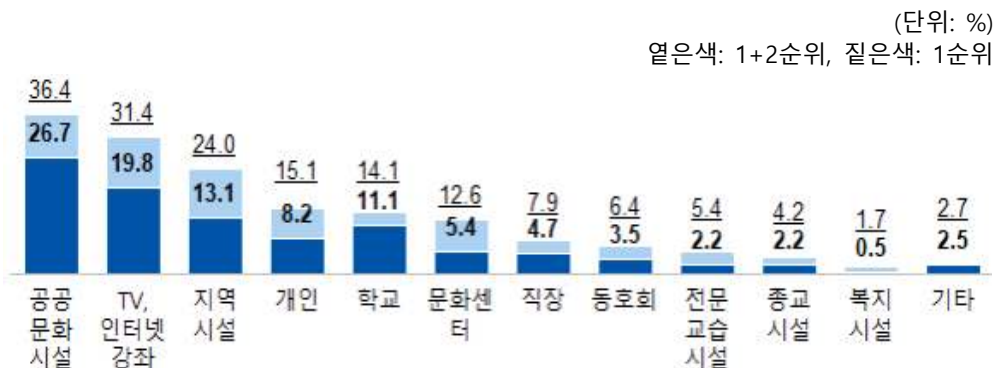
[그림 4-33] [시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 시간대



[그림 4-34] [시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 관련 정보습득 경로

□ 공공문화시설과 TV, 인터넷 강좌를 통한 활동 비율이 가장 높음

- 김포시민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 채널은 ‘공공 문화시설’ 36.4%, ‘TV 및 인터넷 강좌’ 31.4%, ‘지역시설’ 24.0% 순임
- 향후 참여의향이 있는 장소 또한 ‘공공 문화시설’ 43.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활동 수요를 수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중요성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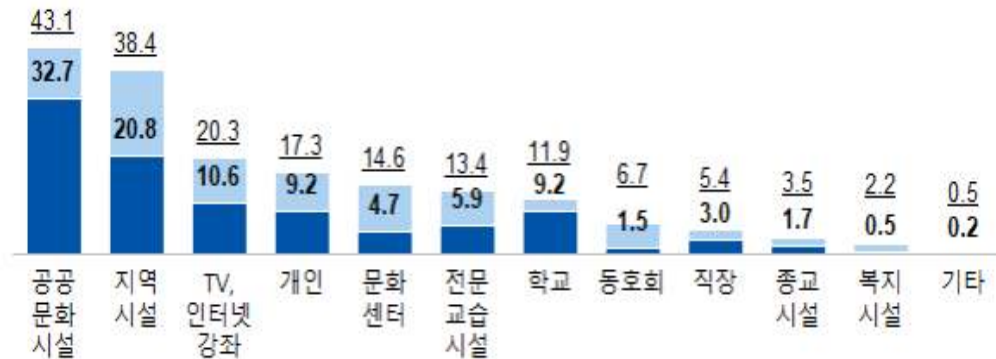
[그림 4-35] [시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 채널

□ 향후 가장 원하는 활동 채널은 공공문화시설과 지역 문화시설

- 기존의 창작활동의 주요 활동 공간인 공공문화시설과 지역시설 이용에 대한 향후 참여 의향이 높게 나타남
- 현재 문화예술활동 참여에 있어 인터넷 이용이 높았던 것에 비하여 향후 이용에 대한 의견은 81% 이상 대면 형식(시설방문 및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열은색: 1+2순위, 짙은색: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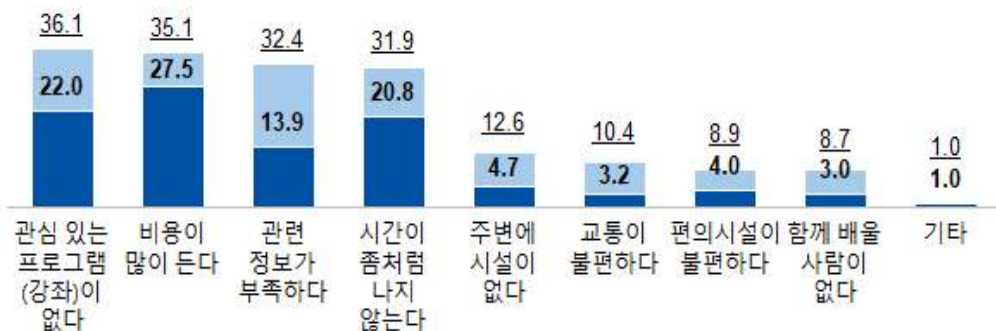
[그림 4-36] [시민] 향후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 시 원하는 채널

□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관심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

-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의 제약요인으로 응답된 것은 ‘관심 있는 프로그램(강좌)이 없다’ 36.1%, ‘비용이 많이 든다’ 35.1%,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32.4%, ‘여가시간이 부족하다’ 31.9% 순임
- 특히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관심 있는 프로그램(강좌)이 없다’ 36.1%는 김포 전체 생활권역에서 고르게 주요 제약 요인으로 나타남

(단위: %)

열은색: 1+2순위, 짙은색: 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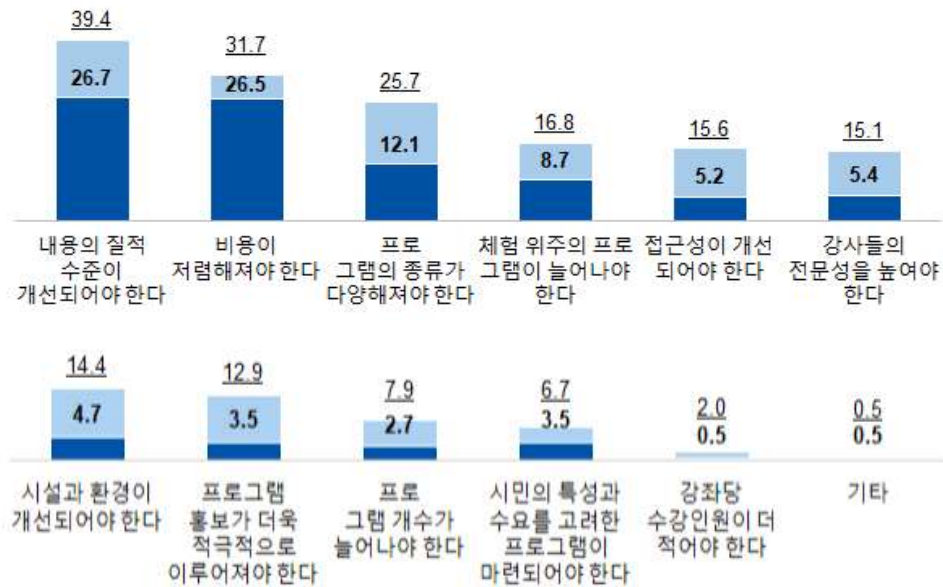


[그림 4-37] [시민]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참여 시 제약 요인

□ 김포시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의 질적 개선 및 다양성 확보가 가장 시급

- 2019년 김포시 사회조사 결과에서 ‘장르 다양성의 증진’ 67.2%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나타난 것과 다르게 2020년 설문조사 결과 ‘관련 정보가 많아져야 한다’ 49.8%,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40.8%가 주요 개선사항으로 응답됨

(단위: %)
 옅은색: 1+2순위, 짙은색: 1순위



[그림 4-38] [시민] 김포시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환경 보완 필요사항

- 전국 수준과 비교하여 김포시 문화예술작품의 질과 관련정보제공 수준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음
- ‘기존보다 더욱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와 ‘가까운 곳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26.5%, 23.0%를 차지하여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예술행사에 접할 수 있는 접근성을 보완점으로 꼽음

(단위: %)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 문화예술 활동 조사'

[그림 4-39]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 환경 보완 필요사항(전국)

④ 김포시 문화환경 관련 의견

□ 김포시민은 김포시의 문화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 이하’라고 인식

- 김포시민은 김포시의 문화환경을 ‘열악’ 41.3%, ‘보통’ 43.8%, ‘우수’ 14.9% 라고 평가해, 전반적 인식이 저조함을 나타냄
- 김포시 문화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전체 평균 만족도는 2.68점이며 북부(2.51)보다 중부(2.73) 및 남부(2.67), 여성(2.60)보다 남성(2.77), 전체 평균 이하인 30대 이상의 점수보다 10대(3.08)와 20대(2.85)의 만족도가 높음
- 이처럼 ‘지역 문화환경에 대한 낮은 시민 인식’과 ‘김포시 주변 지역의 우수한 문화환경’이라는 옵션이 만나게 됨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활동 인구의 외부유출로 이어지게 됨



[그림 4-40] [시민] 김포시민이 인식하는 지역 문화환경 수준



[그림 4-41] [시민] 김포시민이 인식하는 지역 문화환경 수준 비교

□ 지역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문화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 ‘문화프로그램 확대 및 다양화’ 35.1%, ‘문화기반시설 확충’ 33.7%,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32.9% 순으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응답됨
- 2019년 김포시 사회조사 결과 또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다양화’ 25.1%, ‘문화공간 조성’ 21.2%, ‘지역행사 축제 개최’ 15.6%로 유사한 양상을 보임
- 요컨대 김포시 지역 내에서 제한적 문화예술 경험만 가능하다는 것은 시민의 향유경험 부족을 의미하며, 향유경험 부족은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감성) 부족, 나아가 지역민의 문화예술 수요 축소(소멸)로 이어지게 돼, 지역 문화예술 발전 동력의 상실이라는 결과

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김포시는 지역 전반의 기초 문화여건 조성 및 문화역량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일정 수준 도달 이후 지역별 특화, 대상별 특화 등의 부수적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함

(단위: %)



[그림 4-43] [시민] 김포시 문화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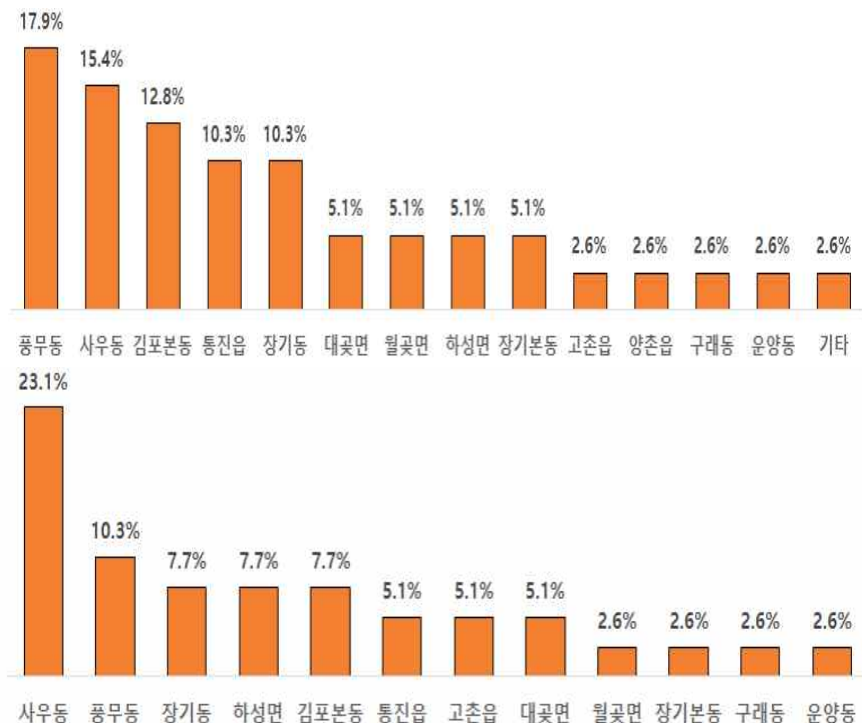
3. 창작자 의견수렴 결과

1) 응답자 특성

- 전체 응답자 39명 중 ‘남성’ 17명(43.6%), ‘여성’ 22명(56.4%)으로 여성의 비중 높고, ‘50세~60세 미만’ 41.0%의 응답자가 다수를 차지하며, 응답한 예술가의 약 90%가 40세 이상임
- 창작자 거주지는 ‘풍무동’ 17.9%, ‘사우동’ 15.4% 순으로 높게 나타나며, 활동지는 ‘사우동’ 23.1%, ‘풍무동’ 10.3%로 거주지와 유사함
 - ‘풍무동’과 ‘사우동’은 김포 중부 원도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포문화재단 및 김포문화원과 같은 지역문화예술기관과 접근성이 높은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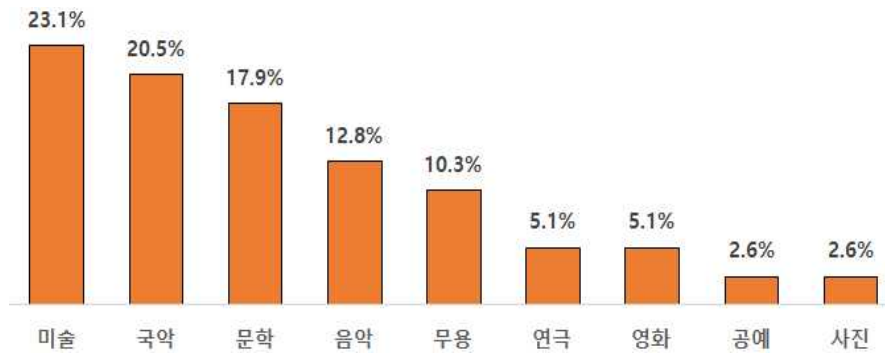


[그림 4-44] [창작자] 성별(좌) 및 연령(우)



[그림 4-45] [창작자] 거주지역(위) 및 활동지역(아래)

- 김포시 창작자들의 활동기간은 ‘20년~30년 미만’ 28.2%, ‘30년 이상’ 25.6%, ‘10년~20년 미만’ 23.1%, ‘5년~10년 미만’ 12.8%, ‘1년~5년 미만’ 10.3% 순으로 응답
-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가 23.1%로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국악’ 20.5%, ‘문학’ 17.9%가 높은 응답으로 나타남
- 응답자 중 ‘대중음악’, ‘방송연예’, ‘만화’ 등 젊은 층이 즐겨 향유하는 대중예술분야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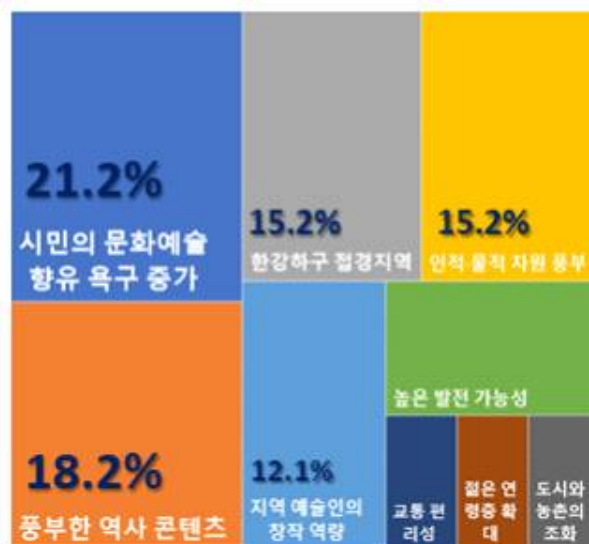


[그림 4-46] [창작자] 활동 분야

2) 조사 결과

□ 김포시 문화예술의 최대 강점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와 ‘풍부한 역사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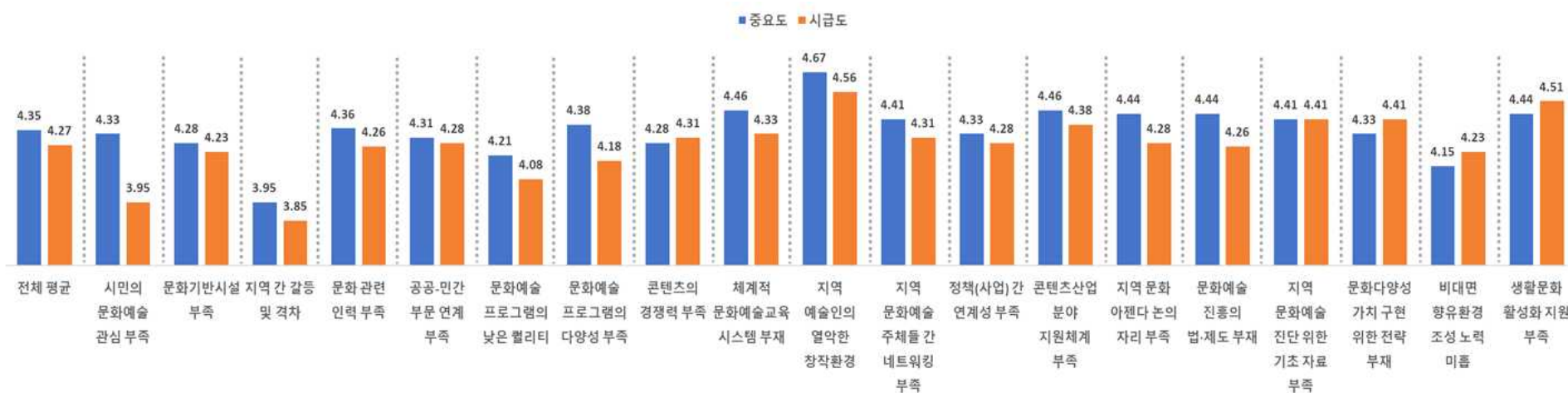
- 지역 예술인들이 생각하는 김포시 문화예술의 최대 강점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증가’ (21.2%)와 ‘풍부한 역사 콘텐츠(18.2%)’ 로 나타남
- ‘한강하구 접경지역’ 과 ‘인적·물적 자원 풍부’ 라고 응답한 인원은 각각 전체의 15.2%로 집계되었으며, 이어서 지역예술인의 창작 역량 등이 언급됨



[그림 4-47] [창작자] 김포시 문화예술의 강점

□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로 ‘창작 안전망 구축’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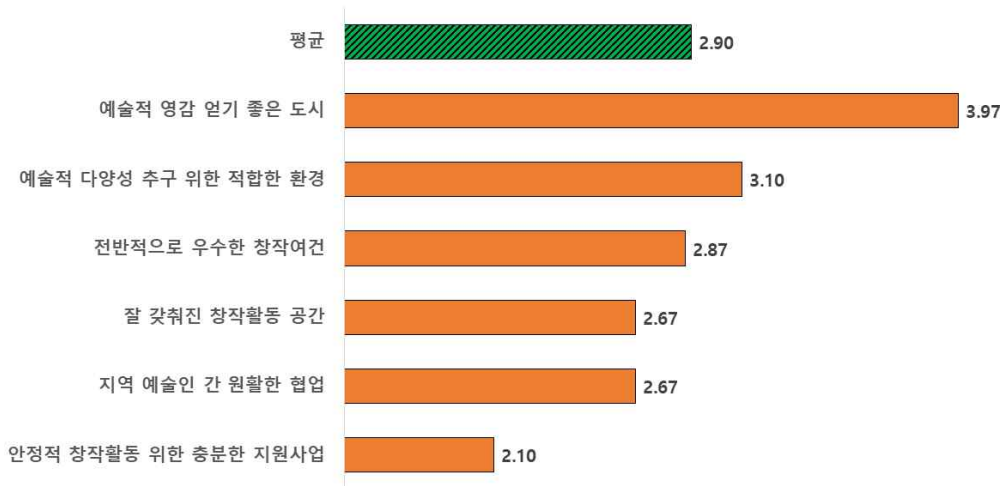
- 지역 창작자들은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역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 (4.67점), ‘콘텐츠 산업 분야 지원체계 개선’ (4.46점), ‘지역 문화 아젠다 논의 자리 부족’ (4.44점), ‘문화예술 진흥의 법/제도 보완’ (4.44점),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부족’ (4.44점) 등을 제시함
- 한편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역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환경 개선’ (4.56점)이 꼽혀 중요도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어서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부족’ (4.51점), ‘문화다양성 가치 구현 전략 부재’ (4.41점), ‘지역 문화예술 진단 위한 기초 자료 부족’ (4.41점)으로 조사됨
- 위와 같은 결과는 응답자 집단이 창작자인만큼 스스로의 권익보호와 활동 진흥을 위한 조치로 ‘창작안전망 구축’을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또 중요도와 시급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역 문화예술 진단 위한 기초자료 부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임



[그림 4-48] [창작자]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과제 (단위: 점)

□ 예술가들에게 김포시는 예술적 영감을 얻기 좋은 도시이자 다양성을 추구하기 적합한 환경

- 지역 예술인들에게 김포시는 ‘예술적 영감을 얻기 좋은 도시’ (3.97점)이자, ‘예술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적합한 환경’ (3.10점)으로 인식됨
-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충분한 지원사업’ 부문은 2.10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지역 예술인 간 원활한 협업’ 이나 ‘잘 갖춰진 창작활동 공간’ 부문은 각각 2.67점으로 낮은 편임



[그림 4-49] [창작자] 김포시 문화예술 창작환경 평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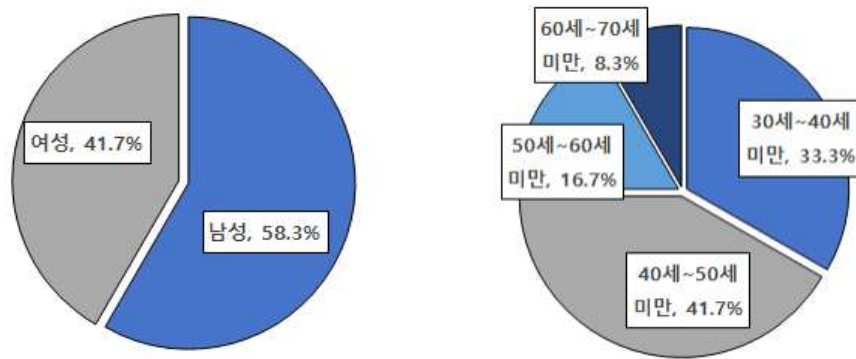
□ 창작자로서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예술역량 강화, 시민 연대 등의 역할 고민

- 지역 창작자들은 김포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책적 개선,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태도 개선, 민-관 네트워크 확대, 문화격차 해소 등을 꼽음
- 한편 창작자로서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창작자로서 예술역량 강화’, ‘시민과 연대하는 예술활동 확대’, ‘문화예술정책 의견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함

4. 매개자 의견수렴 결과

1) 응답자 특성

- 전체 응답자 12명 가운데 ‘남성’ 이 7명(58.3%), 여성이 4명(41.7%)임
- 연령은 ‘40세~50세 미만’ 이 4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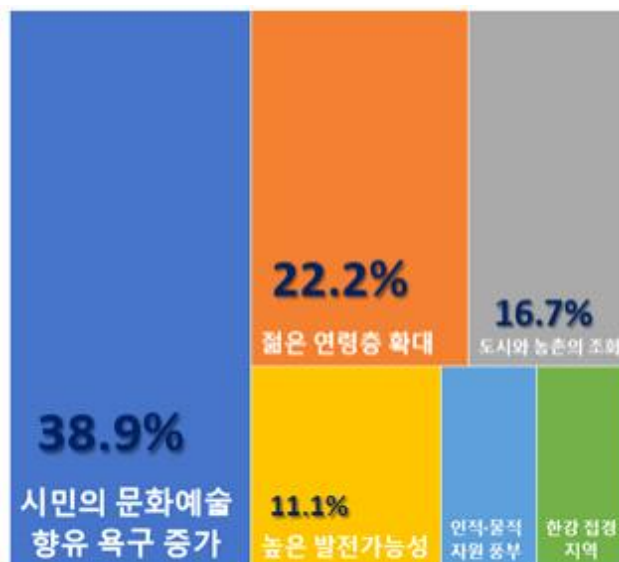


[그림 4-50] [매개자] 성별(좌) 및 연령(우)

2) 조사 결과

□ 매개자들이 생각하는 김포시 문화예술의 최대 강점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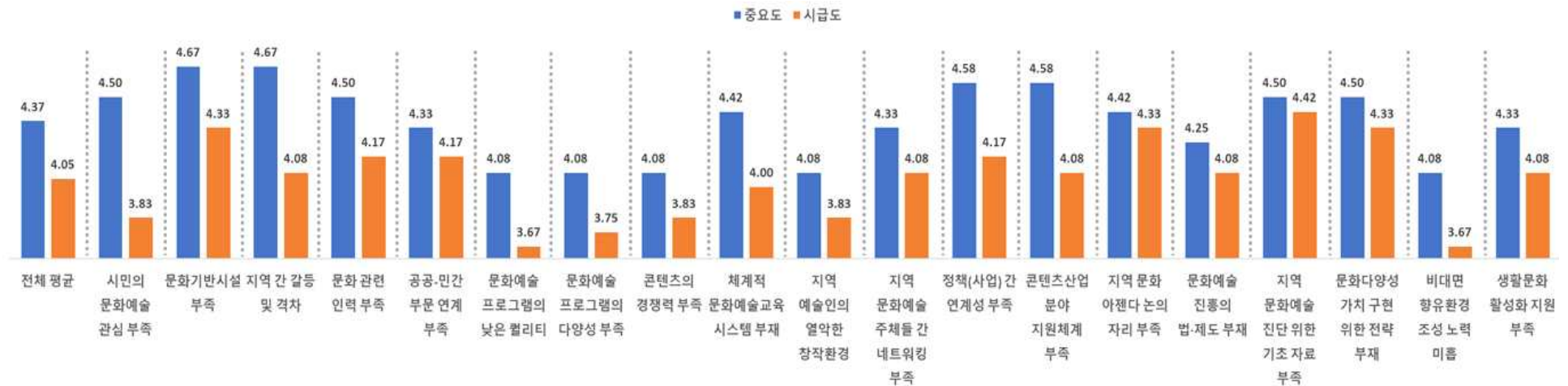
- 매개자들이 생각하는 김포시 문화예술의 최대 강점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증가’ (38.9%)와 ‘젊은 연령층 확대(22.2%)’ 로 나타남
- 이어서 ‘도시와 농촌의 조화’ (16.7%)와 ‘높은 발전 가능성’ (11.1%) 등 주로 도시특성 및 도시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높은 가능성을 엿보고 있음



[그림 4-51] [매개자] 김포시 문화예술의 강점

□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로 ‘기초자료 확보’,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 제시

- 지역 매개자들은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문화기반시설 부족’ (4.67점), ‘지역 간 갈등 및 격차’ (4.67점), ‘정책사업 간 연계성 부족’ (4.58점), ‘콘텐츠 산업 분야 지원체계 부족’ (4.58점) 등을 꼽음
- 한편 가장 시급한 과제의 경우 ‘지역 문화예술 진단 위한 기초 자료 부족’ (4.42점)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지역문화 아젠다 논의 자리 부족’, ‘문화다양성 가치 구현 전략 부재’, ‘문화기반시설 부족’ 등이 각각 4.33점으로 집계됨
- 매개자는 지역 문화예술 정책사업들을 집행하고 현장(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위치이기에 창작자 조사결과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임. 즉 적절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기초자료의 부재 문제, 인구 수 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화기반시설 수 문제, 원활한 정책추진을 가로 막는 지역 간 갈등 문제 등이 지역의 주요 이슈로 인식되고 있는 것임.



[그림 4-52] [매개자]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과제 (단위: 점)

□ 매개자들은 소속기관 임직원들이 지역문화 매개자로서 사명감이 강한 편으로 평가

- 매개자들이 소속된 기관의 근무환경을 평가한 결과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3.70점을 기록했으며, ‘임직원의 지역문화 매개자로서 사명감’이 4.0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적정 수준의 평균 근무시간’과 ‘쾌적한 업무수행 환경’, ‘효율적 업무분담’이 각각 3.83점으로 뒤를 이음
- 반면 ‘적절한 급여 및 복리후생’ 부문은 3.33점으로 전체 중 가장 낮았으며,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소통’(3.50점)이나 ‘효율적 업무 소통체계’(3.58점) 부문도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그림 4-53] [매개자] 소속기관 근무환경 평가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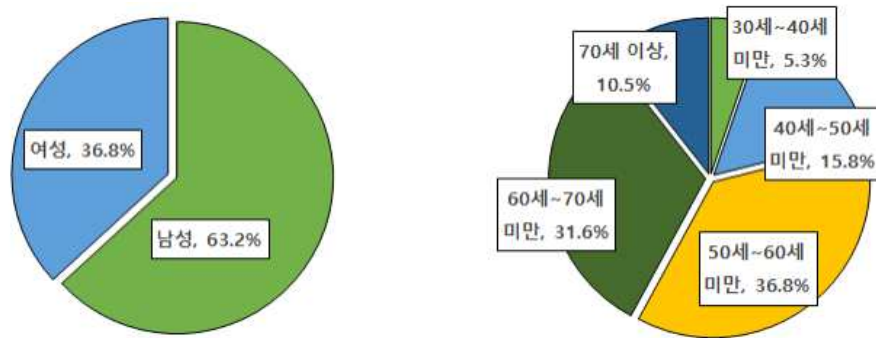
□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매개기관은 지역 안팎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 수행 필요

- 매개자들은 김포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책적 개선, 문화시설 확충, 민-관 네트워크 구축, 지속적 자료조사 및 아카이브 등을 꼽음
-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매개기관의 역할로는 ‘지역 안팎과 민-관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 수행’, ‘전문성 강화’, ‘차별화된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등이 제시됨

5.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1) 응답자 특성

- 전체 응답자 19명 가운데 ‘남성’ 이 12명(63.2%), 여성이 7명(36.8%)이며, 연령은 ‘50세~60세 미만’ 이 36.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문가 활동기간은 ‘20년~30년 미만’ 이 47.4%로 가장 많았으며, ‘30년 이상’ 이 21.1%, ‘10년~20년 미만’ 이 15.8%, ‘5년~10년 미만’ 이 15.8%로 각각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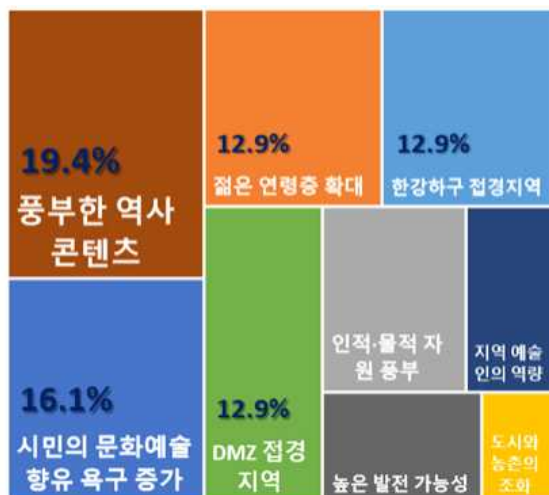


[그림 4-54] [전문가] 성별(좌) 및 연령(우)

2) 조사 결과

□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김포시 문화예술의 최대 강점은 ‘풍부한 역사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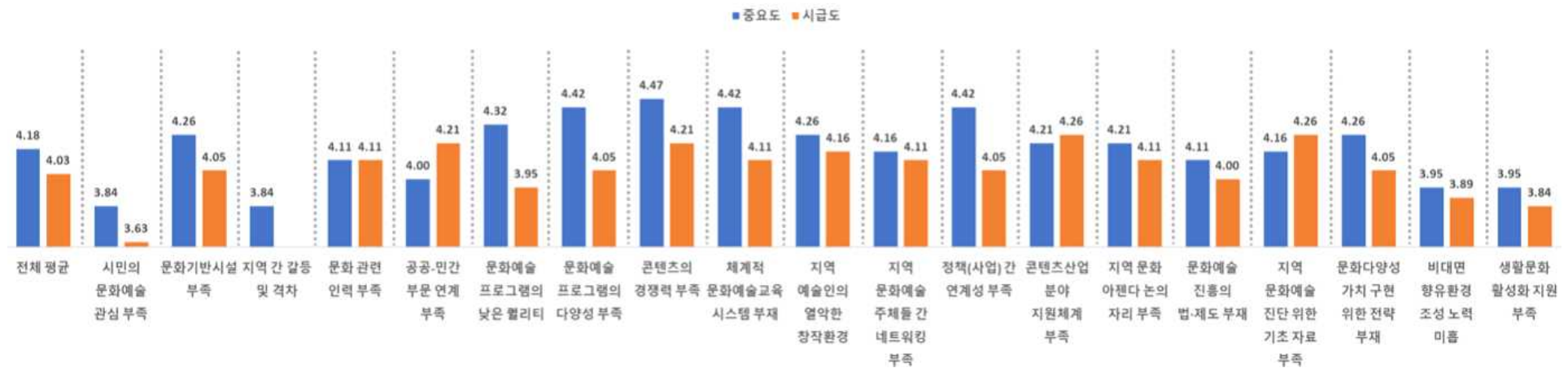
- 분야별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김포시 문화예술의 최대 강점은 ‘풍부한 역사 콘텐츠’ (19.4%)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증가(16.1%)’ 로 나타남
- 이어서 ‘젊은 연령층 확대’, ‘한강하구 접경지역’, ‘DMZ 접경지역’ 등이 각각 12.9%로 나타나, 지역의 인구 특성과 지정학적 특성에서 강점을 찾는 경향을 보임



[그림 4-55] [전문가] 김포시 문화예술의 강점

□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자 최우선 과제로 ‘콘텐츠의 경쟁력 부족’, ‘기초자료 확보’ 등 선택

- 전문가들은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콘텐츠의 경쟁력 부족’ (4.47점)을 꼽았으며, 이어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체계적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부재’, ‘정책(사업) 간 연계성 부족’ 이 각각 4.42점으로 나타남
- 가장 시급한 과제는 ‘지역 문화예술 진단 위한 기초 자료 부족’ 과 ‘콘텐츠 산업 분야 지원체계 부족’ 이 4.26점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공공-민간 부문 연계 부족’, ‘콘텐츠의 경쟁력 부족’ 등이 4.21점으로 뒤를 이음
- 응답 결과에 나타나듯 전문가들은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의 핵심 요소는 ‘콘텐츠의 경쟁력과 다양성’ 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이러한 요소를 지역 내에 원활하게 공유 및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체계(시스템)를 필수 제반여건으로 인식하고 있음
- 또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김포 문화예술 인적 네트워크 구성, 지속적 사업 관리체계 및 예산 확보, 지역 역사문화 자원 지속 조사관리, 그룹 간 문화격차 완화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림 4-56] [전문가]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과제 (단위: 점)

6. 시사점

□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증가 추세에 발맞춘 문화기반 조성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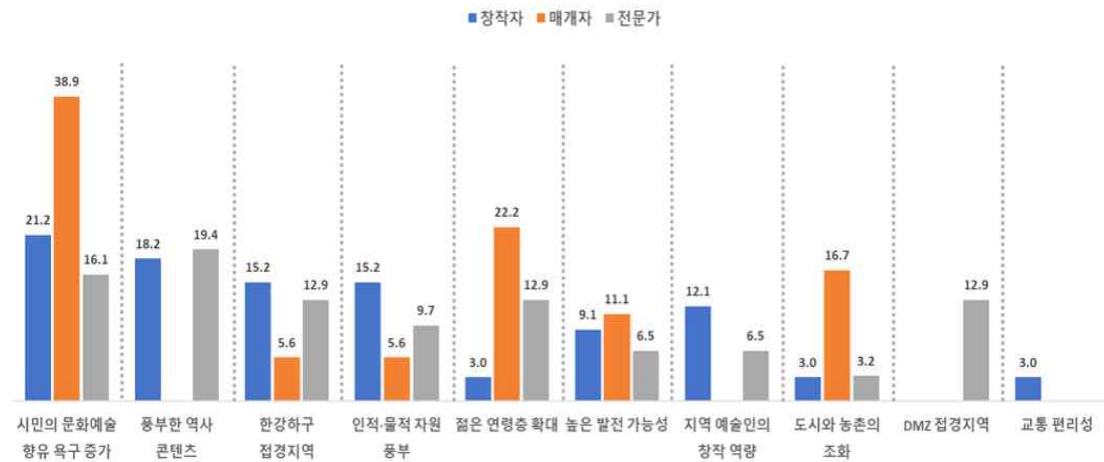
- 도시가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도시민의 문화향유 욕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난개발로 인한 황폐함,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는 보편적 문화의 확대 등은 이러한 욕구 증가를 더욱 추동함
- 이처럼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 인식과 향유 욕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문화여건이 적절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문화활동을 위해 김포시를 벗어나 인접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임
- 기초적인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확대 추진 등 양적 성장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강화, 대상별 맞춤형 정책 확대, 문화예술 활동 환경의 쾌적성 제고 등 질적인 성장을 함께 추구함으로써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조성해야 함
- 뿐만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비롯해 각종 시설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프로그램들을 널리 공유할 수 있는 홍보채널을 확보함으로써 시민들이 ‘정보를 얻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 향유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한 ‘계기형 사업’ 적극 추진

- 지역 전반의 문화예술 향유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원주민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시민의 경우 문화예술 향유 경험이 부족해, 문화예술의 가치에 대한 공감도나 문화예술 니즈가 상대적으로 낮음
- 해당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사업은 단순히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와 같은 복지적 관점의 사업으로 ‘경험 계기 확대’를 유도함은 물론 경험하는 그 순간 ‘문화예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이라는 미션이 완수되어야 함
- 즉 예술성이나 지역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프로그램 자체의 대중성이 결여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하며, 무관심층을 표면 위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임팩트 있는 계기’를 제공해야 함

□ 김포시의 최대 강점인 ‘시민의 높은 문화향유 욕구 수준’과 ‘풍부한 역사 콘텐츠’ 집중 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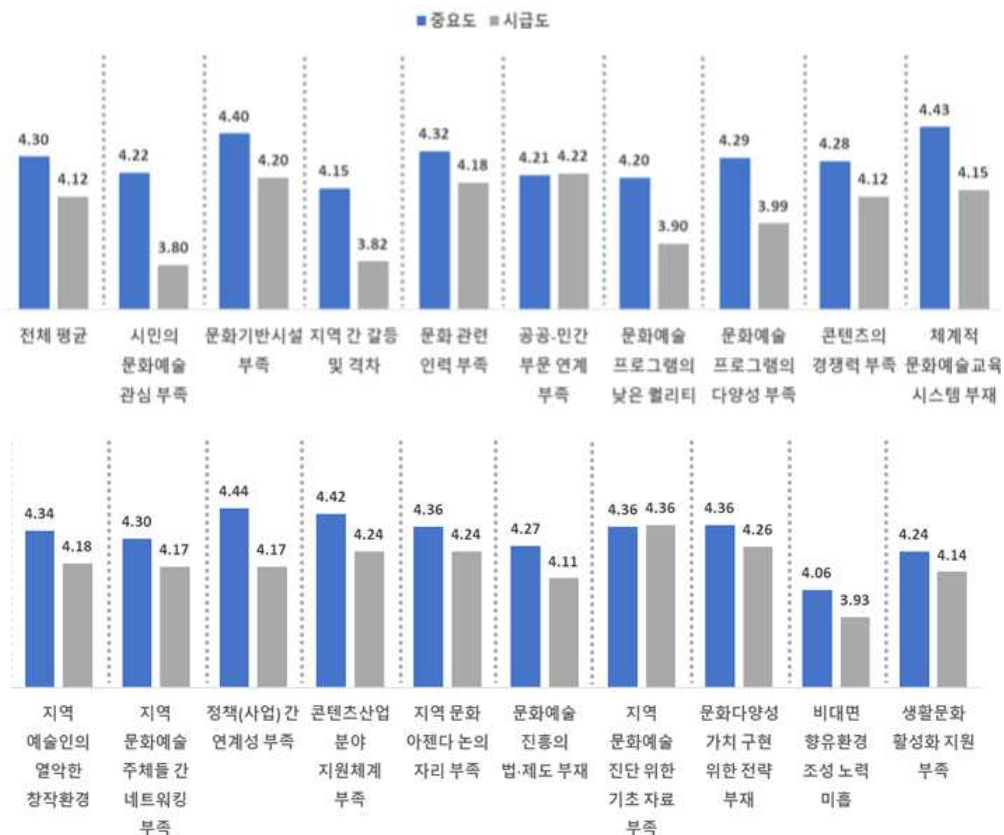
- 창작자, 매가자,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높게 응답한 지역의 강점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 증가추세’로, 이는 지역문화 발전의 필수 요소를 김포시가 이미 갖추고 있음을 방증함
- 따라서 시민의 문화 니즈를 적극적으로 파악한 뒤 이에 대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는, Bottom-Up 방식의 정책수립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과 함께 지역문화를 공론화하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오랜 기간 잘 보존되어 온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은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꿈는 두 번째 강점으로, 자원의 원형을 잘 유지하는 것은 물론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함
- 다만 김포시가 보유한 역사 콘텐츠의 상당수가 생활밀착형 자원은 아니기에, 시민의 일상적 문화 향유의 원천으로 활용하기보다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부각시키는 것이 타당함



[그림 4-57] [종합] 김포시 문화예술의 강점 (단위: %)

□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정책사업 간 연계성 확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

-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책(사업) 간 연계성 확보’ 및 ‘체계적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확보’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기보다 기존 사업 간 연계 시너지 확보를 목표로 제반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 김포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확보’와 ‘문화다양성 가치 구현을 위한 전략 수립’으로, 지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함



[그림 4-58] [종합]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과제 (단위: 점)

V. 계획 기본구상

1. 지난 계획 검토
2. 기본방향

1. 지난 계획 검토

1) 계획 개요

① 비전

- 문화예술과 복지로 힐링(Healing)과 창의(Creativity)를 입히다

② 목표

- 시민 중심의 문화예술생활 활성화 : 문화예술 거버넌스, 문화정책 전달 인프라 구축, 창작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문화정책과 사업이 행정기관이나 특정계층만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시민중심의 문화예술생활 활성화 유도
- 문화적 방식의 공간·경관·지역재생 : 클러스터 공간, 경관지구, 문화적 재생지역 등으로 전문가 협의를 통해 구역화
- 문화예술과 교육·복지의 융합 : 문화예술,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 관련 재원을 확보하여 문화예술 융복합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으로 창작지원과 작가육성 및 주거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아트 내지 예술인촌 조성
- 창조적 인력을 통한 문화예술 역량강화 : 임대료 지원을 통한 유입, 창조팩토리사업, 문화일자리 사업, 청년문화인턴 사업을 통해 창조적 문화예술인력 유입을 위한 정책
- 생활권 기반의 문화예술 정책수립 : 마을공방, 청소년과 함께 하는 아마추어 문화예술가 문화아지트, 시민특성별 마을예술 창작소, 작은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업을 통해 생활권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생활권 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조성 및 공간대여 활성화

③ 전략

- 전통문화예술의 보존·계승·발전 및 활용방안
- 문화기반시설 및 환경의 정비·확충, 운영방안과 네트워크 구축방안
-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역량강화
- 문화예술정보의 효율적 제공 및 문화복지 확충방안
- 문화콘텐츠자원 개발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방안
-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방안
-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방안
- 중장기 발전계획 추진전략 및 재원조달 방안
- 문화예술진흥정책과 사업 등 평가 및 환류방안

④ 공간

- 도시의 체계적 균형발전으로 통합된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김포시민이 함께 하는 삶의 행복과 예술적 창의성 개발,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공간구조

- 생활권역별 특성을 극대화하고 상호 연계하여 균형발전을 할 수 있도록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분화 공간구조
- 지역공간이용을 북부생활권역의 경우 해양역사문화예술을 근간으로 하는 역사문화관광거점의 힐링 기능, 남부생활권역은 문화예술 관련 특화산업 콤플렉스 기능, 중부생활권역은 문화예술 종합서비스 허브 기능을 제공하는 생활권역으로 설정

<표 5-1>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2015) 주요 과제 및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및 활용방안	640	80	100	220	120	120
① 김포역사문화 집대성	80	80	-	-	-	-
② 김포역사문화 교육 강화	80	-	20	20	20	20
③ 김포의 대표 사상 및 인물 재조명	100	-	30	70	-	-
④ 문화유산 활용협력 체계구축	200	-	50	50	50	50
⑤ 통진투레놀이 보존회 지원확대 방안	180	-	-	80	50	50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방안	240,460	360	80,200	7,800	82,050	70,050
①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216,800	200	80,000	6,600	70,000	60,000
② 시민문화공간 확대를 위한 정책	260	60	50	50	50	50
③ 문화네트워크 구축방안	100	100	-	-	-	-
④ 문화원(시민회관) 기능확대 지원사업	23,300	-	150	1,150	12,000	10,000
문화관광산업 육성방안	24,514	12,980	11,134	400	-	-
① 문화관광 마케팅 지원사업	100	40	60	-	-	-
② 문화축제·이벤트 활성화 지원사업	100	100	-	-	-	-
③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 조성사업	80	80	-	-	-	-
④ 애기봉 개발사업	23,834	12,760	11,074	-	-	-
⑤ 무장애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00	-	-	300	-	-
⑥ 아라뱃길 한류문화관광상품 개발	100	-	-	100	-	-
창조적 문화예술활동 및 문화콘텐츠 육성방안	4,050	850	750	1,250	650	550
①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500	200	100	100	100	-
② 문화예술 클러스터 지도 제작사업	50	50	-	-	-	-
③ 문화건설링 사업단 구축	100	100	-	-	-	-
④ 문화예술 동아리 발굴 및 지원	170	50	30	30	30	30
⑤ 거리문화공연단 운영계획	280	80	50	50	50	50
⑥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	500	-	200	100	100	100
⑦ 문화예술진흥정책 모니터링단 발족	50	50	-	-	-	-
⑧ 문화콘텐츠 민·관·학 파트너십 구축	100	100	-	-	-	-
⑨ 김포 예술인 총회 운영방안	200	-	50	50	50	50
⑩ 시니어 문화복지 활성화	350	70	70	70	70	70
⑪ 장애인 문화복지 활성화	350	70	70	70	70	70
⑫ 작은영화관 사업	200	-	-	200	-	-
⑬ 문화예술 R&D 분야 지원사업	400	80	80	80	80	80
⑭ 문화콘텐츠 제작사업	800	-	100	500	100	100

자료: 김포시(2015), 김포시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2) 추진 성과

① 전통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및 활용

□ 문화재 발굴 및 체계적 보존·관리를 통해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확보

- 문수산성, 덕포진 등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속 추진 (2019년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확보 : 국비 1,492백만원, 도비 285백만원)
 - 국가등록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 : 문수산성, 덕포진, 한강하류재두루미도래지 및 묘범연화경, 구 김포성당 등
 - 향토유적 보수 및 유지관리 : 김포 현령·군수 선정비, 문수사, 청송심씨 묘역, 덕포진 손돌공 묘역, 대성원, 통진현감 등
 - 도지정 문화재 보수 및 유지관리 : 우저서원, 통진향교, 한재당, 김포향교, 심연원 등
- 역사문화자원 발굴조사, 학술조사, 활용방안 연구 등 지속 추진
 - 김포 신안리 신석기유적 정밀 발굴조사 : 92백만원
 - 김포 가현리 신석기유적 학술조사 : 20백만원
 - 김포시 관방유적 학술조사 : 60백만원

□ 전통문화의 보존·계승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및 관련 이벤트 정기 개최

- 통진두레놀이 보존회 운영 : 행사지원(단오행사 외), 육성지원(특기보유자 육성지원 등)
- 민속예술제 행사 추진 : 한국민속예술제(통진두레놀이), 경기도민속예술제(조강치군패), 김포 민속예술제(통진두레놀이 외)
- 타 전통문화 행사 추진 : 서원·향교 제례, 향교서원 활용 및 활성화 사업, 학술세미나(심우신), 김포시 풍물연합회 지원, 예절의 날 행사 지원(다도박물관), 김포명륜대학 사업지원(김포향교), 향교 도의선양 사업지원(김포향교, 통진향교)
- 열린 향교 및 서원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 : 우저서원, 김포향교, 통진향교 및 대포서원, 명륜대학, 청소년 인성교육, 청소년 문화체험 운영 지원
- 무형문화재(김포통진두레놀이) 행사 활성화를 위한 행정 지원 : 도지정 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한 운영 및 신규 행사 발굴
- 지역 우수전통 민속 보존사업 및 문화재 제례 등 지원 : 진혼무바라춤, 사우회다지소리 등 우수 전통 민속 보존사업 진행, 풍물연합회 행사 지원, 11개 문화재 제례 및 기로연 행사 지원

②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만족도 높은 문화시설 운영·관리로 시민의 문화적 삶 구현

-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 '19. 03. ~ '25. 12.
-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 : '19. 07. ~ '20. 03.
- 문화마을 조성 사업(지중화사업) 추진 : '19. 04. ~ '20. 05.
- 김포아트빌리지 개관 및 운영 : 2018년 개관
 - (2019) 시설 보강 : 한옥마을 경관조명 공사(200백만원), 아트센터 전시실 보강공사(130백만원),

- 공원조성계획 변경 완료(35백만원),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설치(800백만원)
- (2019) 공방, 컨퍼런스, 작은 결혼식 등 운영 (1,121백만원)
- 월곶생활문화센터 개관 및 운영 : 2018년 10월 개관
- (2019)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보강 (296백만원)
- 접경지역 문예창고 조성 추진 및 김포아트홀 기획공연 개최
- 김포국제조각공원 및 통진두레문화센터 운영활성화, 지역 사립 박물관·미술관 지원 (2019년 기준 168백만원, 5개소)

③ 문화관광산업 육성

□ 김포시만의 색깔이 담긴 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확대로 지역 매력도 제고

- 평화문화관 조성 및 개관 : 2019년 12월
- 위치 :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청소년수련원 내
- 예산 : 1,680백만원 (국비 740, 도비 555, 시비 385)
- 내용 : 김포 역사자원 체험공간 및 평화통일의 장 마련
- 규모 : 525m² (컨테이너식 2층 건물, 전시관 4개, 영상실 1개)
- 김포 구석구석 관광지 발굴 및 관광박람회 참가, 국제 규모 신규행사 유치 등
- 아라천 해양생태문화 창조벨트 조성사업
- 2018 아라마린페스티벌 개최(212백만원) : 착한콘서트, 수상레저대회 및 체험
- 해양레저 교육 및 아웃도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284백만원) : 일일해양레저, 요트면허교육, 당기 요트초급, SUP 초급강습
- 디자인큐브 및 미디어아트 설치(107백만원) : 미디어폴 5대 및 조형의자 5대 설치
-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김포 골드라인 관광지도, 관광홍보물 등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

□ ‘대한민국 대표 평화관광지’로 부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시설물 개선

-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 평화문화관 조성공사, 평화누리길 시설물 개선공사, 부래도 관광자원화, 함상공원 시설물 보수 등 추진
- 평화누리길(연간 20만명 이용)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및 자전거대회 개최
- 보고 즐길 수 있는 평화누리길 컬러링북 등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 국내 최초 평화누리길 게스트하우스 1호점 개장 및 이용 지원

④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 폭 넓은 예술단체 육성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지역 문화예술 창조역량 강화

- 김포시립예술단 운영지원 및 관내 예술단체 사업보조 : 2020년 기준 560백만원
- 미술작품 구입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추진 : 2020년 기준 426백만원
- 건전한 문화콘텐츠 사업 등록 및 관리 : 2019년 기준 13백만원
-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출판업, 인쇄업, 공연장, 영화관 등

⑤ 문화복지 확충

-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보편적 문화 실현
 - 통합문화체육관광광이용권 발급 : 2020년 기준 7,513명, 676백만원
 -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공모(2020),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사업(2020) 등
- 순회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추진으로 문화소외지역과 문화소외그룹의 문화향유율 제고
 - 찾아가는 문화활동 : 2019년 기준 86백만원
 - 문화소외지역 및 요양원, 학교 등을 방문하여 공연 제공 (36회)
 -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 2019년 기준 30백만원
 - 문화소외지역 및 공동주택밀집지역 등 찾아가는 공연 제공 (6회)

⑥ 문화도시 육성

-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 토대 마련 및 지정 신청
 - 김포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2020) : 4개 분야, 17개 사업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역축제 개최로 문화도시로서의 면모 구축
 - 아라마린 페스티벌 : 2019년 기준 예산 120백만원, 방문객 33,000명
 -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 : 2019년 기준 예산 40백만원, 방문객 700여명
 - 월곶 저잣거리 역사문화축제 : 2019년 기준 예산 50백만원

⑦ 김포문화재단 운영

- 김포문화재단 운영 활성화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전초기지 역할 수행
 -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김포국제조각공원, 김포아트빌리지 등을 인수하며 운영을 시작했고, 월곶생활문화센터, 애기봉평화생태공원 등을 잇달아 위·수탁 계약 체결함
 - 무지개다리 사업을 비롯해 크고 작은 다양한 지역문화 사업 추진 결과 출범 2년만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우수기관 지정), 2019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 2020년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혁혁한 성과를 올림

<표 5-2> 김포문화재단 인력 현황

구분	정원인력						
	계	임원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A)	60	1	2	10	13	16	18
현원(B)	56	1	2	9	5	17	22
결원(A-B)	4	-	-	1	8	-1	-4

자료: 김포시 내부자료(2021)

3) 한계

□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욕구가 강한 편이지만 이들의 과반수 이상이 지역 외부에서 활동

- 앞서 조사 결과에서 언급했듯 문화예술 향유활동을 하는 김포시민의 50% 이상이 관련 활동을 김포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행하고 있음
- 김포시민의 높은 문화예술 향유 욕구는 지역이 지는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의 강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유형, 다양한 수준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함은 물론 활동 편의성과 쾌적성을 모두 갖춰야 함을 의미함
- 시민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파악하고 수요 기반의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외부로 유출되는 향유 인구를 지역 내부로 이끌 필요가 있음

□ 남부권과 북부권 간 생활격차가 그대로 문화적 격차로 이어지며 균형성 문제 발생

- 김포시 지역의 권역 간 격차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이슈로, 지금까지는 도시 개발 측면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지만, 앞으로는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임
- 이번 실태조사 결과 김포시민의 지역 내 문화활동 중 북부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체의 약 6%에 그치고 있으며, 이는 권역 간 문화여건 및 문화역량 차이가 매우 심한 상황임을 방증함
- 또한 권역 간 문화예술 활동률의 차이뿐만 아니라 각 권역의 수요 역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맞춤형 대응전략이 필요한 실정임

□ 지역 문화예술 사업 대부분이 문화재단에 집중되고 있어 효율적 사업관리 난항

- 김포문화재단은 출범 이후 왕성한 활동을 하며 지역의 핵심 문화매개기관으로 자리잡았으나, 재단의 여건(인력수, 전문성 등)을 고려했을 때 과도하게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됨
- 2021년을 기준으로 재단 정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나, 아직까지 지역 내에 충분한 수준의 문화적 경험이 쌓이지 못했다는 점은 여전히 아킬레스건으로 남아있음
- 결국 김포문화재단은 지역의 정확한 파악 및 진단을 위한 체계적 연구·조사에 보다 집중해야 함은 물론, 운영관리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재단 내부 전문직 포지션 확충 및 외부 전문가 위원회의 적극적 활용 등이 요구됨

□ 크고 작은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었음에도 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해 효과 제한적

- 문화 불모지에 가까웠던 김포시는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문화적 수요가 강해진 전형적인 신도시의 형태를 보임. 이에 시는 김포만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왔으나, 사업 간, 부서 간, 영역 간 통합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치 이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음
- 향후 김포 문화예술 진흥 2.0 시대에는, 무엇보다 정책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재정비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부서 간, 조직 간, 사업 간 실질적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사업의 유기적 추진구조를 만들어야 함

2.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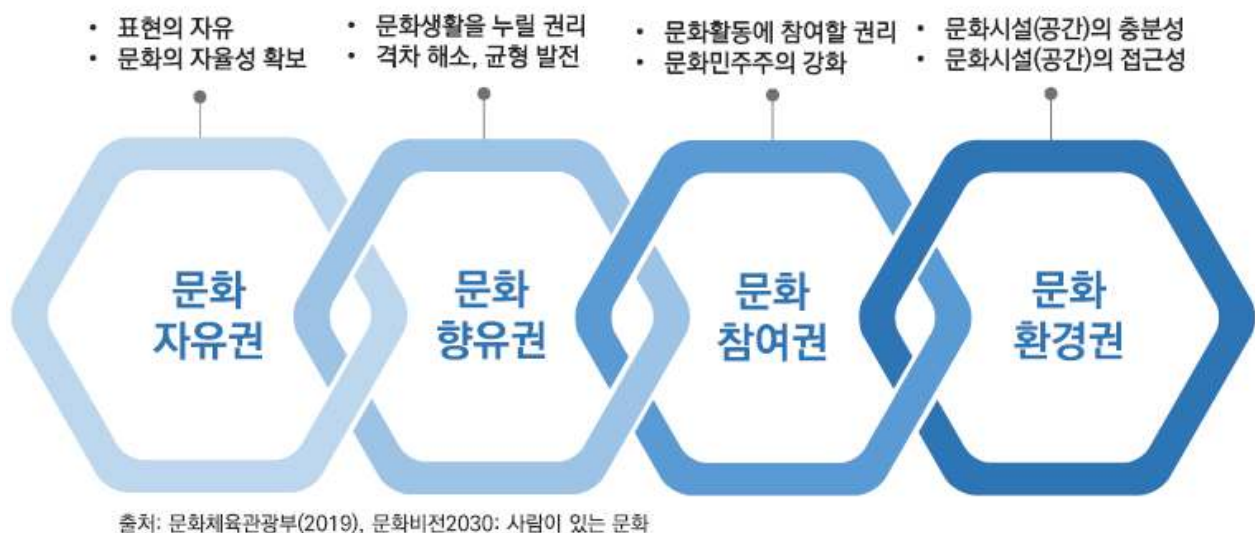
1) 접근 관점

□ 김포시 지역 여건 및 종합발전계획의 성격을 고려한 현실적·실효적 목표 설정

- 본 종합발전계획의 시간적 범위가 5년임을 고려했을 때, 문화예술 전 부문의 고른 성장을 도모하기보다 지역의 주요이슈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함
- 현재 김포시가 당면한 선결 과제는 ‘지역 문화정체성 형성’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전반적 문화예술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에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임
- 문화예술 경험의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문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변화하게 되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행동의 변화는 다시 삶의 변화를 추동하는 형태로 이어질 수 있음

□ 보편성과 형평성이 전제된 문화권 확보를 정책 최우선 목표로 설정

- 앞서 언급한 문화예술 활동 경험의 증가는 곧 문화권 확보를 의미하는데, 김포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패턴 및 지역 격차를 고려했을 때 문화복지적 관점에서 문화권 확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⁶⁷⁾
- 즉 김포시민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문화적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문화권’이자, 개개인의 속성(연령, 성별, 거주지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형평성이 담보된 문화권’임
-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지역민 수요조사를 토대로 각종 문화서비스와 문화사업을 디자인해야 하며, 주민 그룹 간 차이를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그룹별 특화 전략을 추진해야 함



[그림 5-1] 문화권의 요소

67) 문화예술은 복지 관점이 아닌 기본권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앞서 밝힌 바 있으나, 김포시의 경우 지역별 문화 격차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서 ‘복지적 관점의 문화권’을 제시함.

□ 문화예술과 삶의 연관성 확보를 통한 문화의 일상화 필수

- 문화예술을 좁게 해석함에 따라 장르 및 부문 중심의 발전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문화예술을 여전히 대상화 및 객체화하는 것이며, 이러한 접근방식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효과를 제한하는 것으로 귀결됨
- 따라서 ‘대상’으로서 문화가 아닌 ‘방식’으로서 문화를 설정하고, ‘(특정)문화예술 부문’을 진흥시키는 것이 아닌 ‘문화적 접근 및 태도’ 그 자체를 확대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일상 속 문화예술 확대를 통해 ‘시민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가 쌓여 ‘지역의 분위기’를 바꾸는 결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프로세스를 지향함

□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모자이크 전략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특화 전략 동시 추진

- 지역 문화환경의 전반적 고도화를 위해 부족한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한 뒤 맞춤형으로 대응하는 모자이크 전략과, 김포시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 전략을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김포시 문화환경을 고려했을 때 모자이크 전략은 크게 ‘문화권 보장’이라는 대전제 아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화 전략의 경우 ‘예술 정체성 강화’ 및 ‘문화다양성 구현’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함
- 예술 정체성 강화와 문화다양성 증진이라는 두 가지 전략은 김포시 인구특성에 기인하는데, 젊고 역동적인 도시라는 점에서 ‘예술적 퍼포먼스 강화’는 타지역 대비 효과가 높으며, 매우 다양한 국적, 인종, 민족이 지역 내에 혼재한다는 점은 ‘문화다양성 선도 도시’로 도약할 명분이자 가능성이 됨

□ 문화예술 영역의 독자적 사업 추진이 아닌 도시 성장 프로세스와의 긴밀한 연계 필요

-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고속 성장 중인 대표적 신도시로, 문화예술 진흥 역시 전반적인 도시발전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 영역의 독자적 사업 추진이 아닌, 도시 성장 프로세스와 연계해 ‘문화적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집중해야 하며, 이러한 접근은 지역의 성장을 보다 원활하게 이끄는 토대가 됨

2) 핵심 키워드



[그림 5-2] 핵심 키워드

① 문화활동 확대 : “시민 모두가 문화예술을 원하는 도시”

- 김포시 문화예술 종합발전 전략 첫 번째 키워드는 ‘문화활동 확대’로, 온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 활동 확대를 통해 ‘문화예술의 일상화’를 도모함
- 이처럼 김포시민에게 주어지는 최소기준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는, 지역 전반의 문화 감수성 증진 및 지역 문화수준(역량)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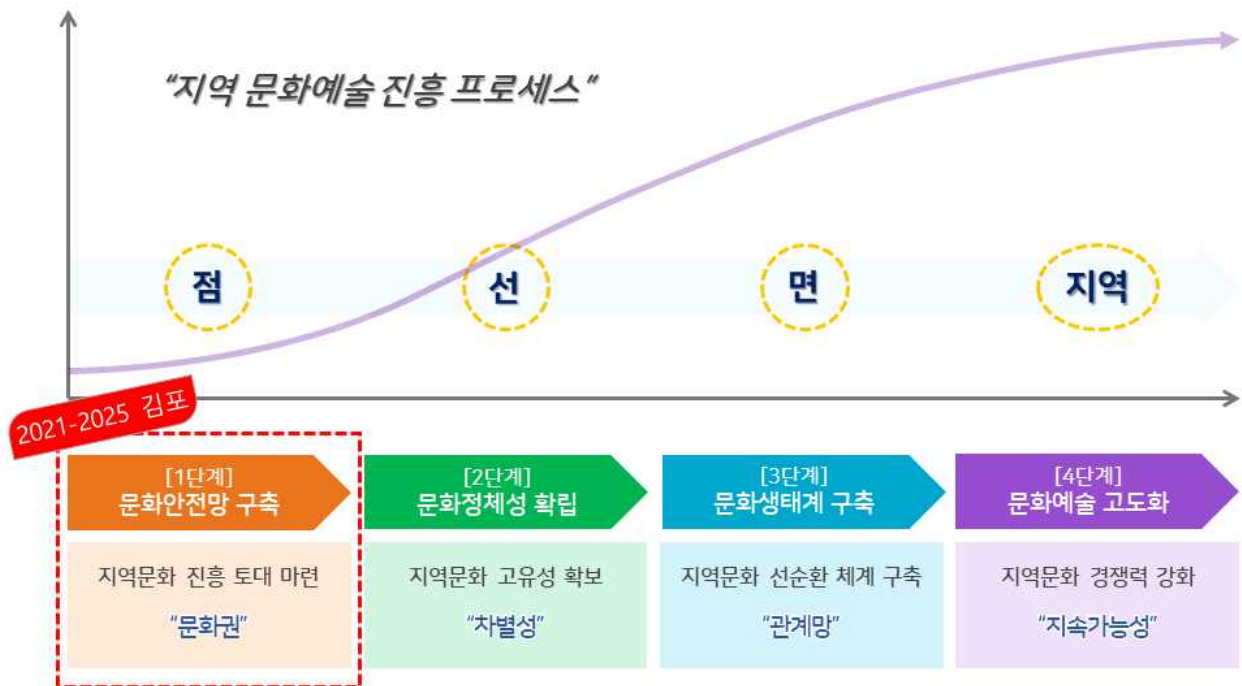
② 예술 정체성 부각 : “도시 곳곳에 예술적 감수성이 묻어나는 도시”

- 김포시와 같이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고 지역 전체가 성장 중인 신도시의 경우, 예술적 접근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 전략이 적합함
- 평화와 관련된 지역 테마, 예술가들의 다양한 활동, 시민의 예술 향유 욕구 등이 결합한 결과가 도시 공간에 구현됨으로써 김포시만의 예술적 퍼포먼스가 구체화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들의 집약을 통해 김포시만의 ‘느낌’이 형성됨

③ 문화다양성 구현 : “전국 최고 수준의 문화다양성 구현 도시”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문화다양성 증진 노력이 지역의 책무로 규정되었고, 넓은 스펙트럼의 인구 구성을 보이는 김포시의 경우 오래전부터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옴
-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이 여전히 ‘다문화 관점’에 머물러 있는 지금, 김포시가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오롯이 구현할 수 있는 선도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위상을 높일 필요 있음

3) 문화예술 진흥단계



[그림 5-3] 지역 문화예술 진흥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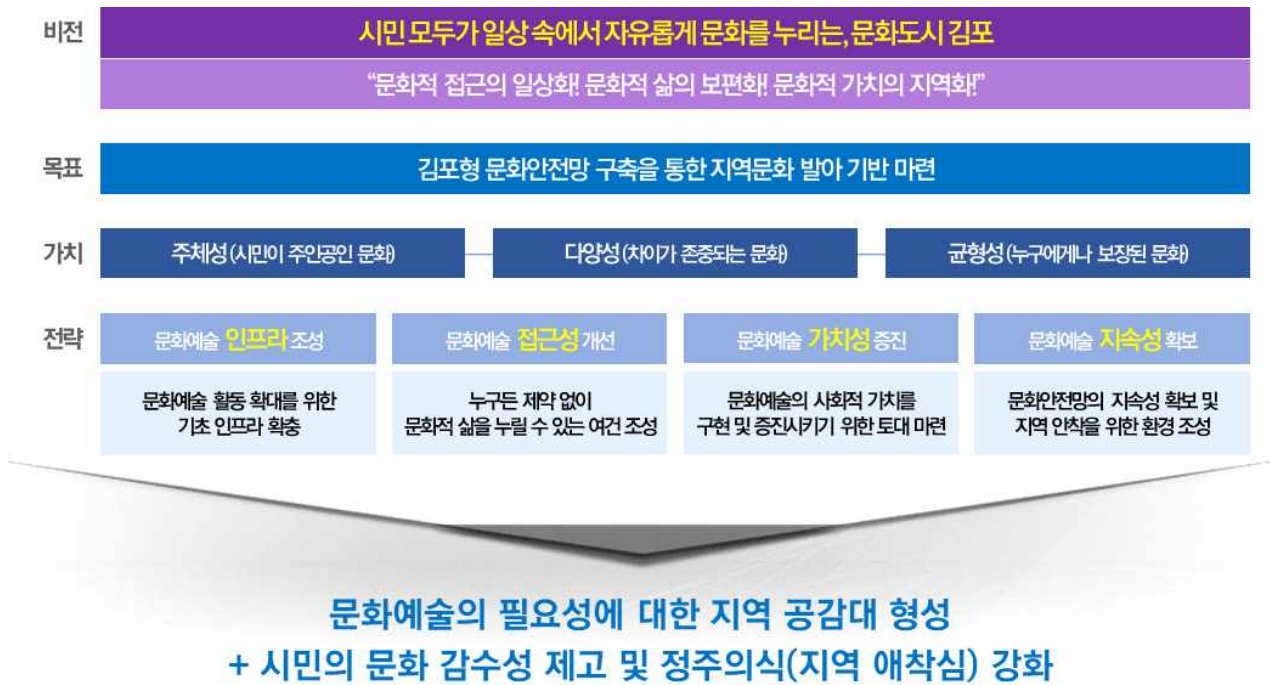
□ 김포시의 문화여건을 고려했을 때 크게 4개의 문화예술 진흥단계 설정 가능

- [1단계] 문화안전망 구축 단계로 지역문화 진흥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기이며, 시민의 '문화권' 확보가 이 시기의 가장 큰 목표임. 시민 한 명 한 명의 문화권 증진이라는 '점' 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점(시민)'을 늘려감
- [2단계] 문화정체성 확립 단계로 지역문화 고유성을 확보하는 시기이며,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김포시만의 정체성을 구축함. 1단계 때 형성된 점들이 선형으로 연결됨으로써 지역 내 네트워크가 형성됨
- [3단계] 문화생태계 구축 단계로 지역문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시기이며, 지역 내 '문화 관계망'을 강화함. 1~2단계를 거쳐 형성된 점과 선이 면 차원으로 확장되며 지역문화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기간임
- [4단계] 문화예술 고도화 단계로 지역문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시기이며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함. 사회문화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지역문화의 끊임없는 재생산 및 진흥을 이룸

□ 2021-2025 시기의 김포시는 문화안전망 구축 단계로 시민 문화권 확보에 집중

- 김포시민의 최소수준 문화권을 확보함으로써 시민 한 명 한 명이 향후 진행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의 주체이자 주인공으로 역할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
- 다만 지역 문화예술 진흥 프로세스의 단계 간 경계는 명확히 구분될 수 없기에, 앞으로 5년간 지속될 지역 여건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사회변화 양상에 적합한 대응전략을 즉각적으로 수립 및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비전체계



[그림 5-4] 비전체계

□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문화도시 김포”를 비전으로 설정

- 2021-2025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의 비전으로 ‘시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문화를 누리는, 문화도시 김포’를, 추진 목표로 ‘김포형 문화안전망 구축을 통한 지역문화 발아 기반 마련’을 각각 설정함
- 비전 및 목표를 드러내는 슬로건으로 ‘문화적 접근의 일상화! 문화적 삶의 보편화! 문화적 가치의 지역화!’를 제안하며, 3대 핵심가치는 주체성(시민이 주인공인 문화), 다양성(차이가 존중되는 문화), 균형성(누구에게나 보장된 문화)임

□ 비전 구현을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인프라 조성, 접근성 개선, 가치성 증진, 지속성 확보’ 설정

-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비전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문화예술 활동 확대를 위한 기초 인프라 확충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문화예술 접근성 개선] 확충된 문화예술 인프라를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며, 성별, 연령, 거주지, 인종, 국적 등 누구든 제약 없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
- [문화예술 가치성 증진]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 및 증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역 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등 모든 요소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함
- [문화예술 지속성 확보] 앞서 3개 전략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문화안전망을 지역 내에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적·사업적 장치를 마련함

Ⅵ. 추진전략 및 과제

1.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2. 문화예술 접근성 개선
3. 문화예술 가치성 증진
4. 문화예술 지속성 확보

1.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김포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확대를 위한 기초 인프라 확충

1)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내실화

① 기초 문화시설 건립 및 노후화 개선

□ 배경 및 목적

- 2018년 기준 김포시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는 2.8개로, 전국 평균 개수(5.5개)나 경기도 평균 개수(4.1개)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문화시설은 시민의 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기초 인프라로, 증가하는 인구에 비례해 추가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노후화 시설의 경우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 편의성을 증대시키도록 해야 함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 기초 문화시설을 추가 건립해, 경기도 평균 수준인 인구 십만명당 문화기반시설수 4.0개 이상을 유지하고, 기존 노후화 시설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통해 시설 어메니티 제고를 도모함

□ 주요 내용

- 현재 건립 추진 중인 김포 문예회관(2025년 개관 예정)과 문예창고(2021년 개관 예정) 외에도 사용자층을 고려한 다양한 유형의 향유시설 및 창작시설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여건 개선을 도모함
- 특히 남부권과 북부권의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문화시설 건립은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 추진하도록 하되, 북부권과 남부권의 인구특성 차이 및 문화수요 차이를 고려해 권역별로 적합한 문화시설을 배치함



출처: 시사뉴스(2020.07.03.),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예술 유통 플랫폼"

[그림 6-1] 국내 라키비움 예시 :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좌) & 국립중앙박물관(우)

-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세 가지 기능이 통합된 라키비움, 주민 주도형 에코뮤지엄 콘텐츠 구축기지, 현장박물관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시설 도입 고려 필요
 - 에코뮤지엄은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문화자원과 환경자원의 가치를 인식 및 해석하고, 커뮤니티 스스로의 유산 통제와 참여 증진을 촉진하기 시작하면서 생활문화를 중요하게 다룸⁶⁸⁾
 - 기존의 박물관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역주민의 유산 및 기억을 수집하고 보존, 설명하는 차원에

- 서 에코뮤지엄 콘텐츠의 경우 지역 지역공동체의 활동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음
- 에코뮤지엄은 자연, 생태, 경관, 역사, 문화, 산업 등 현재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통합적으로 다루어 시공간적으로 현재적 가치가 높음
 - 에코뮤지엄은 개발의 효과가 불확실한 곳에서 보전을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며,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박물관 실천을 모색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어 김포시와 같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개발과 보존의 문제가 충돌할 수 있는 지역에 필요한 문화 정책적 개입의 방식으로 고려 가능

<표 6-1> 에코뮤지엄 및 현장박물관 운영 예시

주민 주도 에코뮤지엄 콘텐츠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뮤지엄 구성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에코뮤지엄 구조를 활용한 사이트 발굴과 네트워킹
에코뮤지엄 박물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탐방코스 개발 : 도시형 한옥에코뮤지엄 운영 프로그램 개발 • 콘텐츠와 네트워킹, 탐방코스를 중심으로 현장박물관 조성 및 운영

□ 기대효과

- 모든 시민이 지근거리에 위치한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김포시를 벗어나던 대상의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음
- 단순히 지역 내 권역 간 문화기반시설수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배치 및 운영으로 시민 개개인이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일상 속 문화를 실현할 수 있음
- 라키비움 건립을 통해 방문객들이 필수적으로 찾는 대표 관광스팟으로 도약할 수 있음. 에코 뮤지엄의 경우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계기로 지역문제를 깊이 성찰하여 자각하는 과정을 선행함에 따라 이를 계기로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유산과 자원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음

② 문화시설 프로그램 특성화 및 다양화

□ 배경 및 목적

- 문화시설은 단순히 시설로 구성되는 물리적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발현되는 콘텐츠와 활동 전반이 이뤄지는 공간으로서 확장적 의미를 지님
- 김포시의 문화시설 수는 도 평균 수보다 적지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차원에서 시설 수보다는 시설의 종류와 형태, 질 시설의 위치 등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

□ 주요 내용

- 거대한 전시/발표 시설보다는 도시의 창의성과 예술성, 그리고 주민의 복지를 고려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함: 주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공통 서비스 중심 추진 + 공통

68) 여형범(2013), 「에코뮤지엄 실천을 통한 충남 자연환경의 보전과 활용방향」, 충남발전연구원

서비스 안정화 이후 그룹별 맞춤형 서비스(기획 프로그램) 확대

- 축제 교육 및 복지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공통 서비스 개발 가능
- 맞춤형 서비스 위하여 주민의 계층별(고령층, 주부 대상) 니즈 분석-필요 서비스 도출 - 공통 서비스 개발 - 대상별 이용가능한 공간을 활용한 서비스 시행 등의 단계로 서비스 개발 및 시행

<표 6-2> 영국 크랜필드 경영대학원 프락시스 센터 리더십 프로그램 사례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High Performance Leadership	고심화 리더십과정은 고위 임원과 리더십 직책에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상적인 리더십을 정의하고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 협상하며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영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Personal Transformation for Leaders	심층적 인 자체 시험을 통해 리더십 잠재력을 개발하고자하는 고위 간부를위한 프로그램. 자신의 진정한 리더십 스타일을 찾고, 사람들에게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수있는 자기 변화 경험 체험할 수 있도록함
Accelerating Leadership Power	혁신적인 방법을 통하여 조직과 조직 내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 제공
Increasign Personal Power	스스로를 제한하는 동시에 조직에 활기를 더할 수 있는 '켄타우르적 리더'전략을 교육하고 이를 통하여 리더십의 단계적 변화를 이해
Cranfield's Retreat for Senior Leaders	1박 2일 코스로서 개인 및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하여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의 문제를 통한 장기적인 리더십의 방향 모색
Developing Leadership Practice	Developing Leadership Practice는 개인 인식 및 통찰력 향상을 통해 개인 성과를 향상시키고 개인 및 팀의 효과적인 리더십을 통해 조직 성과 수준을 높이도록 설계
Cranfield's Womens as Leaders	고위 직책을 맡을 때 여성 지도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에 대한 명확한 이해, 유사한 문제를 겪고있는 여성 지도자 그룹과 협력하여 성별 문제와 조직 문제를 차별화 할 수있는 특별한 기회 - 여성이 변화해야 할 필요가있는 곳과 여성이 발전하기 위해 조직 관행 및 문화에서 변화해야하는 부분 - 가능한 가장 넓은 인재 풀을 개발하는 수석 리더로서의 우리의 역할

자료: 영국 크랜필드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 서비스의 내용적 측면 뿐 아니라 추진방법(시간, 장소)의 다양화 필요: (공간적 측면의) 온라인 공간 및 생활 틈새 공간, (시간적 측면의) 야간시간의 특화 서비스 디자인 필요
 - 공통서비스의 경우 다수의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온라인'을 통한 광범위한 서비스 시행 필요
 - 맞춤형 서비스의 경우, 대상별 주요 활동 시간을 고려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통한 정서/감성 치유가 각광받고 있는 시대적 특성을 반영해 세대통합형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적극 확대함
 - 한국의 예술치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늦게 시작됐지만 사회문제의 확대에 따른 치유 개념으로서 예술치료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 예술치료에서는 치료의 개념을 의사가 행하는 의술의 의미와는 달리 라는 개념 치유(Therapy)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즉, 예술을 경험함으로써 얻게 되는 미적 경험은 인간의 정서를 순화하여 보다 순수한 정신을 가진 건강한 인간으로 소생하게 하는 치료의 기능이 있음을 의미함⁶⁹⁾

- 예술치료의 효과를 사회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에서도 문화예술기관을 중심으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기대효과

- 모든 시민이 지근거리에 위치한 문화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동안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김포시를 벗어나던 대상의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음
- 현 정부의 포용적 사회정책의 실질적 전진 기지로서 문화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역민들의 지역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종국에는 지역 전체의 어메니티 상승에 기여
- 맞벌이 시대로 인한 유·아동의 정서 또는 심리 불안해소 및 장·노년층의 삶의 질 확보와 정서적 치유 가능 : 정신문화관광 및 휴양 명소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

2) 지역 문화예술 관련 연구·조사 정기 수행

① 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추진

□ 배경 및 목적

- 현재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문화실태조사는 표준화된 기준 지표를 적용하여 기초단위 지역까지 문화정책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자원에 대한 세부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지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화격차 해소와 실질적 지역 단위의 문화정책 실현이 가능하기 위하여, 좀 더 세분화된 지역 인적 물적 문화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필요

□ 주요 내용

- 자원조사 : 문화자원 분포 및 운영/이용 현황 조사 단계별 실시 ⇒ 분야별 문화자원(역사, 생태 등) + 유형별 문화자원(공간, 프로그램, 콘텐츠 등) + 부문별 문화자원(공공, 민간)
 - 지역의 전통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한 근·현대의 다양한 문화자원, 미래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고려한 다양한 자원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 필요
 - *김포시 문화예술과 2021 사업 "지역문화조사 및 연구(김포문화원 주관): 575 백만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 가능
- 활동현황 조사 : 시민, 창작자, 매개자 활동실태 조사 정기 실시 ⇒ 지역 간 비교분석을 위해 전국 단위 조사에 근거한 공통 문항 + 김포시 현안 진단 및 시계열 분석을 위한 개별 문항 혼합 설계 필요
- 자원조사의 경우 전수조사, 활동현황 조사의 경우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혼합 추진

69) 예술치료활동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정신이자 문제해결을 위한 헌신적인 생각이 깃든 인간존중사상, 해결가능성에 대한 신뢰, 사회에 대한 봉사과 희생정신, 도덕적인 사고는 정신의 병리를 치료한다는 사고, 건강한 신체는 건전한 정신에 시작된다는 사고, 예술은 정신과 육체적인 행복을 이룩하기 위하여 유용하다는 등의 철학적인 배경이 자리하고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13), 「예술치유 활성화 추진모델 개발 및 사업타당성 연구

□ 기대효과

-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하여 지역민 맞춤형 정책추진의 근거 자료 마련
- 중앙에서 시행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 다루지 못하는 지역의 문화적 특수성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자료 축적을 통하여 지역 문화 장기적인 발전과 성숙에 기여

② 부문별, 대상별 계획수립 및 연구 결과 아카이빙

□ 배경 및 목적

- 지역의 다양한 문화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설계의 필요성이 확대됨
- 다양한 문화예술의 부문별, 이용 대상별로 필요 서비스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계획 및 정책 수행에 있어 ‘일반’ 지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되어, 사업과 정책의 실효성이 낮음
- 세분화된 대상과 부문별 특수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구결과를 축적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 상기의 제시된 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문별, 대상별 계획 수립과 관련 연구결과 아카이빙
- 정책 수립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립되는 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수립된 선행 계획과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한 자료를 꾸준히 아카이빙하여 내용을 점검하도록 함

□ 기대효과

- 지역진단 및 조사결과에 기반해 부문별, 대상별 사업 계획수립 : 관련 예산계획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
- 연구결과 아카이빙 체계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정보 접근성 개선할 수 있음

3) 문화예술 창작지원 체계 재정비 및 사업 확대

①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배경 및 목적

- 지역의 문화적 활동을 촉발시키고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예술인의 활동은 지역의 주요한 문화자원으로서 위치함
- 반면 예술인은 직업의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창작 준비 기간 중 기본적인 경제생활 영위가 창작 활동에 제약을 받음
- 지역의 자산으로서 예술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지역 다양한 문화활동의 촉진자로서 위치할 수 있도록 이들의 활동에 대한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주요 내용

- 예술가의 최소생활(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및 국가제도 매칭 : 창작준비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공임대 주택 지원,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예술인 의료비 지원 등
 - 지역의 예술단, 예총 관련 지원을 통하여 예술활동 창작 지원 사업 우선적 추진 가능: 시립예술단 운영 (280백만원), 예총 김포지회 및 지역 예술단체 지원(55백만원, 101백만원)⁷⁰⁾
- 예술인 권리보장 및 공정환경 구축을 위한 통합기구 운영 : 권익보호 교육,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성폭력피해 상담, 법률지원, 산재보험 및 사회보험 지원 등
- 간접적 지원방안으로 지역 문화예술인의 사회참여 확산을 위한 현장형 공공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함
 - 문화예술인의 세부 직무 설계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인들이 본연의 예술작업 이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수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과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직무 설계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인 현장 연계 프로그램 운영 : 문화예술 영역은 실질적인 전문성과 함께 현장형 서비스 역량도 동시에 필요한 영역으로, 전문성과 현장성의 연계방식으로 자원봉사, 시민교육, 인턴십 등을 결합한 '서비스 러닝'을 통해 현장과의 자연스러운 연계 도모



[그림 6-2]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달라지는 예술인복지”
출처: 매일경제(2020.02.05.), ‘박양우 장관 “예술인 창작 안정망 폭넓게 구축하겠다”’

□ 기대효과

- 지역의 문화자산으로서 예술인의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활동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예술이 단순한 ‘활동’이 아닌 하나의 노동으로서 인정받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부가가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예술인과 기획자의 창작활동이 사회참여형태로 발전 및 연계될 수 있는 계기 마련

70) 김포시 문화예술과 2021 업무계획


② 온라인 예술 유통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인력 양성

□ 배경 및 목적

- 새로운 통신 기술과 디지털 기기의 등장으로 인터넷 가상공간에서 콘텐츠 유통, 홍보, 커뮤니티 등이 이뤄지는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짐
- 지역의 문화적 자산인 예술가, 예술단체,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작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유통망을 마련이 필요

□ 주요 내용

- 예술가(예술작품)와 시민을 연결하는 온라인 예술 유통 플랫폼 설계
 - 지역의 예술가와 예술 활동을 시민들과 연결하는 온라인 채널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 마련
 - 김포문화재단의 '작가와 함께' 찾아가는 미술관(40백만원), 지역예술인 사이버포트폴리오(100백만원), 지역예술단체 지원(403백만원), 글로벌 사이버 페스티벌(60백만원), 온라인 음악제 WE NEED PEACE(95백만원)을 활용한 사업 구상 가능⁷¹⁾
- 김포 예술 국제교류 온라인 플랫폼 설계
 -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내 국제교류 활동이 취소 위축된 가운데, 김포시의 다양한 예술가들의 활동을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통하여 지역문화예술계의 활동 활성화를 도모함
 - 국제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지역 예술가 및 지역 예술기획자들의 활동을 공유하여 국제교류의 다양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
 - 관련한 다양한 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 콘텐츠, 정보 제공, 네트워크 교류를 위한 기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문화재단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에 여러 변화가 오는 상황에서 지난달 온라인 축제 플랫폼 'HAP 페스티벌'(이하 합 페스티벌)을 오픈함 • 합 페스티벌은 화성에서 다 함께 '합(함)하자'라는 의미와 'Hwaseong And People'이라는 의미로 온라인에서 누구나 화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온라인을 통해 열림 •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예술 유통 플랫폼으로서 홈페이지에서는 재즈, 거리극, 퍼포먼스, 광대, 금속공예, 도예, 전통놀이 등 다양한 장르 예술가들의 영상 제공
출처: 시사뉴스(2020.07.03.), "온라인을 활용한 새로운 예술 유통 플랫폼"	

[그림 6-3] 화성시 문화재단 'HAP 페스티벌'

□ 기대효과

- 온라인 공간에서의 네트워크 확장성을 통하여 지역민과 지역내 문화예술 자산으로서의 예술활동이 서로 상호작용 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
-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 문화예술생태계에 새로운 방식의 문화예술 소통방식을 제공하여 문화예술 창작-매개-향유 선순환 체계 마련에 기여

71) 김포문화재단 2021 업무계획

4) 권역별 문화 거버넌스 구축 및 공공-민간 연계 활성화

① 지역별 프로젝트 단위 문화그룹 활동 지원

□ 배경 및 목적

- 지역 문화는 장소성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독창적인 생활양식이며,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적 양식 또는 문화적 표현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역 내 문화적 표현을 발전시키는 주체로서 소규모 단위의 문화그룹을 형성하여 김포 문화예술이 스스로의 자생력을 갖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 마련

□ 주요 내용

- 주민, 예술가, 기획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역별 문화그룹 활동 지원 : 활동자금 지원, 교육·멘토링·컨설팅 지원, 프로젝트 간 교류행사 개최 등
- 마을단위 주민조직 및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시설 중심으로 지원하며 최대 3년까지 연속 지원함으로써 성장형 활동 권장
- 지역민 주도 문화예술동아리의 활동공간으로서 지역 문화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문화시설의 활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 전통과 현대, 도시와 농촌 등 지역 내 다양한 생활양식을 수렴하여 지역이 지속적으로 마주하는 삶의 현장을 지역의 문화로 계승하는 발판 마련
- 지역에 대한 새로운 감각과 시각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 및 지역 혁신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회 마련
-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지역민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결집하여,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 형성을 통한 공동체 문화 부활에 이바지함

<표 6-4> 지역문화시설 활용 지역주민 소모임 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방안

지역 문화시설 참여형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참여를 통한 시설운영 활성화 계획 마련 • 운영인력의 재교육 및 연수 • 문화시설 대외 홍보 강화 • 지자체 주민 만족도 조사
지역주민 소모임 문화예술 동호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문화예술 동호회 현황 파악 • 활동 주체와의 간담회를 통한 지원 방향 설정 • 지역 문화시설과의 연계 프로그램 공동구상

② 문화예술 무관심층 집중 발굴 및 네트워크 확대 지원

□ 배경 및 목적

- 주민공동체, 주민예술단, 생활문화동호회 등 기존의 주민 주도형 커뮤니티 대부분은 주민 리더그룹 혹은 관심층 중심으로 구성되었기에, 잠재층 혹은 무관심층을 수면 위로 이끌 수 있는 집중 발굴 사업 필요

□ 주요 내용

- 순회형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 생활 공간(집, 학교, 회사 등) 속 시민 문화예술 경험을 확대함으로써 관심도 제고
- 시민 주도형 네트워크 지원할 때 구성원의 다양성과 무관심층 발굴 가능성을 주요 지원기준으로 설정
- 지역 내 문화 소외지역 또는 문화 소외대상(장애인, 저소득 가정 유·아동 등)을 대상으로 예술 치유 프로그램, 예술가 매칭 예술교육 프로그램 추진

<표 6-5> 문화 네트워크 확대 사업 예시 : 하우스 투 하우스 내 집안 정원 가꾸기 문화운동

(가칭) 동네숲(골목길) 가꾸기 공모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숲(골목길) 대상지는 입지적 특성 및 주변의 문화적·환경적 요소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해당 골목길의 특색을 드러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독창적 디자인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함⁷²⁾ • 지역주민 생활 행태,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제안을 우선으로 고려 • 김포 시내 골목길 10곳을 선정하여 개소당 최대 5천~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정원(庭園)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원 가꾸기와 관련한 시민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정원(庭園)문화 확산을 위한 공감대 형성 • 정원이 있는 개인소유 단독 주택 소유자가 경제적 기반이 있는 실버 세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고려⁷³⁾하여 실버 세대를 대상으로 정원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 단순한 관상용 정원 가꾸기 뿐 아니라, 도시농업 분야 중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원예와 가드닝 분야에 대한 실용기술 등 평생교육과정 개설하여 마스터가드너, 식물 코디네이터 등 전문가 양성

□ 기대효과

-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관련 환경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창의성 제고, 자존감 형성, 기본적 욕구 및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에 기여
- 다양한 사회문제(폭력, 환경 정비,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문화예술이 가진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공동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개인과 그룹의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지역정체성을 발굴하며 여가선택의 다양화를 가져와 삶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음

72) 서울시 '2018년 동네숲(골목길)가꾸기 사업' 내용 참고

73) 한승원·남복희(2015), "마을 정원을 통한 도시커뮤니티활성화 전략", 「2015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

2. 문화예술 접근성 개선

누구든 제약 없이 문화적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1) 지역문화 거점 확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① 민간 유휴공간 활용 중심거점-위성거점 체계 구축

□ 배경 및 목적

- 문화거점의 기능은 단순히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문화경험 확대’ 및 ‘교류 기회 확대’ 임
- 공공문화시설 뿐 아니라 권역별 주민 밀착형 문화거점을 형성하여 이를 통한 문화예술의 상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주요 내용

- 권역별 주민 이용도 증대를 위해 핵심 인프라(중심거점)와 보조 인프라(위성거점) 동시 조성 및 운영하며, 거점 간 관계 정립 시 완충지대 성격을 지닌 버퍼공간 및 프로그램 필요
- 민간 운영공간 및 유휴공간을 활용한 거점 조성 확대, 지역자원을 활용한 생활문화 플랫폼⁷⁴⁾ 공간 및 활동 확산 도모 (구역별 거점 후보지에 대한 협의 필요)
 - 주민들의 일상 그 자체가 예술작품이 되고, 마을 속 다양한 공간들이 생활문화의 현장이 되며, 일상의 터전이 문화적 공간이 되고, 참여자들의 문화적 교감이 결국 마을의 문화공동체를 이루게 됨
- 작은 도서관, 동네 문화사랑방, 마을극장, 주민자치센터, 마을공동체시설 등 생활권 단위의 소규모 커뮤니티 공간을 지역주민들의 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활동 참여 채널의 다각화를 도모함

<표 6-6> 지역거점 유형 예시 : 공동주택 공용공간을 활용한 문화카페 조성

지역 내 공동주택 공용공간 현황 조사 및 지원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오래된 아파트,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공용공간 활용 실태조사 • 최근에 건설되는 아파트에는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역 내 오래된 아파트 또는 임대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공간의 지속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 운영을 위한 지역주민자치기구 구성, 지역민 만족도 정기 조사 등(지역주민자치기구 및 지역 내 주민복지과 소관) 공간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관리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체계 구성
지역 내 공동주택 공용공간의 문화적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의 지속적일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동주택)내부 주민들의 이용은 물론 외부 개방을 통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으로서의 활용성 고려 필요

74) 생활문화플랫폼'은 2016년부터 시작된 경기도의 문화사업에서 활용된 용어로,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활동을 통해 일상을 새롭게 발견하고, 역할·가치의 전환과 확장을 통해 성장하며 이러한 것을 함께 공유하는 곳을 의미함. 2016년부터 시작된 경기 생활문화플랫폼은 총 16개 지역에서 23개의 생활문화플랫폼이 발굴되었고 다양한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운영중에 있음

□ 기대효과

- 권역별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상시 운영으로 문화예술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며, 거점 활동 인력인 청년 예술가의 활동 공간 확보 및 지역 내 청년 구직자들의 참여형 일자리 창출 가능함
- 주거공동체 형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만들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민들의 지역 만족도를 높이고,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음
- 잠재적 거주자의 거주지역 결정에 영향을 미쳐 지역 내 유입인구를 높여 지역 활성화의 기회로 작용

② 시민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참여 채널 확대

□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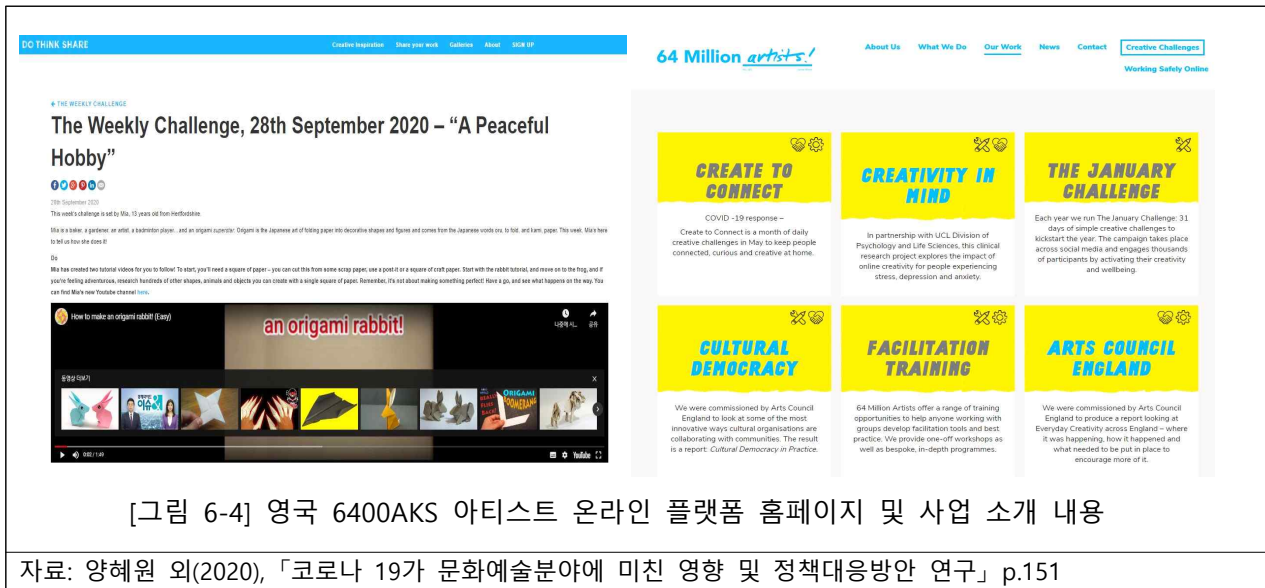
- 문화예술 향유 수요자의 지역 이탈 방지를 위해 일상 속 참여 채널 확보 필요
- 최근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활용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참여 채널 독려

□ 주요 내용

- 인구특성(성별, 연령, 국적, 민족 등)과 사회·경제적 특성(소득수준 등)을 모두 고려한 특화 채널 및 프로그램 마련 :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의 경우 기존 도시발전계획의 방향 및 맥락과 조화 필요
- 생활문화동아리 활성화 사업 추진: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동일한 취향을 가진 지역의 다양한 생활문화동아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사업 마련
 - 활동지원 영역으로, 감사 지원, 공간지원, 행사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김포문화재단 2021 업무계획 내 생활문화공동체 기반조성(30백만원)과 연계하여 추진 가능

[사례] 영국의 6400만 아티스트 온라인 플랫폼 사례

- 영국의 '6400만 아티스트'는 "시도하자! 생각하자! 나누자!(Do! Think! Share!)"라는 구호 아래 영국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프로젝트 일상적 창조를 위한 토론회, 직장 문화 바꾸기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중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유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조명을 받고 있는 방식이 됨
- '6400만 아티스트'는 영국 전체의 인구수에서 나온 프로젝트 명이며, 기존의 전문예술과 예술에 초점을 둔 영국 문화정책에서 문제제기를 하여 모든 사람의 창조성 즉, 일상적 창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프로젝트임
- '6400만 아티스트'에는 몇 가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The January Challenge' 프로젝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매년 1월에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어떻게 창조적일 수 있는지에 대해 비디오 등 다양한 활동상을 올리는 프로젝트임
- 자체 온라인 플랫폼과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민간 sns 및 mcn 채널을 골고루 활용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별도의 온라인 교육 제공을 통해 안전한 온라인 작업(Working Safely Online)을 지원하는 활동을 함께하고 있음



□ 기대효과

- 시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참여 채널을 통해 생활권 내에서 동일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문화예술활동을 가운데 자연스러운 공동체성을 익히고 이를 지역 공동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2) 문화소외지역 및 문화소외그룹 대상 맞춤형 문화 서비스 확대

① 통합문화이용권 및 지역화폐 드림사업 활성화

□ 배경 및 목적

- 국민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통합 문화이용권의 활용에 있어 한정적인 이용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타계하는 방안 필요
- 영화 관람외 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경험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체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설계 필요

□ 주요 내용

- 정부 및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문화복지 사업의 적극적 동참 및 관리체계 구축 : 통합 문화이용권('21년) 9억원(100,000원X9,035명)
 - 김포시 문화예술과 2021 업무계획 내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이용지원(6백만원),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 지원, 드림마루 오케스트라 사업(196백만원) 등
- 바우처 사용처 확대를 위한 지역 업체 참여 독려 장치 마련: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세금 감면, 통합 홍보 채널을 통한 마케팅 비용 절약 등
- 수혜자가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보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 연령대, 취향, 이용가능시간 등 개인이 설정한 정보에 따라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정보 제공 서비스 마련

□ 기대 효과

- 문화생활이 삶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서 경제적 소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고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으로서 활용

② 순회형 문화사업 통합 운영체계 마련

□ 배경 및 목적

- 김포시 내 다양한 기관 및 조직에서 추진 중인(혹은 계획 중인) ‘찾아가는 서비스’ 류의 통합 디자인 및 운영 필요 : 김포문화재단 주관
- 순회형 문화사업 추진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재 점검과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공급 및 수요 매칭의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및 지역 선정 기준, 지원 내용의 최소수준 기준, 지원 방향(수혜자 확대 or 효과 확대) 등에 대한 사전 합의 필요

□ 주요 내용

- 사업 유형별로 순회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이용 대상에 따른 문화소의 개선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사업 운영 가능
 - (사업운영 예시)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농산어촌 순회사업, 주민자치센터 순회사업, 학교 순회 사업 등
- 기획 공모를 통하여 문화예술 창작 및 예술 실연가들의 다양한 문화활동 기회 제공: 다중집합설 기획공연, 지역문화 활성화 기획공연 등

□ 기대 효과

-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 문화예술계 활성화를 도모하며, 피해 지역민·업종 종사자에게 문화향수 기회 제공

3) 정책사업 정보화 추진 및 홍보 활성화

① 4차 산업시대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구축

□ 배경 및 목적

- 4차 산업 시대와 코로나 19의 상황을 통하여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김포 문화예술중장기 계획 문화예술 사업의 온오프라인 연계 추진 기반으로서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 지역 문화자원(공간, 프로그램, 콘텐츠 등)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통합 플랫폼 구축 :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이던 플랫폼 연계통합 가능성 검토

- 김포문화재단 2021 업무계획 내 문화기관 플랫폼 연계사업(100백만원), 다국어 홈페이지 개발(100백만원) 활용 가능
- 정보 아카이빙 및 큐레이션, 수요자(방문객) 수요 파악 및 데이터 매칭 알고리즘 설계 시 AI 딥러닝 기술 적극 활용
-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개인 정보 활용을 위한 지역민들의 플랫폼 회원 가입 등을 독려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 수립 필요
 -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공개 동의 등을 포함한 회원 가입 형식 필요
 - 현재 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GGC MEMBERS와의 연동 시스템을 통하여 네트워크 확장 가능성 타진

□ 기대 효과

- 중장기적으로 정보제공 기능 외 예술 유통, 문화예술 교육 신청, 생활문화 커뮤니티 활동 등 지역 문화예술 분야 통합 포털로 육성

② 지역·사회 이슈 연계형 홍보 콘텐츠 지속 생산 및 공유

□ 배경 및 목적

- 대다수의 시민은 기존의 홍보 콘텐츠에 대해 ‘단순 정보 나열식의’, ‘재미없고 고루한’ 등의 인식을 지니고 있음
- 이에 ‘나와 관련 있는’ 소재에 ‘트렌디한 방식과 관점’으로 접근하는 콘텐츠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함 (한국관광공사X이날치X엠비규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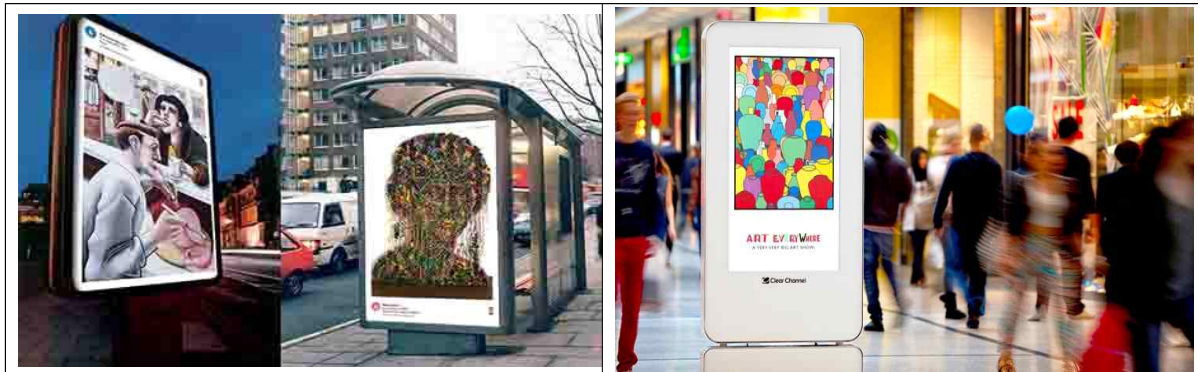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지역의 이슈를 문화예술 관점 혹은 문화예술표현방식 등으로 재해석하여 ‘지역 사회 운동(social activism)’으로 확산할 수 있는 캠페인, 또는 참여형 홍보 콘텐츠 운영을 위한 상설 채널 구축(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플랫폼 활용)

		<p>충주시청의 페이스북은 화제가 됨. 충주시 페이스북의 경우 B급 감성을 적극 활용하고 이벤트를 활용한 재미있는 포스팅과 동네친구 같은 친근함, 구독자와 지속적인 소통이 성공요인임</p> <p>최근에는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개설 4개월만에 구독자가 4만3천명을 넘었고, 23개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13만회를 돌파함</p>
<p>출처 : http://www.kocca.kr/trend/vol20/sub/s43.html</p>		

[그림 6-5] 충주시청 SNS 홍보사례

- 일상생활에서의 예술과 예술이 가진 심미적 가치를 통하여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참여형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재발견
 - 김포문화재단 2021 업무계획 내 온라인 시민 콘텐츠 지원사업(50백만원), 아트빌리지 광고홍보(20백만원) 활용 가능



‘거리를 지나며 생활하는 모두를, 그리고 이곳에 방문하는 모두를 위한 공공미술’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영국의 아트 에브리웨어’ : 잉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전역의 버스정류장, 지하철, 쇼핑몰, 택시, 피트니스센터 등 생활과 밀접한 공공장소의 2만2000개 광고 전광판, 배너, 포스터 광고판에 약 2주간 57점의 미술작품이미지를 대형 포스터로 출력하여 설치

[그림 6-6] 영국 공공미술프로젝트 “아트 에브리웨어”

□ 기대 효과

-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시청각 경험과 문화예술콘텐츠를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정서적 접근성 제고에 기여

4) 위드 코로나 시대 김포형 문화예술 뉴노멀 마련

① O2O(Online to Offline) 콘텐츠 개발 지원

□ 배경 및 목적

- O2O(Online to Offline) 콘텐츠 개발 지원 : 위드 코로나 시대의 트렌드(소규모, 자연/생태, 비대면, 다중 정체성 등)를 감안한 콘텐츠 개발 지원 확대

2020 <영지> '코로나 19' 기록

오디션	연습 연기	온라인 생중계 결정	비대면 예술교육	리허설 관람
2월 21-22일, 2월 24일	3월 16일에서 3월 24일로	4월 초	4월 8일 ~ 5월 6일	5월 12일

공연과 동시에 온라인 생중계	온라인 생중계	예술가와의 대화	녹화본 송출
5월 24일	5월 29일, 6월 1, 4, 5일	6월 4, 5일	6월 10, 14일

비대면 연극놀이 <영지를 찾아라!>는 문화예술교육 패키지를 소재로 4주 동안 매주 유튜브로 미션을 올리면 청소년들이 그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형태로 연극 워크숍을 진행→참여 청소년들과 프로덕션간 댓글 등을 통한 소통으로 상호 연결되는 경험을 제공→ 대면 오픈 리허설을 진행한 뒤 전국 362개 초·중·고등학교의 사전 신청을 받아 5회에 걸친 라이브 공연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공연 이후에도 화상회의 앱을 통한 예술가와 대화 진행

출처: 김민선(2020). 청소년극 <영지>, 온라인 공연제작의 가능성을 묻다. 예술경영웹진 450호(2020.7.23.)

[그림 6-7] 국립극단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 비대면 연극놀이 <영지를 찾아라!>

□ 주요 내용

- 포스트코로나 문화행동 제작소 개설 : On/Off 기후학교 운영, 현장 방문형 구두쇠 이야기 극장 운영, 문화예술인의 기후행동 및 생활행동 게릴라콘서트 추진
- 학교연계를 통한 아동 및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능
 -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병행하여(on-off mix)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면서 상호작용성과 현장감을 극대화하는 교육 방식에 대한 지역차원의 고민 필요

□ 기대 효과

- 코로나 19로 위축되어있는 문화예술 창작-향유의 순환고리를 연결하고, 문화예술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통하여 지역민들의 문화 접근성 개선에 기여

② 비대면 활동을 위한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 배경 및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예술활동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가 및 예술종사자의 비대면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
- 관련한 정보 및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지원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온라인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 확산의 기회 제공

□ 주요 내용

- 문화예술 창작, 기획, 매개, 활동가들을 위한 온라인 정보 공유공간으로서, 양질의 온라인 콘텐츠 생산을 위해 창작자에게 공유 스튜디오 및 촬영 장비 제공, 콘텐츠 제작 및 홍보 관련 멘토링 서비스 제공, 통합 홍보 플랫폼 구축

광주문화예술플랫폼

문화예술플랫폼 소개

문화예술플랫폼 정보

예술인(인)사이드

문화예술플랫폼 정보

이 문화예술플랫폼 정보는 더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해 문화예술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서로 믿을 수 있는 정보 공유를 위해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글을 올려 주세요.

*상업적 광고나 욕설,비방글 등 문화예술 정보 성격에 맞지 않는 내용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2021년02월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검색 위치

지역선택

전체

제목

출발지 찾기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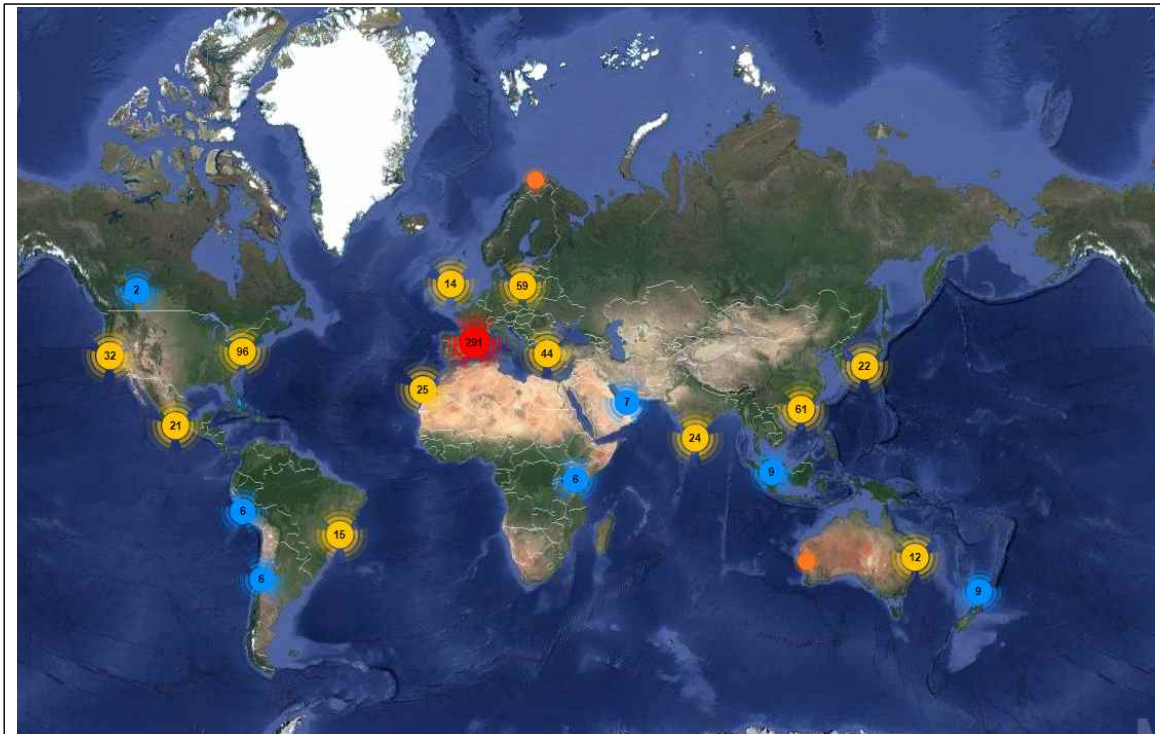
광주문화재단은 광주시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치기반 서비스를 도입한 플랫폼을 운영 중이며, 플랫폼 이용 데이터 및 시민 피드백 내용을 토대로 지속적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음

출처: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그림 6-8]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사례 : 광주문화재단

- 134 -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예술인 긴급지원금 및 예술인 복지를 위한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 창구
- 온라인 콘텐츠 내 저작권 명시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지침, 지역 문화기관 및 예술강사의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다양한 소스 공유 플랫폼으로 기능 수행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공연예술 국제교류 정보플랫폼 '더아프로'. 코로나 상황에서도 해외 진출 관련 각종 공모 소식과 국내 공연단체의 해외 진출 사례, 해외 관계자들을 위한 국내 작품, 공연장 정보와 홍보영상 등을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음

출처: 더아프로 홈페이지

[그림 6-9] 온라인 통합 포털 구축 사례 : 더아프로(예술경영지원센터)

□ 기대 효과

- 문화예술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문화접근성 제고

3. 문화예술 가치성 증진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 및 증진시키기 위한 토대 마련

1) 시민 문화예술 관심 증가 계기 확대

①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기획전시 유치

□ 배경 및 목적

-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기획전시를 유치함으로써 시민의 관심도 제고 및 인식변화 계기를 제공함
- 특히 사회문화적 이슈 및 트렌드와 맞닿아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함으로써 김포시의 문화 이미지를 제고함

□ 주요 내용

- 시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는 무엇보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의지를 자극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 이에 작품의 예술적 가치만을 중시하는 엘리트 예술주의(문화의 민주화) 전시가 아닌 대중성에 기반한 매력적인 전시를 집중 유치할 필요가 있음.(문화민주주의적 접근)

[참고]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각국들은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면서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문화예술시설을 많이 짓고 전문 예술단체를 지원했음. 이를 문화의 민주화 정책이라 함. 즉 공연장과 전시장을 많이 만들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많이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골격임. 하지만 이런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화예술을 즐기는 시민들은 크게 늘지 않았음.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아마추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권장하고, 소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등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예술 활동의 참여를 지향하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했는데 그것이 곧 문화민주주의의 정책임.

출처: 이동형(2020), "지역문화재단, 문화민주주의가 답이다"



출처: 훈데르트바서닷컴 홈페이지

[그림 6-10]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기획전시 사례 : 훈데르트바서展

- 대중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기획전시란 단순히 특정 테마, 특정 작가, 특정 작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재현 및 소비되는 방식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형태여야 하며, 나아가 전시와 함께 시행되는 다양한 부대행사의 독창성까지 모두 포함함
- 이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아티스트와의 네트워크 구축은 필수 조건이며, 특히 사회적 관심사가 급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술 스펙트럼을 관통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시민 모두가 부담 없이, 그리고 흥미롭게 참여 가능한 기획전시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시민의 전반적 문화예술 참여빈도 증가를 꾀함
- 참여경험의 증가는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변화 및 삶의 방식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

② 생활밀착형 소재의 흥미 유발형 문화이벤트 개최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의 고상함과 아우라를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가볍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흥미 유발형 문화이벤트 개최로 시민의 이목을 끌고 참여를 독려함

□ 주요 내용

- 지역 내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의 일상화를 도모함은 물론, 생활밀착형 소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진입장벽을 완화함. 카페쇼, 뮤지엄 나이트, 김포 이슈 플래시몹, 사일런트 디스코 뮤직 워킹투어 등은 여기에 해당하는 적합한 사례임.
- 남부권 중심으로 거주 중인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야간 이벤트 등은 김포시만의 독특한 문화경관을 형성하는 중요 요인이 될 수 있음
- 문화시설별로 집중하는 기획전시 테마를 서로 달리함으로써 김포시 전역에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이 일률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양함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되는 뮤지엄 나이트. 젊은 연령층을 끌어들이며 뮤지엄에 활기를 불어넣고 궁극적으로 모든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비전 아래 평소 뮤지엄에 큰 관심이 없는 지역 청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함.

출처: 김준호(2017), "도시 야간문화, 감성과 욕망을 품다" (아키스브리핑 108호)

[그림 6-11] 문화이벤트 사례 : 뮤지엄 나이트



출처: 서울카페쇼 홈페이지 & HT여행사 홈페이지

[그림 6-12] 문화이벤트 사례 : 카페쇼(좌) & 사일런트 디스코 뮤직 워킹투어(우)

□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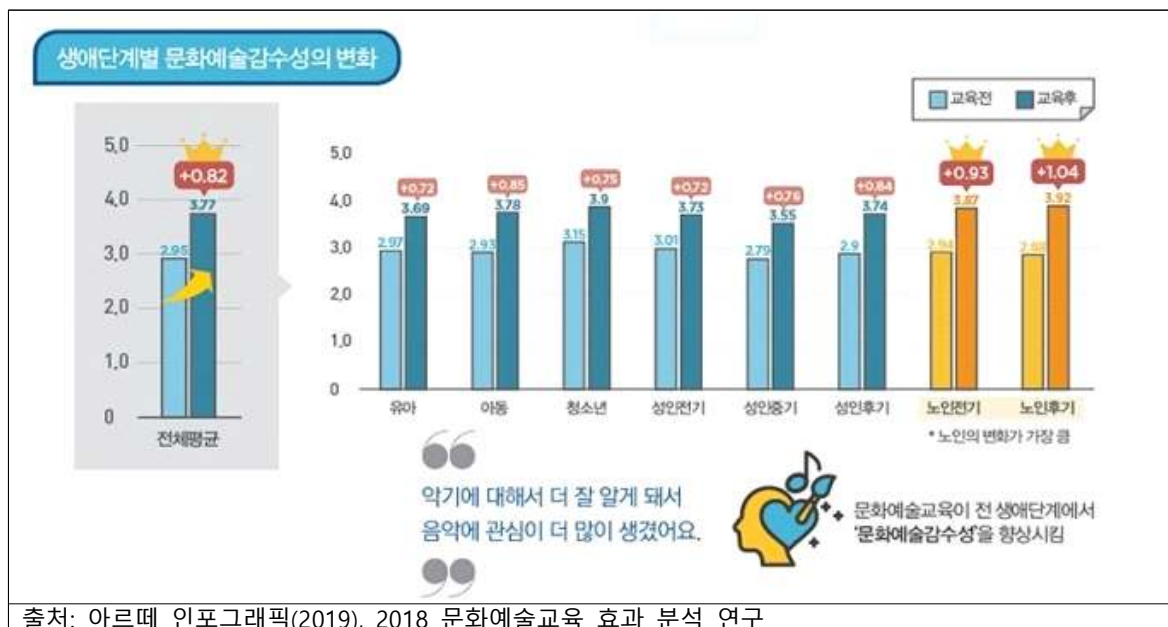
- 쉽고 편안한 참여, 즐겁고 유쾌한 경험을 선사함으로써 문화예술 무관심층의 참여 유도를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이는 김포시민의 문화 감수성 향상으로 귀결될 수 있음

2)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확대 추진

① 생애주기별 평화문화예술교육 확대 추진

□ 배경 및 목적

-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 문화예술교육 추진 및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해 문화시민 양성의 토대 마련



출처: 아르떼 인포그래픽(2019), 2018 문화예술교육 효과 분석 연구

[그림 6-13] 생애단계별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문화예술감수성 변화)

□ 주요 내용

- 유·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등 연령대별로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성장단계에 따라 프로그램 참여가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맷 마련
- 문화예술교육은 그 대상과 내용의 범위가 넓고 교육의 효과도 다각적이므로 최소 3년간 지속 추진 후 그 성과를 가늠하도록 함
- 수준 높은 문화예술교육은 양질의 프로그램 안에서만 실현 가능하므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개선 필요


□ 기대 효과

- 생애주기별 목표는 유아(출생~7세)의 경우 ‘문화수용력-자기표현력/공감능력-창의성’이며, 아동(8세~13세)은 ‘자기표현력-행복감-창의성/친밀감’, 청소년(14세~19세)은 ‘행복감-자아존중감-자기표현력’, 성인(20세~64세)은 ‘자기표현력-행복감-자아존중감’, 노인(65세 이상)은 ‘행복감-자아존중감-친밀감’으로 각각 변화함

② 청소년 학교 밖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 조성

□ 배경 및 목적

- 21세기 들어 상상력·창의력 같은 소프트파워가 주목받고 가운데 창조와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또한 증대되고 있음
- 특히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과잉경쟁 등으로 점철된 한국 사회의 위기를 해소하는데 문화예술적 체험과 배움의 역할은 더욱 강조됨
- 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처럼 지역에서 창의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학교 밖의 문화예술교육 특화 공간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싱키 시에서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로서 폐초등학교 건물을 예술교육센터로 개조(1987년)해 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대상으로 특화된 예술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 ▪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2x5교육프로그램(초등학생 대상, 주 2시간씩 5주 동안 학교 연계 예술교육 실시)을 실시 중임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8.03.30.), "한국형 아난탈로 '꿈꾸는 예술터' 본격 추진	

[그림 6-14] 핀란드 아난탈로 아트센터 사례

□ 주요 내용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할 수 있는 지역 거점으로, 지역 내 아동, 청소년,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작과 놀이 중심의 융·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
- 폐공장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문화예술교육센터를 조성하고 기존의 예술창작공간과 연계 운영함

□ 기대 효과

- 중앙 주도적 지원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 수요와 요구, 지역 내 환경과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확산의 계기를 마련

3)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체계 개선

① 문화유산 융합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배경 및 목적

- 김포시 곳곳에 분포한 유적들을 토대로 한 역사문화가 재조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역사는 지역문화의 뿌리이자 원천이 되는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 아카이빙 및 활용의 필요가 있음
- 김포시는 포구문화 및 평화문화의 상징적 지역인만큼, 이에 대한 재조명, 그리고 지역의 구도심 활성화의 구심점으로서의 콘텐츠 개발 시급

□ 주요 내용

- 시대기적 문화역사자원을 소재로 김포시의 전통문화 콘텐츠를 활용하여 융합형 역사관광콘텐츠 및 축제 개발
 - 건축물의 복원을 통한 역사의 재현과 함께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적 요소 필요
 - 최근 건축물 표면에 조명 시설을 설치하거나 디스플레이 기법을 적용해 새로운 이미지와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건물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고 도시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 파사드⁷⁵⁾' 설치가 각광받고 있음
- 기존에 진행되어 온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합 관리체계로 변경하며, 문화유산에 대한 시민 관심도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유산의 재미 요소를 적극 발굴 및 부각시킴

□ 기대 효과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김포시의 문화적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융합형 콘텐츠 개발을 통한 우수한 지역 이미지를 초청 방문객에게 각인시킴
- 김포시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를 갖게 된 선경험자들이 축제 및 공연 경험 이후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 더 많은 잠재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김포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활성화 제고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

② 전국 및 국제 학술교류행사 유치

□ 배경 및 목적

- 김포시 역사에 담긴 가치와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전국 혹은 국제단위 학술교류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75) 미디어 파사드는 미디어(Media)와 파사드(Facade)를 결합시킨 용어로 건물 외벽을 대형스크린처럼 꾸며 다양한 예술콘텐츠를 대중에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함(new1 KOREA, 2013.8.22.)

- ‘국가’, ‘국민’, ‘대한민국’이라는 용어 보다 ‘사람’, ‘개인’, ‘사회’를 중시하고자 하는 새 문화정책⁷⁶⁾의 방향성 속에서 국제문화교류의 본질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임⁷⁷⁾
-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으로서 2017년 9월 <국제문화교류진흥법>이 제정, 법정 계획으로서 국제문화교류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명시하여(5년 단위)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의 환경 조성이 기대되는 상황

□ 주요 내용

- 김포 문화유산 혹은 지역 특화자원과 연계한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함으로써 김포시 자원의 국제화 방안을 모색함
- 심포지움과 같은 학술행사 뿐만 아니라 박람회, 포럼, 전시회 등 다양한 포맷의 교류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김포시의 역사 콘텐츠(스토리)의 위상을 제고함

□ 기대 효과

- 김포시 문화유산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 (관련 상품의 국제화 판로 개척 영역 포함)
- 김포시라는 도시의 세계적 인지도를 높임으로써 지역브랜드 및 국가브랜드 위상 제고

4) 문화다양성 구현 기반 마련

① 시민 체감 문화다양성 콘텐츠 육성

□ 배경 및 목적

- 2014년 5월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우리 사회는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됨에 따라 급속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경험하였지만, 한국인의 문화공존의식은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세계 인권문제와 연계하여 문화주권은 국민, 국가의 문화정체성과 문화유산의 특성을 보존하기 위한 권리와 국민, 국가 내 소수민족이나 종족들의 언어와 관습,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논의됨

□ 주요 내용



- 국가적 차원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의의를 지역의 다양한 문화 보호 및 확산의 기초로 삼고 이를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활용

□ 기대 효과

- 다문화적 환경 속에서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문화다양성을 통한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며, 사회 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과 시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함
-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의 동력인 속의 민주주의 관점의 시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

76)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비전 2030>

77) 문화체육관광부(2018), 「국제문화교류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p.3

사업 추진 방향	
김포시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 콘텐츠를 육성	
세부 사업 내용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확산 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 교육 교과과정을 개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직장 및 학교에서 교육이수 의무화 등 추진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젠더, 지역, 인종, 종교 등 문화정체성에 기반 다양한 예술 지원 비중 확대 상호 이해, 다문화 배려 서비스 구축 상호 문화이해·문화수용을 위한 관광교류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문화권을 배려하는 관광서비스·관광안내·관광인프라 보완
문화다양성 축제·관광 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문화·공연 향유 프로그램 및 김포시 전통예술의 대중화, 현대화를 위한 창작 활성화 김포시 전통문화예술을 영상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 전문 텔레비전 방송, 영화 무료상영 서비스 추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문화다양성 축제 예시</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지역 관련 영화 무료상영</p> </div> </div>

② 크로스장르 복합·다원예술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목적

- 다원예술은 기존의 장르예술과는 달리 복합장르, 실험예술, 대안예술, 독립예술의 개념을 아우르는 새로운 예술개념으로서 기존의 장르체계나 예술개념으로 수렴되지 않고 예술의 최전선에서 창조성이 극대화 된 새로운 형태의 예술 또는 장르⁷⁸⁾로 여겨지고 있음
- 지역에 다양한 예술가들의 활동을 독려하고 예술가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창조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다원 예술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창의적 도시’로서의 지역의 전통-현대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고 예술가의 활동이 예술가 개인에게 수렴되지 않고 지역사회에 창조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센터를 건립하고 전 세계 다양한 창의인력들의 유입을 장려할 수 있는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 한편, 청년 실업과 청년빈곤 확대 등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 세대들의 새로운 공동체 활동들이 관심을 끌고 있으며 “협력적 공유”로서 공동체형 청년문제 해결의 실마

78) 한국문화예술위원회(2008), 「다원예술 창작현황 연구」 p.16

리를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 '공유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 공유된 공간을 통해서 청년들의 취향과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는 추세임
- 생활권 단위 지역자치 활동에서 공동체로서의 청년 문화예술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다양한 장르가 결합한 사회문화적 활동이 확대되는 추세임

[사례] 서울 문화역 284: 음악전시회 '공감잇기'

- 공감 잇기'는 음악·미술·무용·연극 등이 전시와 공연 형태로 꾸며지는 다원 예술 전시회로, 젊은 미술가 4명의 작품 20여 점이 음악과 함께 상설 전시됨
- 양을 주제로 희생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희생양(喜生羊)들: 기쁨을 주는 양들'(미술 김범준·음악 장은령 외 3인), 서로 이해하는 그리운 하나의 시선을 꿈꾸는 '그리다'(미술 이선미·무용 김동욱), 순수함의 가치를 알려주는 '동화(同話)'(미술 소현우·배우 전현숙 외 5인), 타인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자화상'(미술 이효연·무용 김동욱), 개개인은 모두 특별하고 빛나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난 짱!' 등 다섯 작품 전시

□ 주요 내용

- 유휴공간을 활용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원예술 활동의 장과 자생력 확보의 토대를 마련하며, 능동적인 정책구성을 위한 교류 효과, 예술가 재교육 및 매개자 발굴 효과 등 추구

사업 추진 방향	
다원예술분야의 실험성을 담보하고 예술가들의 소통,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다원예술매개공간으로서의 센터 건립	
세부 사업 내용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유휴공간 활용 크로스장르 레지던시 프로그램> 추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가능 장르: 순수·현대미술, 공예미술, 문학, 건축, 디자인, 사진, 국악, 클래식, 재즈, 락 분야의 지원자 7명 선발 • 입주가능 기간: 최소 3개월 ~ 최대 5개월 • 입주자 지원항목: 입주비 무료, 숙박, 숙식, 작업실, 전시·공연 개최, 강의지원
	다원예술분야 예술가들의 소통, 네트워크 형성 등을 통해 다원예술현장의 활성화를 추구

□ 기대 효과

- 예술현장의 변화를 기반으로 지역민들의 창의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한 지역의 새로운 미래 역량 개발
- 국제적 예술 네트워크의 중심 공간이자 예술 다양성의 가치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지역 이미지 구축

4. 문화예술 지속성 확보

문화안전망의 지속성 확보 및 지역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1) 사업 추진체계 정비 및 인력 양성

① 광역단위 민-관 협의체 운영

□ 배경 및 목적

- 지자체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행정기관·교통사업자·음식점·숙박시설을 총망라한 협의체를 중심으로 사업 추진
- 유사한 문화예술 환경 및 역사문화적 배경을 공유하는 지역 간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장 규모 확대 및 사업 임팩트 강화 도모

□ 주요 내용

- 김포시에는 문화예술 사업 추진을 견인할 기관이나 조직이 부족한 상황으로 김포시 문화예술사업의 지속적 관리 및 운영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민간의 중간지원조직 설립이 필요함
- 파주, 고양 등 인접 지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공동 추진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규모 및 범위 확장은 물론 지역 간 이해도를 제고함
- 지역 문화예술 사업에 연계된 부서, 지역주민, 민간조직이 유기적인 협조 체제 아래 마케팅, 관광지 운영/관리 등을 재단 주도하에 추진함 : 행정 지원은 지자체가, 문화예술 상품 개발은 민간업체가 각각 담당



□ 기대 효과

- 문화예술 관련 각종 데이터 등의 지속적인 수집·분석, 데이터 기반으로 명확한 지역문화 컨셉 구축
- 브랜딩 작업 등에 대한 체계 구축에 용이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과학적 접근 가능

② 전문가·매개자 양성 교육기반 구축

□ 배경 및 목적

-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전통~현대)에 대하여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가치를 탐색하고 이를 지역 내 혹은 타지인들에게 하나의 문화적 요소로서 소개하는 움직임 확대
- 청년 중심 지역민 참여형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이들을 관광매개인력으로 활용하여, 생활권 단위의 관광 활동을 활성화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150명으로 구성된 '공공미술 시민발굴단'은 서울시내 공공미술을 찾아내고 관련 스토리를 발굴 • 결과에 대하여 서울형지도태깅 누리집과 블로그에 직접 올려 체계적으로 관리 • 주제 선정부터 전시 개최까지 모든 과정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민관협력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문화관광해설사는 서울을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상세하고 알기 쉽게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서울의 주요 관광명소로 구성된 다양한 도보관광 코스를 함께함
<p>자료: 라펜트(2018.05.09.), "서울시,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150명 모집",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p>	

[그림 6-18] 서울시 공공미술 시민발굴단 활동 모습(위) & 서울시 도보관광 포스터(아래)

□ 주요 내용

-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수요 파악, 잠재력 및 발전가능성이 높은 주민조직 발굴, 사업계획 수립 지원, 주민관광기업 창업 및 지속 성장 지원할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자원 발굴단을 조직하고 이들을 지역의 매개인력으로 활용함
- 청년 중심 문화예술자원발굴단 조직 : 지역 내 청년 중심 다양한 문화예술자원을 발굴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생활권 단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지역의 역사, 자연, 생태, 문화, 예술적 장소를 걸으며 관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국제관광 매개 인력육성 및 활용 : 외국인 관람객을 대상으로 개별 관광가이드로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청년 관광 안내단 육성

□ 기대 효과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도보관광 등 지역 관광상품 다각화에 기여
- 도시에 대한 관심과 도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역사콘텐츠의 가치에 대해 재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

2) 지역 대표 콘텐츠 발굴 및 육성

① 평화를 테마로 하는 지역 대표 브랜드 축제 개발

□ 배경 및 목적

- 김포시만의 특성과 차별성이 부각될 수 있는 지역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축제화 함으로써 지역의 대표 문화 콘텐츠로 육성함

□ 주요 내용

- 지역의 대표적 이미지인 평화를 컨셉으로 하는 축제를 개발 및 집중 육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함

- 평화를 테마로 하는 주변 도시(파주, 고양 등)와 차별화될 수 있는 소재 및 방식 개발이 관건이며, 4차 산업기술 접목한 온라인 축제 및 국지성 축제를 함께 기획함으로써 참여자층 확대 및 팬데믹 상황 대비 필요

[참고] 명품도시 김포 프로젝트 內 “북녘 땅이 보이는 평화로운 한강 문화팔경”



□ 기대 효과

- 지역의 대표 콘텐츠는 김포시 상징 이미지 및 정체성을 보다 견고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임
- 지역문화로서 생활문화의 역할을 제고하고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동네 단위의 문화적 재생을 이끌어내는 계기 마련

② 역사-기술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배경 및 목적

-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하여 예술 분야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존의 예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형식과 표현을 만들어내고 있음
- 향유자가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아트, 향유자 선호 기반의 인터랙티브 디자인 등 예술 창작과정에서 향유자의 참여가 확대됨
-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상 개인(사용자)이 테크놀로지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그 일부로서

기능하여 인터랙티브(상호작용) 효과를 발생시켜, 관객이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아닌 작품의 일부 또는 참여자로서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가 됨

- 디지털(digital)과 아날로그(analog)의 합성어로 아날로그 사회에서 디지털로 이행하는 과도기, 혹은 디지털 기반과 아날로그 정서가 융합하는 첨단기술로서 '디지로그'(digilog) 활동이 사회, 문화, 산업 전반에 하나의 흐름을 형성⁷⁹⁾하고 있음
- 특히 디지로그가 상품마케팅과 결합되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한 서비스가 향수, 추억, 정, 그리움과 같은 아날로그적 정서와 욕구를 반영하는 마케팅은 '감성 마케팅'의 영역으로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와콤 잉클링 (Wacom Inking)</p> <p>·잉클링 스캔클립 리시버에 종이나 노트를 끼운뒤 잉클링 전자펜으로 그림을 그리면 종이에 그리는 모든 이미지와 필기 내용이 PC로 바로 저장됨</p>
	<p style="text-align: center;">삼성 무선 듀얼 도킹 오디오</p> <p>·클래식한 원목 무늬의 레트로 디자인과 진공관 앰프로 아날로그적인 강조</p> <p>·스마트폰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도킹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아이폰을 연결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SK 텔리콤 '100년의 편지'</p> <p>·2014년 SK텔레콤이 출시한 '100년의 편지' 어플리케이션은 현재의 감정을 미래로 배달하는 '모바일 편지'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최대 30년 후 까지 동영상, 음성, 사진 등의 방식으로 메시지 전달</p> <p>· 출시 한달만에 설치자의 63%가 실제로 편지를 보냈고, 이용자의 91%가 앱평가에서 최고점수를 줌</p>
<p>출처: OPUS YONSEI Marketing Review(2015.12.22.) "감성과 기술이 융합하다: 디지로그 마케팅, Platum(2013.10.18.), "최첨단 디지털 기능과 따뜻한 감성이 공존하는 디지로그 제품"</p>	

[그림 6-19] 디지로그를 접목한 상품 및 서비스 사례

○ 가상현실(VR)·로보틱스·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문화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분야의 신직종이 증가됨에 따라 문화예술 콘텐츠 분야에서 급변하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훈련 필요

- 지역의 청년 인력 유입을 위한 새로운 융복합 콘텐츠 인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시설과 장비 활용, 인근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의 협력모델 구현이 가능한 환경 조성 필요
- 지역 산업구조 및 인력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특화형 융복합 분야 인력 양성체계 구축 필요

79) 매일경제용어사전 '디지로그' 참고

□ 주요 내용

- 전통 무형유산 기법 및 디자인 등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1:1 접목이 아닌 융합의 관점에서 새로운 콘텐츠로 재탄생될 수 있는 예술 프로젝트 활성화
 - 디지로그의 활용이 다양한 콘텐츠(제품 및 서비스)로 이목을 끌기 쉬운 반면, 장기적 관점이 아닌 이슈성의 단기적 성공에 그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CRM 경영 전략⁸⁰⁾을 접목하여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함
- 예술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다양한 파생 서비스 및 상품들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로그 융합 콤플렉스를 조성하여 사업 활성화의 기반 마련
- 미래기술에 친화적인 예술참여 기반 마련을 통한 ‘리터러시’ 제고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기술-예술 융합 프로젝트 실험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필요. 예술분야의 새로운 기술 적용을 위한 창작자 재교육 워크숍 운영, IOT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예술 체험 공간, 메이커스스페이스 등 미래기술 참여기반 프로젝트 진행

사업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콘텐츠 장르별 문화x기술 인재양성: 문화기술과 콘텐츠의 접목으로 도출 가능한 신직종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융합형 교육과정 개설(e.g. 애니메이션 X 로봇틱스, 공연 X 드론, 캐릭터 X IoT, 영상 X 홀로그램, 음악 X IoT, 스토리 X 빅데이터 등) 콘텐츠 융복합 예술창작 활동 인력 플랫폼 구축: 관련 분야 정보 교환 및 성과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프로젝트 및 교육 공유 및 성과확산을 위한 공동 컨퍼런스 및 세미나 운영, 융합콘텐츠 성과발표회 	
세부 사업 내용	
콘텐츠 장르별 문화x기술 인재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콘텐츠 융합형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 가능 기관 지정 지역 콘텐츠 산업 인력 유치 및 양성 체계마련
콘텐츠 융복합 활동인력 플랫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활동 인력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DB구축 관련분야 정보 교환 및 성과확산의 기회 제공
융복합 콘텐츠 창작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내 융복합 콘텐츠창작 활성화 및 산학연 연계 효과 극대화 및 융합콘텐츠 산업 인력 확대



- 김덕수사물놀이패와 디지털기술이 접목된 공연콘텐츠 개발
- 사물악기의 소리의 강도, 연주자들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센서기술을 활용하여 연주자들의 공연 형태와 관객의 반응에 따라 실시간으로 영상이 변하도록 함

출처: 뉴스포스트(<http://www.newspost.kr>)

[그림 6-20] 무형유산과 디지털 기술 접목 예술 프로젝트 예시

80)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의 약자로 ‘고객관계관리’전략을 의미함. 고객의 구매 패턴과 취향 등을 분석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고객을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고객 개개인의 행동을 예측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김포의 역사와 이를 둘러싼 상징적 자원(포구 등)의 가치를 발굴하고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해당 콘텐츠와 4차 산업 기술 간 적극적 융복합 필요하며 특히 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과 연계 추진 필수

□ 기대 효과

- 아날로그적 정서에 높은 가치를 둘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전통의 가치가 현대의 기술과 접목되어, 일상적인 것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감성적 경험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함
- 예술프로젝트로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환기시키고 유산의 활용성을 높여 지역의 대표 콘텐츠로서 지역 방문 매력도 증진에 기여

3) 지역 문화역량 강화 경험 축적

① 아트패키징 산업 지원 및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 배경 및 목적

- 문화와 관광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관광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아트패키징 산업 육성
- 문화투자를 통해 문화소비를 이끌어내고 지역 내 소비순환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관광상품화 패키징 디자인 지원이 필요함

□ 주요 내용

-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관광상품과 매칭하여 지원하고, 아트패키징 공모사업 및 전시회 개최 : 쌀 등 김포시의 고유 특산품을 관광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지원사업 추진
 - 아트패키징 공모지원 : 지역 기반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예술작품을 관광상품화 하는 매칭지원 및 공모사업 지원 (예술가 + 관광상품)
 - 디자인 개발 및 관광상품화 : 김포의 특색을 드러내는 관광상품 디자인 개발 지원, 김포의 도시 특성을 바탕으로 김포 청년문화예술인들이 창작하는 Art-Product 지원을 통해 장기적 아트패키징 산업 육성 (지역 + 관광상품)
- 청년공동체 및 청년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기반 청년활동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청년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모여 지역단위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광역 및 전국단위 네트워크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지역의 글로벌 소프트 파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함

□ 기대 효과

- 지역 내 청년문화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자력 경제기반 조성
- 도시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김포시를 대표 관광도시로 부흥시킴

② 공공프로젝트 및 광역 사업 연계 운영 확대

□ 배경 및 목적

- 김포시에는 다양한 특색을 가진 여러 거리들이 존재하나 몇 개 거리를 제외하고는 활성화 정도가 미진함. 이에 거리 명칭에 부합하는 정체성의 강화를 통해 활성화 정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야 함
-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김포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기 위하여 김포시의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여 역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관광자원화한 골목 코스 개발

□ 주요 내용

- 예술의 사회화 차원에서 창작중심의 예술가들에게 사회적 실천 방법과 과정을 공유하게 하며, 사회의 예술화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실천적 역량을 예술 창의력과 결합 및 협업할 수 있도록 함
- 지역특화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내에 예술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새로운 개념 등을 함께 공유할 기회를 만들
- 골목길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예술 골목길을 관광코스로 개발하며 맛집 지도 제작하는 등 침체된 상권의 부활 및 관광 활성화를 유도함
 - 문화예술 골목길의 문화자산을 스토리텔링 자원으로 활용
 - 골목길 관광코스과 음식관광 지도를 리플렛과 가이드북 형태로 제작하여 배포
 - 환경개선 : 간판 정비(간판 디자인 개선), 조명 정비(테마가 있는 조명 설치), 가로 입면 정비(이야기가 담긴 담벼락 벽화)
 - 골목길, 전통 장인, 벽화마을 등을 결합해 생활형 전통공방촌으로 조성하고 지역 공예산업의 지속가능한 재상력을 확보하고 특화자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젝트 추진
-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광역 단위 인지도 확보 및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 계기 마련 가능 : 경기만 에코뮤지엄⁸¹⁾ 등

□ 기대 효과

- 김포 문화예술 골목길 투어리즘으로 활용하여 김포문화예술도시 관광활성화를 도모함
- 영업환경 개선 및 유동인구 증가로 지역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있음

4) 단계별 평가·환류 체계 구축

① 문화예술 분야 평가체계 및 지표 개발

□ 배경 및 목적

- 문화예술 정책사업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방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가 나침반 역할을 수행함
-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분야 평가체계 및 지표를 참고해 김포시 맞춤형 평가체계를 구축함

81) 현재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은 경기문화재단이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와 협력 추진 중이며, 사업의 취지, 범위, 내용을 고려했을 때 김포시와 문화 특성과 밀접한 연관 있음

□ 주요 내용

- 김포시 문화예술 정책사업 평가체계 개발 연구 용역 수행 : 문화영향평가, 지역문화지수, 문화다양성지수, 문화관광분야 예타 기준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적용되는 다양한 측정/평가 지표를 참고해 김포시 문화예술 정책의 방향성을 담은 평가체계 및 지표를 개발함
 - 지역 수요와 사회 조건을 모두 고려한 지표체계, 지표와 조사항목의 명확한 구분,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의 적절한 배분 등 주의 필요
- 평가방법론 및 분석 툴 개발 : 인덱스 역할을 하는 지표체계에 의해 조사/평가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지표별 측정방법과 분석 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짐. 이와 관련, 전문가 그룹의 검토 과정을 거쳐 김포시에 적합한 방법론을 구축하도록 함.

□ 기대 효과

- 시 차원의 정책평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 자체 모니터링/평가를 진행함에 있어 김포시에서 제시한 평가체계가 기준으로 적용됨에 따라, 지역 내 표준화 체계 유지 및 사업 추진방향의 일관성 확보 가능

② 모니터링 평가단 구성 및 연차평가 지속 추진

□ 배경 및 목적

- 정책사업 추진의 당위성 확보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해 연차평가를 지속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엄밀한 진단을 위해 모니터링 평가단을 구성함

□ 주요 내용

- 개발된 평가체계에 맞춰 연차평가 추진하되 평가의 엄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모니터링단 및 전문평가단 별도 구성·운영함
- 특히 연차평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평가체계 및 지표 개선 시점이 도래하게 되면, 기존 체계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닌 추가/보완하는 형태가 적절함 : 평가결과의 아카이빙 및 평가결과 간 비교가능성 확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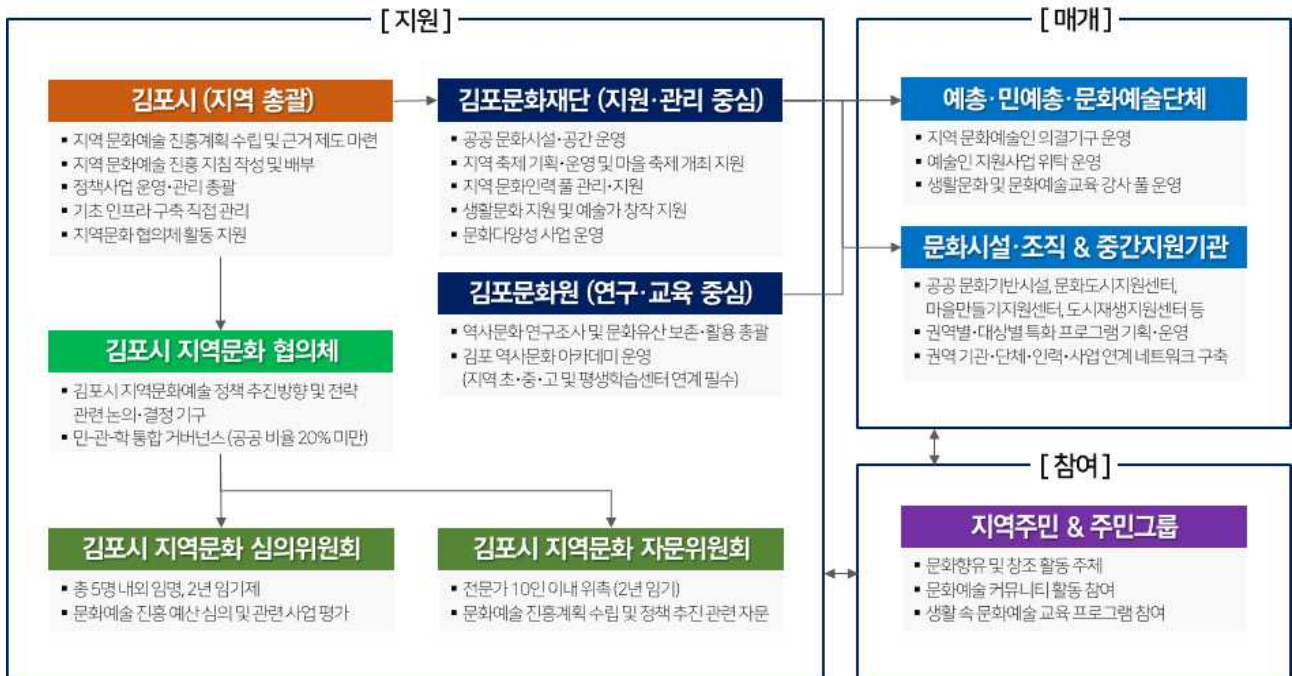
□ 기대 효과

- 다양한 그룹이 모니터링 평가단으로 참여함에 따라 문화예술 정책 방향성에 대한 지역 공감대 및 이해도 제고

Ⅶ. 세부 실행계획

1. 추진체계
2. 투자계획
3. 단계별 로드맵

1. 추진체계



□ 지역문화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원그룹, 매개그룹, 참여그룹으로 구분하며 주체별 R&R 조정

- 기존 핵심 추진 주체인 김포시, 문화재단, 문화원 등은 물론 민간영역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김포시 지역문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함
- 지역 총괄 역할의 김포시 산하에 김포문화재단은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며, 김포문화원은 역사 및 문화유산 부문에 특화된 연구·조사·교육 역할을 핵심 기능으로 설정함
- 이외에도 예술과 민예총을 중심으로 구성된 지역 문화예술단체, 주민이 주도하는 풀뿌리 문화예술 그룹 등과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함

□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병행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은 경영 비전문화와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수많은 영세 기업들이 사업을 영위할수록 경영난에 처하는 딜레마에 빠짐. 따라서 문화융합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기획, 공동패키지 개발, 공동시설 등에 대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류할 필요가 있음
- 김포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들의 공동 육성을 통해 문화예술인을 위한 컨설팅 및 간접 지원 창구를 마련하여 김포시 취업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 가능
 - 문화예술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운영·책임지는 조합체를 구성하고, 매달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교환 및 협의를 통한 운영체제 구축함
 - 문화예술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문화예술 사회적기업들이 이윤창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
 -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의 상품 상업화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확산할 수 있는 판로 개척

2. 투자계획

추진전략	추진과제		사업비(백만원)					
			계	2021	2022	2023	2024	2025
I.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I-1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내실화	105,200	8,200	14,000	20,000	29,000	34,000
	I-2	지역 문화예술 관련 연구·조사 정기 수행	1,300	200	500	200	200	200
	I-3	문화예술 창작지원 체계 재정비 및 사업 확대	8,800	800	2,000	2,000	2,000	2,000
	I-4	권역별 문화 거버넌스 구축 및 공공-민간 연계 활성화	6,600	600	900	1,200	1,500	2,400
II. 문화예술 접근성 개선	II-1	지역문화 거점 조성 및 운영 활성화	21,200	1,200	4,300	4,500	5,000	6,200
	II-2	문화소외지역 및 문화소외그룹 대상 맞춤형 문화 서비스 확대	8,400	900	1,500	1,500	2,000	2,500
	II-3	정책사업 정보화 추진 및 홍보 활성화	2,100	200	400	500	500	500
	II-4	위드 코로나 시대 김포형 문화예술 뉴노멀 마련	3,300	1,000	800	500	500	500
III. 문화예술 가치성 증진	III-1	시민 문화예술 관심 증가 계기 확대	8,900	900	1,400	1,600	2,000	3,000
	III-2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확대 추진	7,800	700	1,200	1,400	2,000	2,500
	III-3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체계 개선	4,600	400	700	1,000	1,500	1,000
	III-4	문화다양성 구현 기반 마련	7,300	900	1,200	1,400	1,800	2,000
IV. 문화예술 지속성 확보	IV-1	사업 추진체계 정비 및 인력 양성	4,800	200	700	900	1,500	1,500
	IV-2	지역 대표 콘텐츠 발굴 및 육성	4,800	200	400	700	1,500	2,000
	IV-3	지역 문화역량 강화 경험 축적	9,200	500	1,200	1,800	2,500	3,200
	IV-4	단계별 평가·환류 체계 구축	1,900	200	300	400	500	500
계			206,200	17,100	31,500	39,600	54,000	64,000

3. 단계별 로드맵



□ 단기(2021), 중기(2022~2023), 장기(2024~2025)로 구분 후 각각의 목표 설정

- 5개년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 단계별 목표를 차별화함으로써 체계적 사업 수행 가능성을 확보함
- 단기(2021) 목표는 ‘문화예술 진흥 기초토대 마련’으로, 이해와 공감이라는 키워드 하에 지역 진단 및 가치 발굴, 생활문화 인프라 구축, 소통 및 교류 증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수행함
- 중기(2022~2023)에는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목표로 하며, ‘관심 및 참여’라는 키워드 아래 권역별 문화격차 완화,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지역문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확대를 역점적으로 수행함
- 마지막 장기(2024~2025)는 문화예술 고도화 단계로, 확대 및 확장이라는 키워드를 설정했으며, 부족한 영역 및 장르의 집중 육성, 대표 콘텐츠 및 프로그램 육성, 정보화 플랫폼 구축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함

□ 향후 5년간 문화예술 진흥단계를 거치며 김포시는 문화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게 됨

- 성장단계별 기대효과는 각각 상이한데, 초기 단계의 경우 ‘김포시민의 인식 개선 및 기대감 형성’, 중기의 경우 ‘일상(라이프스타일)의 점진적 변화’, 장기는 ‘지역 자긍심 및 애착심 형성’으로 각각 설정할 수 있음
- 이러한 5년간의 성장단계를 거치며 김포시는 ‘문화예술의 가치를 아는 도시, 문화예술을 원하는 도시’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며, 향후 진정한 문화도시로 도약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 토대를 본 사업기간 내에 확보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함

<김포시 문화예술 종합발전계획 단계별 로드맵>

(과제 추진 강도 및 중요도 : ● > ◎ > ○)

추진전략	추진과제			추진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I.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I-1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내실화	기초 문화시설 추가 건립 및 노후화 개선	●	●	◎	◎	◎
			문화시설 프로그램 특성화 및 다양화	◎	◎	◎	◎	◎
	I-2	지역 문화예술 관련 연구·조사 정기 수행	지역 문화예술 실태조사 및 현황조사 추진	●	●	◎	◎	◎
			부문별, 대상별 계획수립 및 연구결과 아카이빙	●	●	◎	◎	◎
	I-3	문화예술 창작지원 체계 재정비 및 사업 확대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	●	◎	◎
			온라인 예술 유통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인력 양성	○	●	●	●	●
	I-4	권역별 문화 거버넌스 구축 및 공공-민간 연계 활성화	지역별 프로젝트 단위 문화그룹 활동 지원	◎	◎	●	●	●
			문화예술 무관심층 집중 발굴 및 네트워크 확대 지원	○	◎	●	●	●
II. 문화예술 접근성 개선	II-1	지역문화 거점 조성 및 운영 활성화	민간 유희공간 활용한 중심거점-위성거점 체계 구축	◎	◎	●	●	●
			시민 일상 속 문화예술 활동 참여 채널 확대	○	●	●	●	●
			통합문화이용권 및 지역화폐 드림사업 활성화	◎	◎	◎	◎	◎
	II-2	문화소외지역 및 문화소외그룹 대상 맞춤형 문화 서비스 확대	순회형 문화사업 통합 운영체계 마련	◎	◎	○	○	○
			4차 산업시대 문화예술 통합 플랫폼 구축	◎	◎	◎	●	●
	II-3	정책사업 정보화 추진 및 홍보 활성화	지역·사회 이슈 연계형 홍보 콘텐츠 지속 생산 및 공유	◎	◎	◎	◎	◎
			O2O 콘텐츠 개발 지원	●	●	○	○	○
			비대면 활동을 위한 통합 포털 구축	●	◎	○	○	○
III. 문화예술 가치성 증진	III-1	시민 문화예술 관심 증가 계기 확대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갖춘 기획전시 유치	●	●	◎	◎	◎
			생활밀착형 소재의 흥미 유발형 문화이벤트 개최	●	●	◎	◎	◎
	III-2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확대 추진	생애주기별 평화문화예술교육 확대 추진	◎	◎	◎	◎	◎
			청소년 학교 밖 문화예술 창작활동 공간 조성	◎	◎	◎	◎	◎
	III-3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체계 개선	문화유산 융합콘텐츠 개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	◎	●	●	●
			전국 및 국제 학술교류행사 유치	○	○	◎	◎	◎
	III-4	문화다양성 구현 기반 마련	시민 체감 문화다양성 콘텐츠 육성	◎	◎	◎	◎	◎
			크로스장르 복합·다원예술 활성화 지원	◎	◎	◎	◎	◎
IV. 문화예술 지속성 확보	IV-1	사업 추진체계 정비 및 인력 양성	광역단위 민·관 협의체 운영	◎	●	◎	◎	◎
			전문가·매개자 양성 교육기반 구축	○	◎	●	●	●
	IV-2	지역 대표 콘텐츠 발굴 및 육성	평화를 테마로 하는 지역 대표 브랜드 축제 개발	○	○	◎	●	●
			역사·기술 융·복합 콘텐츠 개발 및 활용	○	○	◎	◎	◎
	IV-3	지역 문화역량 강화 경험 축적	아트패키징 산업 지원 및 청년 공동체 활성화 지원	◎	●	●	◎	◎
			공공프로젝트 및 광역 사업 연계 운영 확대	◎	◎	◎	●	●
	IV-4	단계별 평가·환류 체계 구축	문화예술 분야 평가체계 및 지표 개발	●	◎	○	○	○
			모니터링 평가단 구성 및 연차평가 지속 추진	◎	●	●	●	●

부록

1. 시민 설문지
2. 창작자 설문지
3. 매개자 설문지
4. 전문가 설문지

(ID : _____)

본 설문조사는 「김포시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귀하의 답변은 김포시 문화예술 정책수립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호됩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관기관 : 김포시
연구기관 : 이안전략컨설팅 (연구책임 김준호)
조사담당 : 권상화 팀장 (02-6929-1922)

A1. 귀하의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평일, 주말 구분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A1-1. 평일: 하루 평균 약 ()시간 ()분
A1-2. 휴일: 하루 평균 약 ()시간 ()분

A2. 귀하께서는 평소 주말이나 휴일에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A3. 귀하께서는 평소 어떤 여가활동을 주로 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 |
|-------------------------|------------------------------|
| ① TV 또는 비디오(DVD) 시청 | ② 문화예술행사 관람 (연극, 영화, 전시회 등) |
| ③ 문화예술 활동 (글쓰기, 악기연주 등) | ④ 독서 및 음악감상 |
| ⑤ 운동경기 관람 | ⑥ 운동 (축구, 테니스, 조깅, 등산, 산책 등) |
| ⑦ 여행, 야외 나들이 | ⑧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
| ⑨ 사회봉사활동 (자원봉사, 사교모임 등) | ⑩ 종교활동 |
| ⑪ 휴식 (다른 활동 하지 않음) | ⑫ 기타 () |

A4. 귀하께서는 주로 여가활동을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 ① 혼자 ② 가족 (자녀 동반) ③ 가족 (자녀 미동반) ④ 친구 및 연인
⑤ 직장동료 ⑥ 동호회 회원 ⑦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⑧ 기타 ()

A5. 귀하께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 |
|-------------------------|------------------------------|
| ① TV 또는 비디오(DVD) 시청 | ② 문화예술행사 관람 (연극, 영화, 전시회 등) |
| ③ 문화예술 활동 (글쓰기, 악기연주 등) | ④ 독서 및 음악감상 |
| ⑤ 운동경기 관람 | ⑥ 운동 (축구, 테니스, 조깅, 등산, 산책 등) |
| ⑦ 여행, 야외 나들이 | ⑧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
| ⑨ 사회봉사활동 (자원봉사, 사교모임 등) | ⑩ 종교활동 |
| ⑪ 휴식 (다른 활동 하지 않음) | ⑫ 기타 () |

A6. 귀하께서는 문화예술이 본인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②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중요한 편이다. ⑤ 매우 중요하다.

A7. 귀하께서는 문화예술 향유 혹은 창작 활동을 하실 때 어떤 효과를 느끼십니까?

참여 효과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7-1. 참여하는 내내 즐겁고 유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A7-2. 참여하는 동안 마음과 정신이 치유되는 느낌을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A7-3.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A7-4. 문화예술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진다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A7-5. 시간을 더 쓰더라도 문화예술 활동을 또 하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A7-6. 비용이 더 발생하더라도 문화예술 활동을 또 하고 싶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A7-7. 함께하는 사람들(예술인, 관객, 수강생)과 유대감이 형성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B 문화예술 향유 경험

B1. 귀하께서 직접 관람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관람이란 TV나 스마트폰 등을 통한 관람이 아닌, 행사가 열리는 현장에 직접 방문해 관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의 연간 평균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행사	연간 평균 관람 횟수	만족도					향후 1년 이내 직접 관람 의향	
		불만족	←	보통	→	만족		
B1-1.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	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B1-2. 미술전시회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등)	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B1-3. 서양음악 (클래식, 오페라 등)	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B1-4. 전통예술 (국악, 풍물, 민속극 등)	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B1-5. 연극	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B1-6. 뮤지컬	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B1-7. 무용 (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B1-8. 영화 (영화관 방문 관람만 해당)	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B1-9. 대중공연 (콘서트, 쇼 등)	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B1-10. 박물관	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B1-11. 축제 (야외행사 포함)	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B2. 귀하께서 관람하신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지역은 주로 어디입니까?

- ① 북부권역 (월곶면, 하성면, 통진읍, 대곶면)
② 중부권역 (양촌읍, 장기동, 장기본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③ 남부권역 (김포본동,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④ 김포시 외 지역 (시·군) B2-1로

B2-1. 주로 김포시 외 지역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타 지역에 있어서 ② 관람비용이 저렴해서
③ 관람 환경이 쾌적해서 ④ 교통이 더 편리해서
⑤ 관련 정보들이 많아서 ⑥ 예매, 예약 등의 절차가 편리해서
⑦ 지인과 함께 관람하기 위해서 ⑧ 기타 ()

B3. 귀하께서는 주로 어떻게 관람하시게 되었습니까?

- ① 입장권 구입 ② 초대권 관람 ③ 무료행사 ④ 기타 ()

B4. 귀하께서는 주로 누구와 함께 관람하십니까?

- ① 혼자 ② 가족 (자녀 동반) ③ 가족 (자녀 미동반) ④ 친구 및 연인
⑤ 직장동료 ⑥ 동호회 회원 ⑦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⑧ 기타 ()

B5. 귀하께서 주로 관람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주중 낮 시간 ② 주중 저녁 시간 ③ 주말 낮 시간
④ 주말 저녁 시간 ⑤ 기타 ()

B6. 귀하께서는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소식이나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신문, 잡지 ② TV, 라디오
③ 안내문 (현수막, 간판, 지하철광고 등) ④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⑤ SNS ⑥ 공공단체, 교육기관
⑦ 주변사람 ⑧ 안내책자
⑨ 정기 소식지 (안내 이메일, 뉴스레터 등) ⑩ 동호회 모임
⑪ 기타 ()

B7. 김포시 문화예술행사가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① 작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② 관람비용을 낮춰야 한다.
③ 더욱 자주 개최되어야 한다. ④ 가까운 곳에서 열려야 한다.
⑤ 관련 정보가 많아져야 한다. ⑥ 이해하기 쉬운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
⑦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⑧ 기타 ()

B8. 귀하께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행사의 내용 및 수준 ② 관람비용의 적절성
③ 참가자(작가, 출연진)의 유명도 ④ 행사개최 장소의 유명도
⑤ 교통 편의성 ⑥ 편의시설 구비 여부 (놀이방 등)
⑦ 행사에 대한 전문가 평가 및 언론 보도 ⑧ 행사에 대한 주위 의견 및 네티즌 의견
⑨ 접근성 (가까운 곳) ⑩ 기타 ()

B9. 귀하께서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비용이 많이 든다. ②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③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④ 교통이 불편하다.
⑤ 편의시설(놀이방 등)이 불편하다. ⑥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⑦ 함께 관람할 사람이 없다. ⑧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다.
⑨ 기타 ()

B10. 귀하께서 지난 1년 동안 매체를 이용해 관람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체를 이용한 관람이란 TV, 스마트폰, CD 등을 통해 관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문화예술행사	지난 1년간 관람 횟수	주 이용 매체 (중복응답 가능)				만족도				
		TV	컴퓨터	스마트 기기	비디오 /DVD/ CD	불만족	← 보통 →	만족		
B10-1.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시회, 작가와의 대화 등)	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B10-2. 미술전시회 (사진, 서예, 건축, 디자인 등)	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B10-3. 서양음악 (클래식, 오페라 등)	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B10-4. 전통예술 (국악, 풍물, 민속극 등)	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B10-5. 연극	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B10-6. 뮤지컬	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B10-7. 무용 (서양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등)	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B10-8. 영화	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B10-9. 대중공연 (콘서트, 쇼 등)	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B10-10. 박물관	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B10-11. 축제 (야외행사 포함)	회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⑤

C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참여 경험

C1. 귀하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참여 경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각 항목에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점의 연간 평균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참여	경험 여부	만족도					향후 1년 이내 참여 의향
		불만족	←	보통	→	만족	
C1-1. 문학행사 개최 및 창작활동 (시집기, 개인도서출판, 시화전 개최 등)	있음□ 없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C1-2. 미술 전시회 및 창작활동 (사진찍기, 서예, 사진전시회 개최 등)	있음□ 없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C1-3. 서양음악 발표회 및 창작활동 (연주회, 합주활동, 오케스트라 활동 등)	있음□ 없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C1-4. 전통예술 발표회 및 창작활동 (국악, 풍물, 민속극 등)	있음□ 없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C1-5. 연극 발표회 및 창작활동	있음□ 없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C1-6. 뮤지컬 발표회 및 창작활동	있음□ 없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C1-7. 무용 발표회 및 창작활동	있음□ 없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C1-8. 영화 제작 및 발표회	있음□ 없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C1-9. 대중공연 (비보잉, 밴드활동 참여 등)	있음□ 없음□	①	②	③	④	⑤	있음□ 없음□

C2. 귀하께서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참여를 주로 어느 지역에서 하십니까?

- ① 북부권역 (월곶면, 하성면, 통진읍, 대곶면)
- ② 중부권역 (양촌읍, 장기동, 장기본동, 운양동, 구래동, 마산동)
- ③ 남부권역 (김포본동,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 ④ 김포시 외 지역 (시·군) C2-1로

C2-1. 주로 김포시 외 지역에서 참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① 관심 있는 프로그램이 타 지역에 있어서 ② 활동비용이 저렴해서
- ③ 활동 환경이 쾌적해서 ④ 교통이 더 편리해서
- ⑤ 관련 정보들이 많아서 ⑥ 신청 등의 절차가 편리해서
- ⑦ 지인과 함께 활동하기 위해서 ⑧ 기타 ()

C3. 귀하께서는 주로 누구와 함께 참여하십니까?

- | | | | |
|--------|--------------|---------------|-----------|
| ① 혼자 | ② 가족 (자녀 동반) | ③ 가족 (자녀 미동반) | ④ 친구 및 연인 |
| ⑤ 직장동료 | ⑥ 동호회 회원 | ⑦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 ⑧ 기타 () |

C4. 귀하께서 주로 참여하는 시간대는 언제입니까? (1순위: , 2순위:)

- | | | |
|------------|------------|-----------|
| ① 주중 낮 시간 | ② 주중 저녁 시간 | ③ 주말 낮 시간 |
| ④ 주말 저녁 시간 | ⑤ 기타 () | |

C5. 귀하께서는 문화예술 활동 소식이나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습니까? (1순위: , 2순위:)

- | | |
|---------------------------|----------------|
| ① 신문, 잡지 | ② TV, 라디오 |
| ③ 안내문 (현수막, 간판, 지하철광고 등) | ④ 웹사이트 및 포털사이트 |
| ⑤ SNS | ⑥ 공공단체, 교육기관 |
| ⑦ 주변사람 | ⑧ 안내책자 |
| ⑨ 정기 소식지 (안내 이메일, 뉴스레터 등) | ⑩ 동호회 모임 |
| ⑪ 기타 () | |

C6. 귀하께서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참여를 주로 어디에서 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 |
|-----------------------------------|--------------------------|
| ① 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 ② 직장 (역량교육 등) |
| ③ 공공 문화시설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문화재단 등) | ④ 지역시설 (주민센터, 수련원 등) |
| ⑤ 전문 교습시설 (사설학원, 강습소 등) | ⑥ 종교시설 |
| ⑦ 개인 (지인 도움, 개인 레슨 등) | ⑧ TV, 인터넷 강좌 |
| ⑨ 동호회 | ⑩ 문화센터 (백화점, 신문사, 방송사 등) |
| ⑪ 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인정, 요양원 등) | ⑫ 기타 () |

C7. 귀하께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참여를 하실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 | |
|-----------------------|-------------------|
| ① 비용이 많이 든다. | ② 시간이 좀처럼 나지 않는다. |
| ③ 관심 있는 프로그램(강좌)이 없다. | ④ 교통이 불편하다. |
| ⑤ 편의시설이 불편하다. | ⑥ 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
| ⑦ 함께 배울 사람이 없다. | ⑧ 주변에 시설이 없다. |
| ⑨ 기타 () | |

C8. 김포시 내에서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교육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어떠한 부분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 | |
|-----------------------------------|-------------------------------|
| ① 비용이 저렴해져야 한다. | ② 내용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
| ③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 ④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늘어나야 한다. |
| ⑤ 강좌당 수강인원이 더 적어야 한다. | ⑥ 시설과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
| ⑦ 프로그램의 종류가 다양해져야 한다. | ⑧ 프로그램 개수가 늘어나야 한다. |
| ⑨ 접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 ⑩ 프로그램 홍보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⑪ 시민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 ⑫ 기타 () |

■ 응답자 기본정보

SQ1. 성별

- ① 남성

SQ2. 연령

만()세

SQ3. 국적

- ① 대한민국 ② 기타 ()

SQ4. 최종학력

- ① 초등학교 이하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④ 대학교 ⑤ 대학원 이상

SQ5. 혼인 여부

-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SQ6. 동거 중인 자녀 수

- ① 자녀 없음 ② 미취학 아동 (만5세 이하) ()명
③ 취학 자녀 (만6세~만18세) ()명 ④ 성인 자녀 (만19세 이상) ()명

SQ7. 장애 여부 및 장애등록 여부

- ① 해당 사항 없음 ② 미등록 ③ 장애등록

SQ8. 직업

- ①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 (예술가, 기획자, 정책가, 행정가, 연구자 등)
- ② 관리자(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 부장 이상의 직위 등)
- ③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교수, 교사, 의사, 변호사, 예술가, 종교인, 언론인, 웹디자이너, 프로그래머 등)
- ④ 사무종사자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 ⑤ 서비스종사자 (미용사, 간병인, 점술가, 요리사 등)
- ⑥ 판매종사자 (상점 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 ⑦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가족 종사자 포함)
- ⑧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제빵사, 재단사, 자동차 정비사 등)
- ⑨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중장비/트럭 운전사,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등)
- ⑩ 단순노무 종사자 (토목 관계의 현장 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 ⑪ 학생
- ⑫ 전업주부
- ⑬ 무직
- ⑭ 기타 (구체적으로:)

SQ9. 거주지

- ① 통진읍 ② 고촌읍 ③ 양촌읍 ④ 대곶면 ⑤ 월곶면 ⑥ 하성면
⑦ 김포본동 ⑧ 장기본동 ⑨ 사우동 ⑩ 풍무동 ⑪ 장기동 ⑫ 구래동
- ⑬ 마산동 ⑭ 운양동

SQ10. 월평균 가구소득

- | | | |
|------------------|--------------------|------------------|
| ① 소득 없음 | ② 100만원 미만 | ③ 100만원~200만원 미만 |
| ④ 200만원~300만원 미만 | ⑤ 300만원~400만원 미만 | ⑥ 400만원~500만원 미만 |
| ⑦ 500만원~600만원 미만 | ⑧ 600만원~700만원 미만 | ⑨ 700만원~800만원 미만 |
| ⑩ 800만원~900만원 미만 | ⑪ 900만원~1,000만원 미만 | ⑫ 1,000만원 이상 |

SQ11. 김포시 거주기간

약 ()년 ()개월

2. 창작자 설문지

(ID :)

김포시 문화예술 관련 관계자·전문가 의견조사 (창작자)

본 설문조사는 「김포시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귀하의 답변은 김포시 문화예술 정책수립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호됩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관기관 : 김포시

연구기관 : 이안전략컨설팅 (연구책임 김준호)

조사담당 : 권상화 팀장 (02-6929-1922)

A 공통문항

A1. 타 지역과 구분되는 김포시 문화예술만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강점을 이유와 함께 모두 말씀해주시요. (ex. 김포시민의 높은 문화향유 욕구,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역사자원 등)

A2.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해, 아래의 각 문제 요인별 해결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요.

문제 요인	중요도					시급도				
	중요X	←보통→	중요O			시급X	←보통→	시급O		
A2-1. 시민의 문화예술 감수성 및 관심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2. 문화기반시설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3. 지역 간 갈등 및 격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4. 문화 전문인력 및 매개인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5. 공공-민간 부문 연계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6.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낮은 퀄리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7.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8. 문화자원 및 콘텐츠의 경쟁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9. 체계적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부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0. 지역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환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1. 지역 문화예술 주체들 간 네트워킹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2. 관련 정책(사업) 간 연계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3. 콘텐츠산업 분야 지원체계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4. 지역 문화 아젠다에 대한 논의 자리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5. 문화예술 진흥의 구체적 근거(법·제도) 부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6. 지역 문화예술 진단을 위한 기초 자료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7. 문화다양성 가치 구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8. 비대면 향유환경 조성 노력 미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9.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20.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3. A2에서 응답하신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B 개별문항(창작자)

B1. 김포시 문화예술 창작환경(여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창작환경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1-1. 김포시는 전반적 창작여건이 우수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B1-2. 김포시는 예술적 영감을 얻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B1-3.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이 잘 갖춰진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B1-4. 예술적 다양성을 추구하기 적합한 환경이다.	①	②	③	④	⑤
B1-5. 지역 예술인 간 협업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6.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사업이 충분히 추진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7. 기타 ()	①	②	③	④	⑤

B2. 귀하께서는 문화예술인으로서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 기본정보

SQ1.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SQ2. 연령

만()세

SQ3. 소속

()

SQ4. 거주지 (동 단위까지 기재)

()

SQ5. 활동 분야 (주 활동 분야 하나만 선택)

- ⑤ 건축
⑩ 무용

()년

()

약 ()만 원

① 가입 () ② 미가입

3. 매개자 설문지

(ID :)

김포시 문화예술 관련 관계자·전문가 의견조사 (매개자)

본 설문조사는 「김포시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귀하의 답변은 김포시 문화예술 정책수립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호됩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관기관 : 김포시

연구기관 : 이안전략컨설팅 (연구책임 김준호)

조사담당 : 권상화 팀장 (02-6929-1922)

A 공통문항

A1. 타 지역과 구분되는 김포시 문화예술만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강점을 이유와 함께 모두 말씀해주시요. (ex. 김포시민의 높은 문화향유 욕구,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역사자원 등)

A2.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해, 아래의 각 문제 요인별 해결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요.

문제 요인	중요도					시급도				
	중요X	←보통→	중요O			시급X	←보통→	시급O		
A2-1. 시민의 문화예술 감수성 및 관심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2. 문화기반시설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3. 지역 간 갈등 및 격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4. 문화 전문인력 및 매개인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5. 공공-민간 부문 연계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6.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낮은 퀄리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7.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8. 문화자원 및 콘텐츠의 경쟁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9. 체계적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부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0. 지역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환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1. 지역 문화예술 주체들 간 네트워킹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2. 관련 정책(사업) 간 연계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3. 콘텐츠산업 분야 지원체계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4. 지역 문화 아젠다에 대한 논의 자리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5. 문화예술 진흥의 구체적 근거(법·제도) 부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6. 지역 문화예술 진단을 위한 기초 자료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7. 문화다양성 가치 구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8. 비대면 향유환경 조성 노력 미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19.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2-20.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3. A2에서 응답하신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요.

B 개별문항(매개자)

B1. 현 소속 기관(혹은 단체)의 근무여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무여건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B1-1. 고용이 안정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2. 평균 근무시간이 적절한 수준이다.	①	②	③	④	⑤
B1-3. 업무수행 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B1-4. 급여 및 복리후생 수준이 적절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B1-5. 기관(혹은 단체) 내 업무분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B1-6.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업무소통이 원활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B1-7. 기관(혹은 단체) 내 전문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8. 업무 소통체계가 효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B1-9. 지역 문화 매개자로서 소속 임직원의 사명감이 뚜렷하다.	①	②	③	④	⑤
B1-10. 기타 ()	①	②	③	④	⑤

B2. 현 소속 기관(혹은 단체)이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 기본정보

SQ1. 성별

- ① 남성
- ② 여성

SQ2. 연령

만()세

SQ3. 소속 및 직위

()

SQ4. 활동 분야(담당 직무)

()

SQ5. 활동 기간(근무 기간)

()년

4. 전문가 설문지

(ID :)

김포시 문화예술 관련 관계자·전문가 의견조사 (전문가)

본 설문조사는 「김포시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귀하의 답변은 김포시 문화예술 정책수립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호됩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관기관 : 김포시

연구기관 : 이안전략컨설팅 (연구책임 김준호)

조사담당 : 권상화 팀장 (02-6929-1922)

1. 타 지역과 구분되는 김포시 문화예술만의 강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시는 강점을 이유와 함께 모두 말씀해주시요. (ex. 김포시민의 높은 문화향유 욕구, 지역 문화예술인의 창작역량,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역사자원 등)

22. 김포시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해, 아래의 각 문제 요인별 해결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평가해주시요.

문제 요인	중요도					시급도				
	중요X	←보통→	중요O			시급X	←보통→	시급O		
2-1. 시민의 문화예술 감수성 및 관심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2. 문화기반시설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3. 지역 간 갈등 및 격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4. 문화 전문인력 및 매개인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5. 공공-민간 부문 연계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6.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낮은 퀄리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7.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8. 문화자원 및 콘텐츠의 경쟁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9. 체계적 문화예술교육 시스템 부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0. 지역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환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1. 지역 문화예술 주체들 간 네트워킹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2. 관련 정책(사업) 간 연계성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3. 콘텐츠산업 분야 지원체계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4. 지역 문화 아젠다에 대한 논의 자리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5. 문화예술 진흥의 구체적 근거(법·제도) 부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6. 지역 문화예술 진단을 위한 기초 자료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7. 문화다양성 가치 구현을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8. 비대면 향유환경 조성 노력 미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19.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부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20. 기타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

SQ1. 성별

② 여성

만()세

()

()

()년

연구진

연구책임

김준호 이안전략컨설팅 대표

연구참여

권상화 이안전략컨설팅 책임연구원

장유림 이안전략컨설팅 연구보조원

자문위원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상용 김포문화재단 대표이사

정현재 김포문화원 사무국장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